영가천도 영험도량 · 지장도량 성거사
단일 · 합동천도 봉행 조상령 천도전문 · 낙태아 수자령 천도
무료책자신청 문의상담전화 041-567-6820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9월 29일(음력8월 16일) 수요일 (주간) 제493호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큰 절’에 홈피가 없어요?

관람료 사찰 등 62% 개설 안돼 … 교구본사급도 관리부실

‘눈 뜬’ 사찰은 동영상에 외국어 서비스
정보입력 · 시설투자 · 인력양성 시급

물이나 공기처럼 시공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의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일컫는 유비쿼터스가 21세기 IT 산업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불교계 인터넷 환경은 여전히 척박하기만 하다. 정부는 내년까지 ‘e코리아’를 ‘u코리아’로 발전시킨다는 계획 아래 유 · 무선 인터넷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지만, 홈페이지조차 없는 사찰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조계종 24교구본사 중 홈페이지가 없는 곳은 속초 신흥사 한 곳 뿐이다. 신흥사측은 “인터넷 전용선이 들어오지 않아 위성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한다.

교구본사 중 공주 마곡사, 의성 고운사는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사찰검색란에 연결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고, 김제 금산사는 잘못된 주소로 연결돼 있다.

또 24개 교구본사 가운데 4곳 중 한곳은 사찰 홈페이지에 종단 홈페이지를 연결시키지 않았으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상담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놓지 않은 곳도 7곳이나 된다.

특히 어떤 교구본사는 낯 뜨거운 성인광고물을 한달 넘게 게시판에 방치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 사찰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람료 · 직영 · 특별분담금 사찰들의 인터넷 환경은 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52개 중 홈페이지가 있는 곳은 20곳뿐이다. 사찰별 특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약 62%가 ‘사이버 무적자(無籍者)’ 신세인 셈이다.

이른바 서울 3사 중 한 곳인 강남 봉은사와 기도도량으로 많은 불자들이 찾는 남해 보리암, 은행나무로 유명한 양평 용문사, 서울 시민들의 정신적 쉼터인 과천 연주암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봉은사측은 “좀 더 잘하려는 욕심 때문에 홈페이지 개설이 늦어졌다”며 “올해 내에는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람료 · 직영 · 특별분담금 사찰 중 종단 홈페이지 사찰검색에 연결된 사찰은 10곳뿐이며, 사찰 홈페이지에 종단 홈페이지를 연결한 곳은 9곳이다. 상담코너를 별도로 마련한 곳은 4곳.

2002년 문화관광부 후원 KT협찬으로 본지 등이 실시한 불교 정보화 실태조사에서 사찰 컴퓨터 보급률이 41.7%, 사찰 홈페이지 운영 비율이 13.3%로 대단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2004년 9월 현재 국내 인터넷 환경은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사찰 인터넷 환경은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가 있는 사찰이라고 하더라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단순하면서도 정적으로 만들어 시각적 효과와 변화에 민감한 네티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교구본사 가운데 경주 불국사는 한국어 뿐 아니라 영어와 일어로 사찰 관련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플래시와 동영상 서비스 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조계사, 평창 월정사, 양산 통도사도 홈페이지를 매일매일 업데이트해 네티즌들에게 신선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양산 통도사 홈페이지에서는 반야심경이나 천수경 독경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사이버 연등도 달 수 있다.

강화 전등사와 청도 운문사 등은 영어와 일어로도 사찰을 소개하고 있으며, 갓바위 선본사와 공주 동학사, 안동 봉정사 등은 각종 불교관련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다.

중앙승가대학교 김응철 교수는 “모든 문제는 불교정보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종단 차원이나 불교정보화협의회 등 단일한 조직 차원에서 정보포교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총무원 박맹수 전산과장도 “많은 사찰들이 산속에 위치해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점도 있지만 주지스님 등 사찰 소임자 스님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며 “교구본사 차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동우 · 유철주 · 김강진 기자



한가위 송편 많이 드시고 오래 사세요

안양노인복지센터 회원들이 한가위를 앞둔 9월21일 복지관 앞마당에서 지역주민 100여명과 함께 윷놀이 대회를 연데 이어 송편 빚기 행사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어르신들과 지역민들이 한가위의 정을 나누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날 빚은 송편은 노인복지센터 노인들과 지역의 불우이웃에게 전달되었다. 사진=박재완 기자

‘한국불교 달라져야 한다’ 원고 모집

독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불교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불교계 곳곳의 고질병에 할 말은 없으십니까? 한국불교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량: 200자 원고지 10매
■접수 마감: 9월 30일

■접수 : 우편 (110-170)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 bypark@buddhapia.com
■문의전화: (02)722-4162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원고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社 告

제10회 신행수기 공모에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마감 12월 15일

명실공히 교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귀중한 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큰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당선작 발표: 2005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및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성명과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십시오)

■시상내역
▷대상(유마상) ▷우수상(본사 사장상)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돈) 열쇠를 각각 수여합니다.
※ 10~11월 두 달간 현대불교신문과 붓다뉴스를 통해 수필가 맹란자 선생(에세이문학 발행인)의 ‘수기 쓰기 이렇게’를 연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서 읽는 문화 정착시키자”

불교출판문화협회 창립총회 가져

회장에 원택 스님

불교 출판문화 진흥과 문서포교의 활성화를 위한 ‘불교출판문화협회’가 9월 20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에 장경각 대표 원택 스님이, 수석부회장에 민족사 윤창화 대표, 부회장에 불서총판 운주사 임희근 대표가 각각 선출됐다.

이번에 출범한 불교출판문화협회는 지난 1992년 결성됐던 ‘불교출판협의회’가 확대 재편된 것으로, 불교계 출판사뿐만 아니라 불교 서점과 필자, 디자이너 등 출판 관계 종사자들을 포괄하는 단체다.

원택 스님은 “불교출판계의 장기 침체를 타파해 나가야 한다”며 “대중적 필자 개발과 본사급 사찰의 도서관 건립 등에 발 벗고 나서는 등 불교출판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장 인터뷰 3면

한편 이날 감사에 동쪽나라 김형균 대표, 사무국장에 여시아문 조동규 부장이 선출됐다. 여수령 기자

마하몰, eTrust 인증
6년연속 우수 몰로 선정돼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인 ‘마하몰(www.mahamall.co.kr)’이 ‘eTrust(eTrust)’ 인증업체로 선정됐다.

‘eTrust’는 인터넷 쇼핑몰의 신뢰구축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산업자원부의 후원으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실시하고 있는 인증 마크제도다.

마하몰은 1999년 6월 제1회 우수 사이버몰로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6년 연속 전자상거래 전문 우수쇼핑몰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남동우 기자

추석 연휴관계로
금주 20면 발행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 · 737-8881(대)

‘할’



그림 · 조태호

지족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10, 11면에서 만나세요)

영가천도전문도량 약천사

제 2회 태(胎)중 아기(낙태,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약천사 양력 10월 10일 (일요일)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태중(낙태,유산) 아기 지장보살님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 일 시 : 2004년 10월 10일 일요일 오전11시 (음, 8월 27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10월 10일 (음, 8월 27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11월 21일 (음, 10월 10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천도재 49만원 ※ 위패비 (1만원), 아기옷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7재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합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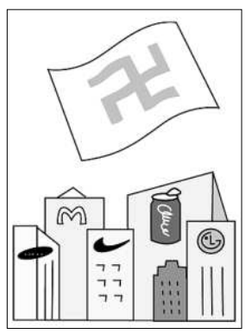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2) 49재를 올려서 천도해 주어야 합니다.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4) 지장보살상을 사볼 사는게 좋습니다.
5) 부처님을 조성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미지 통합작업 서둘러야

이미지통합 CIP(Cooperation Identity Process). 말 그대로 기업 정체성을 시각적 이미지로 담아내는 작업이다. 기업윤리와 정신, 이상 등 모든 것이 하나로 표현되는 셈이다. 자사에 대한 긍지와 사명감을 높여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이 작업을 하고 있다. 전적으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럼, 불교계에서는 산재한 불교 이미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묶어내야 할까.



최근 들어 조계종 등이 종단 이미지 브랜드화 작업을 추진,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전격 도입했다. 각 종단과 사찰의 개별적 특수성을 감안, 다양한 심불과 캐릭터, 전용서체 등을 개발하고 있다. 진각종의 경우, 지난 1998년 3월부터 1년여 기간에 걸쳐 종단이미지 표준화불사를 마무리해 육자진언의 '옴'자를 심불로, 죽비를 응용해 캐릭터로, 전용서체 진각서체 등 3개영역 기초분야와 300여 가지 응용분야를 개발해 현재 종단포교의 다방면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미지 제고·포교 효과 극대화
범불교 네트워크 구축의 기본

왜 불교계가 이런 시도를 해야 할까. 한국불교 종단과 사찰들이 운영체계의 전문화, 포교시스템 개발,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시각적 이미지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도 잘 포장해야 대중에게 잘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종단과 사찰의 종행정을 합리화해 종단조직의 효율성과 포교전략 수립에 이미지 통합이 효과적이라는 판단도 또 다른 이유다.

물론 이런 이미지 통합작업이 기존 불교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포교대상에 대한 적극적 접근과 새로운 포교방편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이 같은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지 통합작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이미지표준화불사의 섬세한 관리, 추가적 개발과 응용분야의 확대, 사용자의 인식과 관리마인드의 향상이 요구된다. '왜' 하는지를 공감했다면, 이제는 '어떻게'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 작업의 추진과 운영 성패는 변화하고자 하는 주체의 확고한 의지, 체계적인 시행, 운영을 위한 조직·제도적 뒷받침 등의 연구가 뒤따라야 하기에 그렇다.

한국불교는 다양화, 전문화로 대변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민족의 정신으로, 문화와 전통의 주체로서 한국불교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 종단과 사찰이 전문화와 효율적 운영을 통한 범불교적 네트워크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불교계 이미지 통합작업은 이에 대한 토대를 이루는 분명한 중대 불사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불교 이미지 통합작업은 종행정의 체계화와 시스템운영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하기에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높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회성(진각종 문화사회부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한암 스님 생가 복원 기념관 설립 추진

화천군, 2008년까지 94억 투입 계획

조계종 초대 종정을 역임했던 한암 스님 생가가 복원되고 기념관이 조성된다. 또 보물 496호 계성사지 석등이 있는 계성사지가 복원되고, 200여명 수용 규모의 불교문화수련관도 건립된다.

화천군은 9월 20일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에서 한암 스님 생가복원 및 기념관 조성사업 기본설계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화천군 출신인 한암 스님의 업적을 기리고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8년까지 총 94억원을 투입,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586답 번지외 4 지역에 생가 복원 및 기념관 조성, 수련관 건립, 계성사지 복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가 및 기념관은 37,198㎡(11,252.4평) 규모로 들어선다. 이 중 생가는 73.6㎡(22.2평),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전통한식 목조로 복원된다. 한암 스님의 생애 및 자료가 전시되는 기념관은 194.4㎡(58.8평),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건립된다. 여기에서는 화천군 불교 유적지, 한암 스님 생애, 한암 스님 관련 유물, 화천군 관광자원 등이 소개된다.

계성사지는 325.58㎡(98.48평) 규모로 복원되며, 극락전, 요사채, 산신각, 종각, 석탑, 석등 등이 들어선다. 계성사는 고려 충렬왕 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생가 및 기념관은 계성사지로부터 일정 부분 떨어진 곳에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불교문화수련관은 3,329.5㎡(1,007.17평) 규모로 3~4인실 50개, 8~10인실 1개, 12~15인실 1개, 20~25인실 1개 등으로 꾸며진다.

화천군측은 생가복원 및 기념관·수련관 건립을 바탕으로 불교 역사 문화공간과 문화관광자원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선정부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일산불교병원장에 이석현 교수

동국대이사회, 상임이사에 영배 스님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병원장에 이석현 前고려대 구로병원장이 내정됐다. 이에 따라 동국대의 일산불교병원 개원작업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9월 20일 제203차 이사회를 열고 일산불교병원의무원장 겸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양방병원장)으로 내정된 이석현 교수의 임용을 승인했다. <이석현 교수 이력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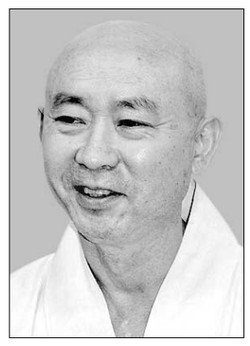
이밖에 한방병원장에 한의학과 이원철 교수, 행정처장에 성익재 前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을 10월 1일자로 임명키로 했다.

한편 지난 202차 이사회 정관개정으로 신설된 상임이사에는 영배 스님이 선임됐다. 그동안 이사장 직무에 대한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이유로 논란을 빚어온 것을 의식한 듯 영배 스님은 "상임이사는 순수하게 이사장의 보좌 업무로 만 한정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이사의 업무 개시는 선임이 결정된 21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또 기타 안건으로 상정된 불교대학발전위원회 관련 시행세칙도 마련됐다. 불교대학발전위는 이사회 내 특별위원회로, 영담·영배·학담 스님, 동국대 서윤길·김성철·김병식(이상 동국대), 최병헌(서울대), 이평래(충남대) 교수 등 8명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불교학부 교육 및 운영, 대학원 교육 및 운영, 불교학연구 진흥 및 교수활동 지원, 졸업생 진로지원, 불교대학 관련기관 및 단체 발전방안 마련 등이다. 조용수 기자

"다 놓고 선방으로 가렵니다"

조계종 13대 중앙종회 전반기 의장 지하 스님



조계종 13대 전반기 중앙종회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지하 스님이 40여 년간의 종단 소임을 끝으로 선방으로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60년 추담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스님은 63년 종비생 1기로 선발되면서 종단 일에 몸담았다. 총무원 부원장,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5·6·7·9·10·11·12대 중앙종회의원, 12·13대 중앙종회의장 소임을 맡았다.

8선 종회의원…40년 종단 일
"대화중심 종회되도록 노력을"

▲종회를 운영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과 개선돼야 할 점은?

-젊은 의원스님들이 각 분과 활동을 열심히 해 이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대화중심으로 운영돼야 할 종회가 대화부족으로 갈등을 겪었던 것은 개선돼야 한다.

▲의장 재임 시 멸빈자 사면 등을 처리하지 못했는데?

-사면을 반대하는 측과 사면에 동의하는 측 모두 일리가 있다. 개인 경험에 비춰볼 때 법논리에 밝은 것보다 상황논리에 밝은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중앙종회의원 면책특권이나 교구별 중앙종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중앙종회의원 숫자와 관련) 현 제도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는 아니더라도 잘 돼 있다고 본다. 면책특권은 없어져야 한다. 입법 자체가 잘못됐다. 입법할 당시에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종회가 변했는지?

-종법도 많이 보완됐지만 특히 12, 13대에 들어와서 폭력적 언행이 많이 줄었다.

▲종책모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

▲비구니 스님들을 군법사로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 포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종교 특히 천주교에서 반대가 심할 것이다. 즉 신분차별 문제로 수녀들을 군 장교에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에서 비구니 스님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비구니 스님의 중앙종회의원 증원에 대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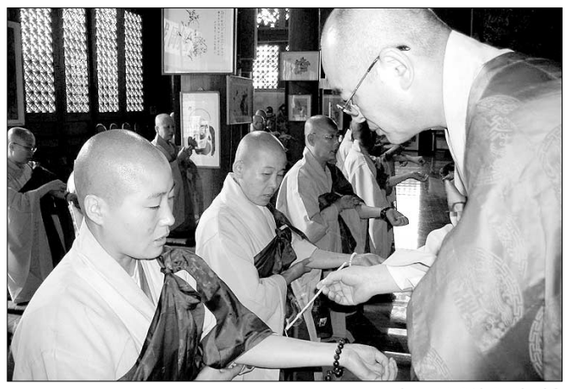
-직능별로 한두 명 증가한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총원을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40여 년간 종단 일을 해 왔지만 금년 가을부터 선방에 가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선방에서 참구하는 것만 수행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일 자체가 수행이다.

한편 중앙종회 사무처가 9월 22일 발표한 13대 전반기 중앙종회 현황에 따르면, 종회는 총 10회 개회됐으며, 평균 82.2%의 참석률을 보였다. 34일 중 16일 동안 55시간 43분 회의가 진행됐으며 총 1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에는 총무원법 개정(157회), 승려법개정(158회), 종헌개정(162회), 총림법제정(163회) 등이 포함돼 있다.

남동우 기자



태고종 새 스님 143명 수계

태고종은 9월 21일 서울 봉원사에서 제5회 구족계 수계산림을 열고 비구 91명, 비구니 52명 등 143명에게 구족계를 내렸다. 이날 구족계를 받은 스님들은 사미·사미니계를 받은 지 3년이 경과한 사미·사미니들이다. 박봉영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110-4 101호
☎ 02)396-2736·HP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heegyunwiz@hanmail.net

사찰 및 유관·신행단체 배포용

스님, 불자님들의 유익한 정보지

2004불교종합정보

사찰의 전각 건축, 단청, 조경 등으로부터
불상과 불화, 불단, 닫집 및 석조물의 조성,
각종 불구 및 사찰용품, 기타 불교관련 제반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불교관련 생산, 유통 정보와
불교종단, 법인, 기관, 단체, 사찰 등의
13,000여 주소록을 집대성한 종합정보 자료집

불교TV 방영중

불사관련 업체 광고 수록문의!!



2004 불교종합정보
국배판형 | 컬러250쪽 | 흑백 250쪽 | 정가 30,000원



세상을 밝게 하는 방송 불교TV 사찰 무료 배포문의 : 불교TV기획실 02-713-5114

외국인 노동자 한국인 청소년 우정으로 통했어요

청교련 문화체험 행사에 90여명 참가 성황

"외국인 노동자 하면 왠지 무섭게만 느껴졌는데, 함께 어울려 연꽃등도 만들고 윷놀이도 하면서 편견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야겠어요." (손고은 · 안양외고 2)

9월 19일 인천시 청소년수련관은 외국인 30여명과 청소년 60여명이 나누는 사랑과 우정으로 따뜻한 기운이 넘쳐흘렀다. 바로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가 마련한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현장.

이번 문화체험은 사회 · 문화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한데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부터 시작한 행사는 제기 · 딱지 접기 등 추억놀이마당과 봉숭아 물들이기와 치자염색체험 등의 천연염색마당, 연꽃등 · 달걀바구니 만들기 등의 소품공예마당 등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여기 구멍에 짚을 넣어서 꼬면, 달걀이 안 빠져나와요."

"여기, 이렇게요?"

"네, 너무 잘하세요."

체험마당 곳곳에서는 서투른 손놀림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청소년들과 쑥스러운 웃음으로 고마움을 전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간의 이야기꽃이 활짝 피었다. 언제 한국에 왔는지부터 무슨 일을 하는지, 어려운 점은 뭐가 있는지, 아이들은 있는지….



9월19일 열린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현장에서 한국청소년과 외국인들이 윷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다른 생김새에 게다가 1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무슨 이야기를 할까 싶었는데, 아이들은 특유의 솔직함과 순수함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 발짝 다가가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의 마음을 가슴으로 느끼며,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고향에 있는 동생들이 생각나요. 타지에서 외로웠는데, 이렇게 예쁜 동생들과 합장주도 만들고 재미있는 게임도 하니 너무 너무 기뻐요." (자말블루 · 24, 방글라데시)

"평소 휴일 때 방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 밖에 별다른 할 일이 없었어요. 일하는 곳 말고 이렇게 한국인들을 많이 접할 기회도 없구요.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들뜨고 설레네요." (자비르 · 28, 스리랑카)

체험마당이 끝나자 흥겨운 윷놀이를 시작으로 청소년동아리 팀의 풍물놀이와 가야금 연주, 전문공연팀의 승무와 살풀이 공연, 외국인 록 밴드의 공연 등이 잇따라 펼쳐졌다.

흥겨운 리듬에 어깨를 들썩이며 하나가 되어가는 외국인 노동자와 청소년들. 어느덧 땅거미가 지자 이별의 시간을 감지한 이들은 두 손을 꼭 부여잡으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발원들을 가슴에 새기며….

글 · 사진=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눈높이에 맞춰 책 만들겠다"

인터뷰 불교출판문화협회장 원택 스님



"12년 전 창립했던 '불교출판협의회'를 좀 더 잘 이끌었다면 오늘날 협회를 재창립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졌다 생각하고 불교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 20일 불교출판문화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원택 스님(사진)을 만났다.

▲소감은?

-오늘날은 종이책의 권위와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낮은 시점이다.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재 창립하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오늘날 불교출판계의 위기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불교계 출판사와 단체들이 '불교 독서운동'을 일으켜보기 위해 결성한 단체를 맡게 돼 많은 부담감을 느낀다. 하지만 앞으로 불교 출판의 수준과 내용을 향상시켜 좀 더 대중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출판물을 선보인다면 더 나은 출판문화가 형성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나?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독서운동을 전개해 불서 읽는 풍토를 활성화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불서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출판사간 공동 기획과 출판으로 양질의 불서를 생산해내는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협회 내에 '독서진흥위원회' '유통대책위원회' '도서관대책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꾸려 불교 출판인의 역량 강화와 출판문화 진흥에 대해 연구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실천해 나 가겠다.

사찰에 도서관 건립 요청 유통구조 개선 나설 계획

▲중점을 둘 사업은?

-우선 종단 차원에서 본사급 사찰에 일반 대중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이는 곧 불자들과 일반인들이 쉽게 불서에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출판물의 판매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대중적인 필자를 개발하는 것도 급선무다. 불자들 대상의 '전문 서적'에서 탈피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회원사들이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쉽지만 질 높은 책'을 펴낼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겠다.

여수령 기자

신발 1천켤레 北에 보내

참여불교운동본부(상임의장 혜총 · 이하 참여본부)가 추진하는 대북지원 신발 1차분 1천 켤레의 선적식이 9월 20일 오후 인천항에서 이뤄져 부산지역 불자들의 대북 생필품 지원운동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날 참여본부의 통일신발지원단(단장 황정 스님) 행사에는 단장 황정 스님, 태종사 조실이자 참여본부 상임고문인 도성 스님, 참여본부 공동의장인 진관 스님, 참여본부 공동부의장인 자륜 스님, 김영 참여본부 사무처장을 비롯한 자비의 통일신발지원단 회원 50명이 참여했다.

이날 선적된 신발은 평화통일불교협의회의 기존 교류 창구를 거쳐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된다. 한편 참여본부는 지속속인 통일신발지원사업의 전개를 위해 1개월에 2000원씩 지원하는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051)322-7902

천미희 기자

JTS, 용천에 의약품 추가지원

한국 JTS(이사장 법륜)는 대규모 폭발 사고를 겪는 북한 룡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의약품을 선적식을 9월 21일 인천항에서 열었다. 이날 배에 실린 공책 등 어린이 용품과 항생제, 청진기 등 의료용품 등은 23일 남포항으로 운반돼, 조선불교도연맹이 인계됐다. 이번에 보내진 지원물품은 총 5천 4백만 원 상당이며, JTS는 지금까지 1억 3천만 원어치 물품을 지원했다.

강유신 기자

대불청 회장후보 단독출마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상옥) 제23대 중앙회장선거에 김의석 후보가 단독출마했다.

대불청은 지난 9월 15일 회장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 중앙 부회장인 김의석 후보(45)가 단독 출마했다.

대불청 중앙회장 선거는 10월31일 갑사 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다. 직할 지구 · 지회 임원 중 과반수이상이 제작한 가운데 50%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당선가능하다. (02)738-1920

김은경 기자

스님 절반, 조계종 복지정책 '부정적'

'시설지원 원한다' 67%

조계종 본 · 말사 주지 스님 2명 중 1명은 종단이 진행 중인 사회복지사업에 부정적인 반면, 타 종단 및 종교의 사회복지사업과 비교할 경우, 74%에 가까운 응답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조성희 교수가 지난 7월 7일부터 8월 5일까지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진행된 전국 교구본말사 주지 연수에 참석한 173명의 주지 스님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설문에 따르면, 종단 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50%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매우 긍정적'이라 답한 응답자는 15.3%였다. 반면 타 종단 및 이웃 종교의 복지사업과 비교할 경우, 73.9%의 응답자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특히 시설운영 방식과 관련해 응답자 66.7%가 시설을 지원하는 형태를 원한다고 답해 시설 직영운영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나타냈다. 어떤 시설을 운영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68.4%가 아동시설로 답했고, 그 뒤로 복지관(28.8%), 양로원(27.9%) 등으로 답변했다.

또 복지예산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4.7%가 '없다'고 답해 교구본사가 복지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돈' 문제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복지예산이 '있다'고 응답한 수치는 35.3%에 불과했으며, 평균 예산금액은 784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이외 사회복지 전담직원이 있는 곳은 응답자 10.5%에 미쳤으며, 직원이 1명인 곳이 52.9%에 달했다.

김철우 기자

"반가사유상 78 · 83호 고구려 · 백제서 제작"

그 동안 신라 제작설이 우세하던 국보 제78 · 83호 금동반가사유상 제작국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강우방 이화여대 교수는 9월 2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진 '세계미술사상 두 걸작, 금동사유보살상의 새 고찰'이라는 특별강연회에서 국보 제78호는 고구려, 국보 제83호는 백제의 작품이라는 주장을 폈다. 강 교수는 제78호의 보관(寶冠)에는 고구려벽화의 '영기 싹 무늬'가 보이고 동자(童子) 표현에서 도가 영향이 나타나, 도교가 성행했던 6세기 후반에 고구려에서 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제83호는 백제시대 불상들과 양식이 유사하며, 조형성과 양식이 탁월해 백제 미술 전성기인 7세기 전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익순 기자

치매센터 · 스님 복지시설 건립 추진

불교자원봉사련 창립 10주년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 · 이하 불자련)가 9월 30일 창립 10돌을 맞는다. 서울 방생선원 주지 성덕 스님이 주도한 '한국방생바라밀회'를 모태로 출범한 불자련은 척박했던 불교계 자원봉사활동에 방향성을 제시, 이제는 대표적인 불교자원봉사단체로 자리매김을 했다.

불자련의 10년간 성과는 회원 수와 봉사시간에서 그대로 확인된다. 현재 회원 수 3600여명, 이 중 937명은 하루도 빠짐없이 봉사처에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이 10년간 펼친 봉사시간은 18만 6810시간. 하루에 8시간씩 쉬지 않고 25일간 활동한 시간과 같다. 937명 봉사자 1인당 평균 100시간을 봉사한 셈이다.

봉사조직력도 대단하다. 총 39팀이 전국 51곳의 복지시설, 병원, 무료급식소 등에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거쳐간 봉사처만 110여 곳이 넘는다.

특히 불자련은 전문자원봉사 인력도 배출했다. 94년부터 매년 두 차례 자원봉사시민대학을 운영, 총 1,683명의 불교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있다.

불자련은 10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 우선 사무실을 오는 9월말에 방생선원으로 옮기고, 서울 길동 무료급식소 관음의 집을 확대 · 개편할 예정이다. 또 직영복시설로 치매노인요양센터와 승려 노후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철우 기자

「4박5일 기공 지도사반 강좌」
불가에서 비밀리에 전해져온 신비의 氣치료법 전수!
전신모세공 호흡법으로 사기, 병기를 배출하여 육체를 정화하는 비법!
天一氣功
www.chgg.co.kr
통증치료법의 전수를 밝힌다!
소주천속성법, 상기병을 치료하는 호흡법
※영가천도 많이 하셔서 몸이 탁해 지신 스님들 탁한 기운 스스로 정화하는 법 공개
천일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
Tel.054)638-2224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 일	시 간	법 회 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자경문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화엄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 · 동선회	주제별특강

◆특별기도
2005학년도 수능특별기도 :
2004년 8월 8일-
11월 17일(만101일간)
기도성취도량 우리절에서 마음에 뜻하신 바 반드시 이루십시오.

◆우리절개산대제
오는10월7일 목요일은 이토록 아름다운 태화산에서 우리절이 문을 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한지 꼭 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전10시부터 법회를 봉행하오니 우리절을 사랑하시는 불자가족 여러분, 부디 오셔서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불자님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미래를 설계하고 싶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곤지암 우리절주지 일원동봉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잔치상 받고 선물 받고

“마음 젊어지네”



한가위를 맞아 9월 18일 광주 서부경찰서 불자들이 관내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마련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광주 서부서 불교회 ‘경로위안잔치’

무의탁 노인 150여명 초청
공연·점심공양후 내복 증정

“나이 먹은 사람들은 굿보고 먹는 재미가 최고지. 게다가 선물까지 준다니 오늘은 애들 말로 ‘짱’이야.”

9월 18일, 광주 농성동 갤러리아 웨딩홀 4층 연회장. 서부경찰서 불교회(회장 김창배, 이하 서불회)가 마련한 ‘한가위 경로위안잔치’에 시어머니(91)를 모시고 참석한 김연자(68)씨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좀처럼 바깥나들이를 하지 않던 시어머니가 오랜만의 나들이에 흥겨워하는 모습이 좋았기 때문이다.

이날 경로잔치는 서불회가 추석을 앞두고 관내 무의탁노인과 노인정, 요양원 등 외롭게 사는 노인 150여명을 초청해 위로하는 자리였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찰불자들이 박봉을 쪼개 마련한 자리여서 서불회가 마련한 경로잔치는 주위의 관심이 높았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경로잔치에는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을 비롯해 미타종 부종정 혜우 스님, 서불회 경승단장 광민 스님, 광주 사암연합회장 혜향 스님 등 지역 사암 스님과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 등 지역 기관장들도 많이 행사에 참여했다.

공연에 앞서 천운 스님은 “급격한 산업화로 전통 가족사회가 파괴되어 노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지만 마음은 젊고 넓게 가져 즐겁고 건강하게 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에서 가수로 활동 중인 배소연, 강선미 씨가 출연해 가요, 민요, 사물놀이 등으로 노인들을 흥겹게 했다. 또한 한마음선원 합창단이 특별출연해 찬불가와 ‘어버이 은혜’를 합창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점심공양과 겨울용 내복을 증정했다.

이번 경로잔치를 주관한 서불회 김창배 회장은 “안타깝게도 건강이 여의치 못해 이곳까지 오지 못하는 무의탁 노인이 많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서불회원들은 모든 이들이 더불어 즐겁고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정진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불회는 1999년 창립, 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정기법회는 물론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지역사찰에서 매월 2회 무료법률상담을 펼치고 있다. 이준엽 기자

춤추고 미팅하고… 신명나게 놀아보세

서울·대전·구미 등 전국 복지관 ‘노인의 날’ 행사 다채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불교계 복지관들의 행사가 푸짐하다. 신명나는 춤판이 벌어지는 것은 기본, 어르신 미팅 주선, 전통놀이 한마당, 운동회, 노인주간 선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구미종합복지관은 10월 2일 지역 어르신 3백여 명을 초청해 ‘신나는 어르신 춤바람 큰잔치’를 개최한다. 구미의 한 무도회장에서 펼쳐질 이번 행사는 대구 MBC 인기 MC 장인환 씨의 사회로 독신어르신들을 위한 맞선 이벤트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더욱 흥미롭다. 또 대전서구노인복지관도 ‘다시 만난 우리’를 주제로 어르신 미팅 행사를 준비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10월 6~22일 노인주간을 선포한다. 명상반 개설을 비롯해 동요대회, 바둑대회, 문예집 발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울 광진노인복지관은 10월 2~7일 개관 1주년을 기념해 탁구, 당구대회를 여는 한편 실버가요제를 마련한다.

축제마당도 이어진다. 수원 서호노인복지관은 10월 7일 ‘2004 서호축제 한마당’을, 안양노인복지센터는 10월 15일 ‘해울민속잔치’를, 여수노인복지관은 10월 중순 위안잔치‘을 각각 연다.

광주 한마음선원

양로원 위문·음성공양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어린이합창단은 9월 18일 광주 농성동 동일동산 양로원을 방문해 노인들을 위문했다(사진).

이날 소년소녀 합창단은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찬불가와 동요를 선보이고 선원에서 마련한 음식과 선물을 전달했다.

이준엽 기자



봉화 청량사는 9월 18일 “자비와 사랑으로 평화를’ 이란 주제로 네번째 산사음악회를 열었다.

종교 초월한 평화의 한마당

청량사 산사음악회 성황
사부대중 4천여명 운집

경북 봉화 청량사가 9월 18일 네 번째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자비와 사랑으로 평화를’이라는 주제로 탑·법당 등 절 그자체로 무대가 된 음악회는 오전 내내 내린 비에도 불구하고 이의근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전국에서 4,000여명의 대중들이 운집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올해는 특히 신부, 수녀, 교무 등 종교를 초월한 성직자들이 대거 동참했다. 화려한 대중가수와 사회자 대신 스님, 신부, 수녀, 교무 등 종교를 초월한 성직자들이 평화의 메시지를 노래해 관심을 모았다.

운산 스님이 대금을 연주하고, 범능, 심진 스님이 음성공양을 했다. 한청복 교무와 정율 스님이 원광대학교 동기로 함께 무대에 섰고, 현정수 신부와 ‘이노주사(이렇게 노래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는 종교를 초월해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삼소회 진명 스님과 양비안느 수녀, 최현일 교무는 나란히 손을 잡고 출연해 ‘만남’ 등 화음을 맞췄다.

여기에 차세대 국악인 박애리, 그룹HE-5의 기타리스트 김광석, 소리꾼 장사익씨가 동참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대성 스님, 부불련 회장 취임식



부산불교연합회 제 9대 회장 대성 스님(범어사 주지) 취임식(사진)이 9월 17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열렸다.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을 비롯한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취임법회에서 대성스님은 “부산불교연합회는 1980년 창립된 이래 부산의 각 종단과 신행단체를 아울러 화합과 불교중흥의 큰 길을 열어왔다”며 “앞으로 부산불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비엔날레, ‘도롱뇽 친구들’ 행사

광주 비엔날레 참여관객 지율 스님이 9월 1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야외무대에서 ‘도롱뇽의 친구들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광주 비엔날레 10번 째 문화행사로 마련된 이날 공연에는 유랑그룹 ‘아콤다’와 광주 선덕사 유치원생들이 출연해 생명을 주제로 한 노래와 연주를 펼쳤다. 또한 마임공연 ‘춤추는 물고기’, 관객과 함께하는 퍼포먼스 ‘배기가스 풍선 날리기’ 등의 공연이 펼쳐져 비엔날레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렸다.

공연을 주관한 ‘도롱뇽의 친구들’과 ‘도롱뇽 소송 시민행동’은 공연장에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도롱뇽 소송 승리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준엽 기자

불자들 따뜻한 자비 전합니다

삼광사, 불우이웃에 성금 전달

부산 삼광사(주지 도원)는 9월 22일 법화당에서 한가위를 맞아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법회를 가졌다.

도원스님을 비롯한 삼광사 신도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전달식에서 부산시 관내, 독거노인세대, 소년소녀 가장, 모자가정 등 불우이웃 110세대에 총 11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 이어 열린 다과회에서 도원스님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에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운 분들에게 불자들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삼광사 신행단체인 봉사회가 미애원을 방문한데 이어 지장회-평화요양원, 처사회-초읍동 불우이웃, 화엄합창단- 천마재활원 등을 방문, 평소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설들에 추석맞이 선물 및 성금을 전달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전국체전 성공 기원합니다

충주사암련 탑돌이 행사

충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의천)가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충주 가금면 탑평리 중원탑평리 7층석탑(국보 제6호, 일명 중앙탑)에서 제14회 중앙탑 탑돌이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청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성공기원 의미도 함께 담은 이번 행사는 첫날인 10월 3일 탑돌이에 이어 점등식, 레크리에이션, 사물공연, 보컬공연, 탑돌이 학술대회, 시민노래자랑 등이 이어진다.

중앙탑 탑돌이 행사는 국민화합과 사회 안정, 남북평화통일의 염원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1991년 처음 시작된 불교행사다.

충주사암련은 매년 열리는 충주지역의 대표적 지역축제인 우륵문화제 때마다 탑돌이 행사를 재현해 나라의 안녕을 기원해 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심으로 한마음”
대불련 영남인대회

영남지역 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동아리들이 9월 18일 제3회 대불련 영남인 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연합동아리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시켰다.

이날 모인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경남지부, 부산지부, 산해원(마산,진해,창원지부), 영주지부, 서울지부 20여개지회 회원 70여명은 6개조로 나눠 경북대학교에서 체육대회, 문화제, 대동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회원들은 경북대학교 백호관(학생회관) 로비와 세미나실에서 지부별 인사, 조별활동, 홀라후프 돌리기, 줄줄이 말해요 등 실내게임을 즐겼다.

이날 동화사 포교국장 혜경 스님은 경북대학교를 방문해 영남인 대회를 개최한 대불련 동아리들을 격려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당부했다. 배지선 기자

목조건축물
(보수. 복원. 보존)



목조 건축물의 문제점
특히 곰팡이, 해충, 가루나무좀벌레, 흰개미
목재부식, 기와방수 이 모든것을 해결합니다.
저희 동화특수산업(주)은 목조 건축물을
과학적으로 보존에 임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
- 흰개미 방제 시스템
- 가루나무, 좀벌래살충
- 목재 복원 시스템
- 목재, 석재, 기와발수제
- 곰팡이 이끼 제거제
- 목재 전용(부식)방부제
- 기타 공사
- 목재 방염 공사

www.dongwhaind.co.kr
동화특수산업(주)
본사/공장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27-1
TEL. 031)451-6232 (代) FAX. 031)451-6238
HP. 011-747-2111

녹음테이프로 공부하는
太極四柱가 나왔다
(사주배우기가 너무 쉬워졌다)

중국 命理學을 완전 압도하는 새로운 太極四柱가 나왔다.
太極四柱는 이론이 간단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속성으로 완성하며 자신있게 개업할수 있다.
中國四柱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끝이없고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太極四柱는 배우기가 매우 쉽고 자상하며 간단명료해서 구체적이고 논리가 정연함으로서 차분하고 능소 능대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생생하다.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를 들어 흥미 진진하게 설명하므로서 질문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녹음테이프를 하루 한시간씩 독학으로 2개월이면 완성하고 인간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20여년간 강의하고 연구개발한 太極四柱는 오판과 실수가 없다.
中國命理學과 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안내서 무료 배부)

※ 그동안 많은 독자의 호응에 감사드립니다.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고 전화하면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테이프(14개)와 교재 代金 30만원
▶농협 : 100080-56-022361 (손선영)
※ 스님 및 포교사 특별할인 (20만원)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 324-2468 / 326-4585
釜山支部 : (055) 384 - 2303 大邱支部 : (053) 641 - 2334
龜尾支部 : (054) 465 - 2642 慶南支部 : 016 - 274 - 3170
慶北支部 : (054) 553 - 5145

법요집·기초교리 集괘도 재발간
공부하기 좋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本, 괘도집은 법당에 걸어 비치만 해두셔도 신도님들의 불교 기초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보시를 하고자 원하는 불자님들께서 전화 주시면 원찰 주소지로 택배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정근
- 찬양합니다
- 발원 및 축원
- 반야심경
- 사홍서원
- 입정
- 산회가
- 청법가
- 기타찬불가
- 법문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0. 삼귀의
11. 삼법인
12. 삼업
13. 삼학
14. 신도오계
15. 사성제
16. 사섭법
17. 십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왕삼매론

■ 기획 : 예맥불교문화원 ■ 제작 : 불교포교자료원
■ 전화 : 02-772-9052

궁중비법 사주명리 학인모집
(구, 성수철학원)

본 학회는 궁중비법 사주명리 연구로 전국 최대의 회원 양성 기관이며 현재 각지 200여곳에서 회원님들이 성황리 활동중이며 특히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육기관으로써 처음 배우실분, 해도해도 안되는 분을 위하여 1개월(주간)/3개월(야간,주2회)수강하시면 완벽한 비법으로 눈치볼 필요없이 100% 책임보장. 개업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본학회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시행
합격자에게는 자격증을 수여함

완 내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교육기간 :
  - ◆1개월 완성반(주간, 월 ~ 금)
  - ◆3개월 완성반(주, 2회)
    Ⓐ월·화반 Ⓑ수·목반 (시간 : 오후 7~9시)
- 지도교수·강사 : 백운 성수(본학회 회장)
  대각 스님(금강불심원) 백궁, 봉계, 도영
- 교육장소 : 본 학회 2층 강의실(최고시설완비)

※ 무료특강 10월 5일(화) 저녁 6시 30분

※금강불심원(본 학회 직할) 대각스님(053-425-7875)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내생에도 평생 불교 위해 살거요”

‘직책’ 물러나 강의 · 연구에 몰두 목정배 교수

가을을 재촉하는 가랑비가 오락가락하는 ‘목요일’이었다. 서울 약수동 약수법사(藥水法寺)에서 목정배 명예교수(68 · 사진)를 만났다. 그날도 목 교수는 35년동안 계속해 온 ‘목요일’ 강의를 준비중이었다.

오후 1시 반 강의가 시작되기 전, 수강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2층 강의실 옆에 딸린 서재에서 마주앉은 목 교수는 “뭐가 궁금한데? 차 한 잔하고 시작해요”라며 기자를 반겼다. 변함없이 크고 경쾌한 목소리는 이전 동국대 교정을 거침없이 가로지르던 시절과 다를 바 없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총장 임기 마쳐

30여 년간 한국 불교학의 거목으로 이름을 날렸던 그는 최근까지 몸담았던 서울불교대학원대학의 총장 임기를 끝마쳤다.

대학원대학은 이번 여름 처음으로 석사학위자 7명을 배출시켰다. 주로 불교응용학문 분야의 전공이 많은 대학원대학은 불교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편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이다.

“내 역할이 끝났으니 미련 없이 자리를 털고 나왔지. 이제 어디 억매이지 않고 부담 없이 하고 싶은 연구를 더할 수 있으니 잘된 일이야.” 홀가분한 표정의 목 교수는 최근 동국대 대학원과정을 지도하면서 대한불교법사회 이사장으로서 재가법사 양성에 전념하고 있다.

목 교수는 1937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났다. 모태신앙으로 중 3때 이미 부산 대각사에서 불교학생회를 조직하는 등 불교와의 인연은 어린시절부터 각별했다. 경봉 스님 문하에도 잠깐 있었다. 58년에 동국대에 입학해 75년 불교학과 전임교수가 됐다.

불교교리사와 계율학의 권위자로 한때 불교계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로 손꼽히기도 했다. 중앙대 부총장 박범훈 교수, 동국대 불교학과 신성현 연구교수, 차차석 박사, 원광대 선주선 교수 제주교대 고대만 교수 등 그가 길러낸 불교 석 · 박사가 수십 명이고, 불명을 지어준 이만 1500명이 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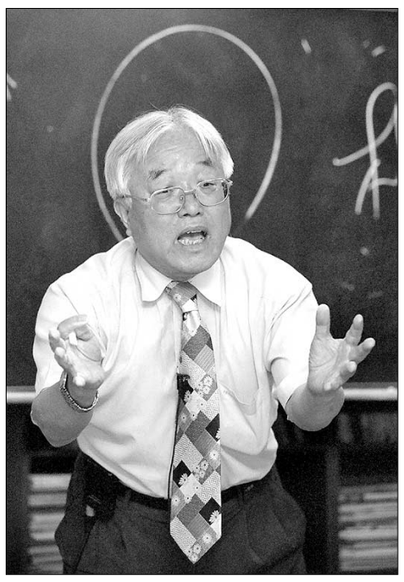
동국대가 있는 목멱산을 오른 지 50여년이 다돼 가지만 자신에겐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고 한다. 매주 수요일에는 여전히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지도하기위해 출강한다.

‘천재’ 또는 ‘괴각’으로 불렸을 만큼 동국대 최고의 명물(?)이었던 그는 늘 “내가 죽으면 화장한 뒤 동국대 캠퍼스에 내 뼈를 뿌려줘요. 그럼 인연되는 불종자를 하나 만나 환생해, 내생에도 다시 불교를 위해 평생을 살다 갈거요”라고 말한다. 동국대는 그의 분신이고 그는 동국대의 분신이다.

●35년 재가교육에 매진

목 교수가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 대원불교대학에서 부터다. “대원불교대가 처음 생긴 그때는 장경호 할아버지가 계실 때야”라며 당시 영암 스님, 성호 스님, 조명기, 김동화 박사 등과 함께 했던 시절을 회고 했다.

“그때 내가 강사로는 가장 어린 꼬마였는데, 내 강의가 목요일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목요일에는 목정배를 만나요 하면서 떠들고 다녔거든. 그렇게 해서 내 강의가 유명해 졌지, 허허.”



“목요일엔 목정배를 만나요” 목요강좌 35년째

교리중심 사상사 · 고구려 불교사 연구, 찬불가 정리 원력

목 교수는 최근 법사불교대학의 수강생들에게 자신이 35년간 강의했던 내용 가운데 가장 정수라고 생각하는 원효의 3대 종요(宗要)를 묶어 가르치고 있다. 3대 종요는 해동보살이라 일컫는 원효 스님을 사표 삼아 불교의 공사상을 바로알고 일승보살을 이뤄 아미타정토를 발원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목 교수는 사실상 자신의 재가자교육을 회향하는 의미라고 했다.

목 교수가 직접 정리한 원효의 3대 종요는 <대혜도경종요(大慧度經宗要)><법화경종요(法華經宗要)><무량수경종요(無量壽經宗要)> 3권이다. <대혜도경종요>는 반야사상, <법화경종요>는 법화사상, <무량수경종요>는 아미타사상이 그 핵심이다. 앞의 두 권은 이미 마쳤고 오는 연말까지 <무량수경종요> 강의를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일생을 매달려온 재가 교육은 지금의 목 교수를 있게 한 큰 힘이다. 목 교수의 강의를 듣는 이들은 보통 10수년 이상 수강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웬만한 한문 원전 어렵지 않게 읽어 내려가는 수준급 불자들이 대부분이다.

●고구려불교사 체계적으로 정리

목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법사불교대학의 강의를 끝내는 대로 준비 중인 3가지 원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불교교리사상사’를 정리 하고 있다. <불교윤리개설><불교교리사><한국문화와 불교><대승보살계사상> 등 자신의 책들 가운데 불교교리를 집대성한 ‘사상사’ 중심의 저서를 새로 발간할 계획이다.

또 고구려 불교사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시도한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구려, 발해지역의 불교사를 관심 있는 젊은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기 위해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석남, 혜자, 담징 뿐만 아니라 불교전래 이전의 스님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과 북한에 산재해 있는 고구려 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일단 베이징 중앙민족대학의 황유복 교수와 공동으로 종교적, 문화적 고구려 불교사 연구를 위한 구체적 계획 준비하고 있다. 이미 장춘, 선양, 장백 등 옛 고구려의 일부 지역을 다녀왔다.

마지막으로 내친김에 한국 불교의 찬불가를 다시 정리하려는 욕심도 내고 있다. 9월 16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명창 최영숙의 창작 소리극 ‘아! 도라산’이 개막됐다. 중앙대 박범훈 교수가 곡을 만들고 목 교수가 가사를 붙였다.

시인으로도 유명한 목 교수가 직접 작사한 노래 한둘이 아니다. 엄숙하기만 한 예식용 찬불가를 좀더 활기차고 장엄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평소 애주가에 애연가로 유명한 목 교수는 얼마 전 이 두 가지 모두를 끊었다. 비결을 물었다. 먼저 “술은 ‘돈주(頓酒)’로 끊었지” 라며 거침없이 대답했다. 아무리 그래도 담배는 끊기 어렵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에 다시 물었다.

“담배는 ‘돈오(頓悟)’로 끊었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했다. 그래도 지인들과 술집을 가게 되면 조금은 하지 않겠느냐고 물으니 “아! 이제는 손이 안가, 훈습(薰習)이 완전히 끊긴 게야”라며 짧게 답했다. 요즘 세상에 술, 담배를 끊은 것이 뭐 대단한 자랑일까 싶었지만 그는 참선이든 뭐든 ‘돈오’만이 일체적 여래지로 가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싶었던 모양이다. 순간 기자는 그 짧은 대답 속에서 한 평생 깨달음의 방편을 찾기 위해 정진해온 노학자의 담담한 자기고백을 대하는 듯했다.

글=조용수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개원 차질 없도록 준비 철저히 할 것”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장 내정 이석현 교수



동국대는 내년 상반기 개원을 앞두고 있는 일산불교병원장에 이석현 前 고려대 구로병원장을 내정됐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9월 20일 제203차 이사회를 열어 이석현(사진) 교수의 임용을 승인하고 일산불교병원의무원장 겸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으로 내정했다.

이 원장은 일산불교병원장 내정이 확정되자 “동국대 뿐만아니라 불교계 전체의 여망이 담긴 불교병원장 취임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고 밝히고 “현재 재직중인 학교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병원개원을 작업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동국대는 이 원장의 발탁 배경을 “2000년 9월부터 4년간 고대 구로병원장을 역임하면서 경영능력을 검증 받은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석현 원장은 1944년 전북 완주 출신으로 62년 경기고, 68년 서울대 의대를 마쳤다. 대한민국 동백장 수상.

현재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 대한 스포츠의학회 회장,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

조용수 기자

“불광운동 확산 위해 노력할 터”

서울 불광사 교무 맡은 원욱 스님



“불광사 대중들에게 수행과 교육에 있어서 비구 · 비구니, 남녀 재가자가 모두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광덕 스님의 혜명(慧命)을 올바로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비구니 원욱 스님(사진)이 최근 서울 불광사(주지 지종)의 교무소임을 맡았다. 도심 대형 사찰에 그것도 비구 스님이 주지인 곳에서 비구니 스님이 주요 3직중 하나인 교무를 맡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원욱 스님이 교무소임으로 발탁 된 배경에는 광덕 스님의 ‘불광운동’을 누구보다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 보아왔던 인연이 크게 작용했다.

원욱 스님이 불광사 주지 지정 스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것은 이번 기회에 사찰 내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을 좀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스님은 최근 능력 있는 비구니들이 교계 각 분야로 진출이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찰 종무행정에 실질적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불광사의 교무는 보통 큰절의 3직 교무와는 조금 다르다. 일반적으로 교무는 절의 대소사 전반을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인데 반해 불광사 교무는 재가 신도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불광교육원의 실질적인 원장 역할을 맡고 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일주문



이차돈 순교 추모재

파주 평화통일사 회주 일선 스님(이차돈 선양회장)은 9월 18일 통일사 대웅전에서 ‘성자 이차돈 순교 추모재’를 봉행했다.



창립 4주년 기념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노옥섭 회장은 10월 9~10일 김천 직지사에서 창립 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739-1080



성북구민 걷기 대회

서울 성북구사암연합회장 정수 스님은 성북구청과 공동으로 9월 19일 북한산 정릉유원지에서 ‘북한산 성북구민 걷기 대회’를 개최했다.



교통문화硏 후원법회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김주본 前 회장은 9월 17일 대구 보현사에서 ‘김주본 교통문화연구소 개소 후원 법회’를 봉행했다.

봉행 제1회 낙태(유산)아 무보시 49일 천도 대법회

아빠, 엄마 저희에게도 새생명을 주세요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난자의 만남으로
46개의 인간염색체를 가진 뚜렷한 인간 그것은 바로 태아 입니다.
이것은 흥당무도 토끼도 아닌 오직 인간일 뿐입니다.
나의 잘못된 행으로 비롯된 무서운 살생 그것도 바로 나의 자식을 살생한
과보를 그냥 무태반 하시겠습니까.
모두 참회 합시다.
그리고 허공을 떠돌고 있을 나의 어린 생명을 삶의 모습으로 되돌려 줍시다.

주지 지홍 합장



❖ 일시 : ● 입재 - 10월 14일(음) 9월 1일 오전 10시
매주 목요일 (10월 21, 28일 11월 4, 11, 18일) 재봉행
● 회양 - 11월 26일(음) 10월 15일(동안결재)
※당일 대중공양 보시를 받습니다.
❖ 기도비 : 무 료
❖ 접 수 : 지혜정사 종무실, 수성 포교원 지혜선원
❖ 문의전화 : (054)975-7766, 0104 (053)752-0108
❖ 위 치 : 팔공산 한티재입구 기성삼거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05번지

정법수행 정진도량 팔공산 지 혜 정 사

불자를 위한 보험①

49재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만약 돌아가신다고 가정해 보면,
그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입예시 1
● 계 약 자 : 현수 스님(45세, 비구)
● 피보험자 : 현수 스님(45세, 비구)
● 주보험료 : 1,000 만원(월보험료 : 44,500원. 10년납)
● 가입이유 : 다비 비용

가입예시 2
● 계 약 자 : 김미자 (59세, 보살)
● 피보험자 : 김미자 (59세, 보살)
● 주보험료 : 1,000 만원(월보험료 : 53,500원. 10년납)
● 사망시 수익자 : 관음사
● 가입이유 : 주지스님에게 시다림과 49재 부탁

가입예시 3
● 계 약 자 : 지장암
● 피보험자 : 혜광 스님(64세, 비구니)
● 주보험료 : 1,000만원(월보험료 : 112,300원. 5년납)
● 사망시 수익자 : 지장암
● 가입이유 : 은사스님 다비와 49재 준비
※ 현재 충남 금산 서대산 일불사 다비

문의 : 1544-0108 야단법석 흥국생명



야단법석 다비 상조회는

많은 스님들이 입적하시면 다비를 원하고 계시지만 여러가지 여건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야단법석은 지정다비장을 설치하여 스님계서 마지막 법문을 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www.15440108.com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경희의료원불자회 '봉선사' 의료봉사현장

"눈이 쉬 피로해요" "스님 경전 공부에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경희의료원 불자회원 우혜경(사진 왼쪽) 씨가 봉선사 스님의 혈당치 검사를 하고 있다.

절집 마당에 병원 문이 열렸다. 진료과목은 내과, 안과, 한방과, 물리치료. 웬만한 작은 병원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천막 기둥에 약국 간판도 내걸었다. 독감예방 주사액부터 혈압, 인슐린, 비타민까지 넉넉하게 가져왔다. 진료시간은 아침 9시. 하지만 진료대기 순번이 벌써 10번을 넘어섰다. 30분 먼저 진료가 시작됐다.

절마당에 작은 병원

9월 19일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 경희의료원 불자회(회장 권혁운)가 스님들의 '의료도반'으로 나섰다. 몸이 아파도 참고 견뎌야 했던 스님들의 속사정을 시원하게 풀어주기 위해 절을 찾았다.

"스님, 어디가 편찮으세요?"

"눈이 쉽게 피곤하고 금새 피로감을 느껴요."

"그럼, 가까운 병원에라도 가보셨어요?"

"…."

33년간 경희의료원에서 재직하다 정년퇴임한 안과전문의 김재명 박사(68)는 학인 스님들의 '눈' 상태를 걱정했다. 교종본찰답게 불경공부에 매달리는 학인 스님들이 경전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니 '안구건조증'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학인 스님들께서 불교공부에 욕심을 덜 내셔야겠어요. 눈에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스님들을 진료한 결과, 시력이 전반적으로 좋지를 않아요. 정기적인 안구검진과 시력검사가 필요해요."

종합검진도 이뤄졌다. 내과는 혈당과 소변 검사를, 한방과는 진맥을 잡았다. 40여 스님들 대부분이 큰 병은 없었지만, 오랜 수행생활에서 비롯된 스트레스성 위장병, 관절이상 등이 발견됐다. 곧이어 건강유지법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졌다. 채식위주의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제 등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영양제를 복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역주민들도 진료 '횡재'

평소 위장병을 걱정했던 봉선사 노전 성일 스님은 "산중 사찰에서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일부러 찾아와 진료를 해주니 너무 고맙다"고 감사를 표했다.

경희의료원 불자회의 진료봉사는 오후 5시까지 쉼 없이 이어졌다. 스님들은 물론 지역주민 100여 명의 건강상태를 세심하게 살폈다. 의료원 수간호사였던 우혜경 씨(54)는 혈당치 검사를, 진료봉사에 참가하기 위해 연차까지 낸 오정옥 씨(48)와 불자회 총무 남일현(51) 씨는 걷기 힘든 어르신을 부축하며 비지땀을 흘렸다.

이번 진료봉사에는 특별한 의사와 약사도 동참했다. 지난해부터 불자회와 봉사를 해온 천주교 신자인 이종수 경희의료원 한방재활과 교수(49 · 돈 보스코)는 "자원봉사에 종교가 중요하지 않다"며 침을 놓았다. 또 4백만 원어치의 의약품을 흔쾌히 보시한 종로약사회원 김정순 약사(50 · 서울 새현대약국)는 '불교의 꽃은 스님들'이라며 스님들이 건강해야 불교가 튼튼해진다고 말했다.

경희의료원 불자회 봉사활동은 지난 97년 창립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7년째 의료원내 불교자원봉사회와 간병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 매년 3~4차례 대한가수불자회와 병원 로비에서 '환자 쾌유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있다. 또 전국병원불자연합회가 정기적으로 벌이는 의료봉사활동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서 의료혜택이 못 미치는 곳에 '자비인술'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진료봉사를 펼치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료기기 마련은 필수지만, 지금은 회원들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를 직접 가지고 와 진료를 한다. 운영경비는 회비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진료봉사 · 음악회로 보살행

경희의료원 불자회 권혁운 회장은 "불자 의료인들의 진료봉사는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유마거사의 보살정신을 따라 바라밀행을 닦는 실천"이라며 "앞으로 의료봉사를 정례화해 보다 많은 이웃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 봉선사=김철우 기자

농협불교회 전국규모로

창립 10돌 맞아 회원배가 11월 연합법회 봉행계획

창립 10돌을 맞은 농협불교회가 미창립 지역단위 농협불교모임 창립을 지원하고, 오는 11월 연합법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 단위의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 기존 부산 · 경남 농협 등과 연계해 합동법회, 성지순례 등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농협불교회(회장 이복영)는 최근 서울 본사 강당에서 임원회의를 갖고 이 같은 10주년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개편과 회원확보에 나섰다.

농협불교회는 우선, 서울을 거점으로 한 수도권 중심의 기존조직을 부산 경남권, 충북권 등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월 27~28일 합천 해인사에서 '농협불교회 연합법회'를 봉행하는 한편, 연합회 발기인 모임도 이날 가질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지역 1백여 회원을 갖고 있는 농협불교회는 부산 · 경남 등 이들 지역의 농협불자 수를 대략 3백여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농협불교회 이동승 총무는 "먼저 지역불자회 임원들을 주축으로 연합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면서 연합법회 전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미창립 지역에 불자회 구성을 독려하는 것을 시작으로 합동법회, 성지순례 등 지역 불자회 회원들이 신행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고리반야부인회 창립

21일 회원 20명, 매월 정기법회

고리원자력발전소 불자 직원 부인으로 구성된 고리반야부인회(회장 유영자)가 창립됐다.

2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고리반야부인회는 9월 21일 창립이후 첫 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신행활동에 나섰다. 현재 직장불자회 내 부인회 모임은 10여 곳. 창립 16년차에 들어간 한국전력 월성원자력 반야회 내 마야부인회, 2000년도에 결성된 성북승무소 법우회 내 승만부인회, 울진원자력 문수회 내 승만회 등이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고리반야부인회는 우선 고리원자력발전소 반야회 회원들과 함께 매달 한차례 정기법회를 열 계획이다. 또 부인회를 중심으로 이웃돕기, 산사순례 등을 가질 예정이다.

김철우 기자

우리불자회는요

대한민국 여객연합불자회

핸들 잡을 때마다 "불심운전 안전운전" 14업체 법우들 전국도로에 불심 '씽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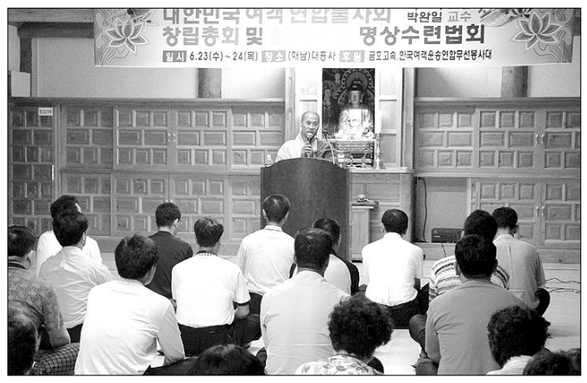
'편안한 마음, 즐거운 운전.'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운전기사들에게 부처님 가르침만큼 좋은 공부가 없습니다. 운전 중 정근이나 염불을 하면 교통사고 대부분은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가 '불심운전, 안전운행'을 모토로 내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여객연합불자회'입니다. 고속버스, 관광버스 운전기사 2백여 명이 올 6월에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여객운송업 운전기사 신행단체를 출범시켰습니다. 금호, 한진, 중앙, 호남, 경북, 새서울 고속 등 고속버스와 용남, 관당, 코오롱 관광 등 총 14개 업체 소속 운전기사불자들이 뭉쳤습니다. 참으로 창립법회 때의 환희심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불자여객운전기사들이 한데 모여 부처님의 법음을 함께 느꼈다는 것이 불자로서 자긍심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객연합불자회가 첫 닻을 올리게 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역과 소속사가 다르고, 장거리 운행을 하는 여객운전기사의 근무 특수성 등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여객운전기사가 모이는 서울 강남터미널에서 불자 운전기사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불자 운전기사들은 모여들었고, 지금은 여법한 전국단위 불자 연합회체로 성장했습니다. 모두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후 우리 연합불자회는 정기적인 신행활동 기반 조성부터 마련했습니다. 불규칙한 배치시간에 따른 회원들의 근무여건으로 지역별 소속사별 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또 법회 장소도 각 지역 터미널 부근에서 간이법회 형식으로 열어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여객불자연합회원들이 지난 6월 해남 대흥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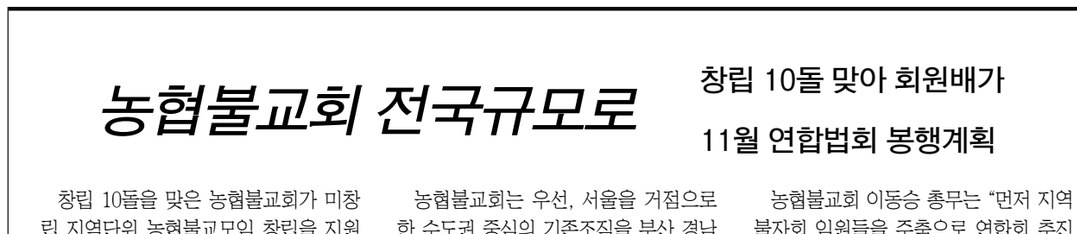
특히 9월 18일에는 연합불자회 산하 무선 봉사대와 제주지회(지회장 박인수)를 창립시켰습니다. 제주시 해안동 정광사에서 열린 제주지회 출범식에서는 운전기사 불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합불자회는 회원 대부분들이 잦은 운행으로 모이기가 힘든 점을 감안, 지역별 가족중심의 신행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 부부 소모임도 별도로 둬 연합회 지역조직 활성화의 기반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연합회 출범까지 지난 3년간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돼서야 연합회가 창립됐습니다. 늦게 출범한 만큼 불교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모범을 보이는 직장신행단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재술 연합회장(금호고속)

불교와 문화
www.buddhistculture.co.kr

(재)대한불교진흥원이 불교의 대중화 · 현대화 · 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유익한 잡지



2004년 9 · 10월호 주요 내용

한승원의 문화칼럼 | 광기를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故 무애 서돈각 거사 추모특집
화보 | 사진으로 본 무애 거사 – 왕생극락 하소서
재가불교운동의 기둥이시어, 우리 시대의 유마 거사여
한국불교계에 길이 남을 재가불교의 큰어른이셨던 무애 서돈각 거사의 생전 불교신행 및 업적을 되새겨본다.

특집 | 지금은 수행의 시대 – 수행, 어디까지 왔나
수행의 시대를 맞아 이 시대 올바른 수행의 의미와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수행, 어디까지 왔나
수행 체험기 | 참선, 위빠사나, 염불, 절, 사경
불교수행, 좌선과 명상이 전부는 아니다

수행 |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
수미 런던의 배리에서 온 편지 2 | 미국 불자들의 수행이야기

교리 | 지혜의 샘
생활인의 경전읽기 | 유마경 강설 (5) 출가(出家)의 참다운 의미
지상중계 | 김재성 법사의 경전 강의 –「청정도론」에서 찾아본 재가자의 수행법

문화 속으로
성낙주의 석굴암 건축기행 | 조립식 석굴사원, 석굴암 건축의 핵–판석구조
마음을 맑혀주는 음악여행 | 정신의 자유를 추구하는 뉴 에이지(New Age) 음악
테마 문화산책 | 윤장대 · 원패가 아름다운 사찰(예천 용문사 · 완주 송광사)

자연과 사람
절집의 나무들 5 | 전나무
서양 불교계를 빛내는 불교인
양성평등시대, 여성학적 시선으로 불교를 복원하는 비교종교학자
리타 그로스 교수

* 별책부록
「불교와문화」·「현대불교신문사」 공동 설문조사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격월간 「불교와 문화」 전화 02-719-2606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장애인 100여명 '우리는선우'와 놀이공원 나들이



나들이에 참석한 장애인과 도우미들이 합장을 하며 마음을 모으고 있다.



도우미가 장애인에게 정성스럽게 밥을 먹여주는 모습.

본지와 함께 진행한 '자비의 등 달기' 수익금으로 마련
동물 보고 마술쇼·사물놀이·컵등 만들기 '신나는 하루'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푸른 하늘만큼이나 화창한 9월 19일 오전 9시. 목발에 기대거나 휠체어에 의지한 장애인 100여명이 '신나는 하루, 즐거운 추억'을 주제로 열리는 우리는선우(이사장 성태용) '장애우 나들이'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으로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다.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오랜만의 외출에 표정은 밝기만 하다.

이들은 서울지역의 유락사회복지관, 주몽재활원, 강북장애인복지관, 상락원 등의 복지시설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어린이들과 개별적으로 참가한 1급 지체 장애인들이다.

장애인들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는선우 회원, 능인선원 대학·청년부 회원,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학생, 특전사 제1공수부대 장병 등 하루 동안 호흡을 같이 할 도우미와 진행자들이 정문 앞에서 반갑게 맞이한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어색한 분위기는 어느새 사라지고 '2인 1조'의 한 몸이 된다. 주몽재활원에서 온 백나영(20)씨와 능인선원 청년회원 안정훈(29)씨는 "하루만 같이 지내는 '장애우'와 '도우미'가 아니라 앞으로도 마음을 맞추는 '영원한 도반'이 되기로 의기투합했다"고 자랑이다.

간단한 입재식 후 먼저 찾은 곳은 동물원. 경사가 조금 있는 오르막이어서 장애인들에게는 그리 만만치 않은 길이다. 특전사 김정만(22) 일병에게 몸을 기댄 채 걸음을 옮기던 왕성천(48)씨는 '아들뻘'인 도우미가 든든하기만 하다. 왕씨는 "내가 몸집이 커서인지 건장한 김 일병이 자원해서 나의 도우미가 됐다"며 흐뭇해했다.

동물원 내 공연장에서는 물개와 침팬지 쇼가 이어졌다. 광열(14)이는 태권도 시범 공연을 한 침팬지의 모습을 보고 "나보다 훨씬 못 한다"며 한 판 붙어보자는 표정이다. 도우미 김윤석(25)씨가 광열이를 말리느라 적지 않게 애를 먹었다.

김밥과 빵, 과일로 맛있는 점심을 먹은 뒤 계속된 마술 쇼를 본 은재(8)는 "마술사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마술 쇼가 끝나자 "가지 말라"고 마술사들에게 매달리는 바람에 장내가 웃음바다가 돼기도. 은재의 도우미 김시현(22)씨는 "은재는 팔을 쓰는 것이 불편하지만 성격은 상당히 쾌활하다"며 "앞으로도 든든한 형이 돼 주겠다"고 다짐했다.

마술쇼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빙고놀이 △사물놀이 체험 △페이스 페인팅(face painting) △즉석사진 찍기 △컵등 만들기 등을 하며 가을을 만끽했다.

스님으로는 유일하게 이날 행사에 참가한 탄경(능인선원 대학·청년부 지도법사)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라고 말했다.

우리는선우 성태용 이사장은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다고 마음까지 불편한 것은 아니다"며 "장애인들과 신나는 하루를 보내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자타불이'의 마음을 실천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간 하루가 아쉬웠지만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는선우와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가 서울 장충단 공원에서 함께 진행한 '자비의 등 달기' 행사의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현대불교신문 · buddhanews.com

▌나눔의 성금

오병진 윤남주 유병훈 성득경 이강석 김영미님 – 36만6050원

총 누계 23,146,730원

▌알립니다

현재 '나눔의 저금통' 1차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입금한 뒤, 곧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십시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조계종, 동남아 불자 법당 마련 나섰다

미얀마선원 돕기 계좌개설 동참 활발

조계종단 차원에서 동남아 불자들의 신행공간인 법당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본지 491호(9월 15일) 487호(8월18일)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 미얀마선원 산디마 스님의 가슴 아픈 사연이 소개 된 후 9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은 종단차원에서 미얀마선원 돕기 모금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사회부장 지원 스님은 "일단 미얀마 선원으로 개원한 뒤 산디마 스님을 비롯해 어느 나라 스님이 오더라도 동남아시아 불자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종단차원에서 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사회부에서 적극 나서 모금운동을 벌인 뒤 총무원장 스님이 미얀마 선원에 기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디마 스님은 "조계종단 명의로 법당을 마련해 준다면 태국 스님도 모시고 해서 미얀마 뿐 아니라 태국, 베트남 등 한국에 들어온 동남아 전체 노동자들의 정신적인 귀의처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조계사(주지 원담)와 조계종 총무원 직원 모임인 원우회(회장 윤승환)도 10월 24일 조계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음악회를 열고, 기금을 모을 예정이다.

문의) 조계종 외국인상담지원센터 02) 2011-1965, 후원계좌: 국민은행 023501-04-004943 (재)불교중앙교원

김원우 기자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혼성합창단

장애인 음악제 연다

10월 2일 김해문화원서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지원장 혜보)의 혼성합창단은 10월 2일 '제5회 장애인을 위한 한마음기원 선법가 음악제'를 연다.

10월 2일 저녁 7시 김해문화원에서 열리는 음악회는 부처님 말씀을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도리를 노래 가사로 일깨워온 선법가 보급과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이끌어내는 무대. 특히 이번 무대는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합창단 창단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여서 더욱 뜻깊다.

55명의 보살과 거사들로 구성된 혼성합창단이 선보이는 선법가 '삼세가 둘아닌 노래' '스스로 갖추었네'와 어린이 합창 '어린이 정진가' '마음의 보배' 등이 무대에 올려진다. 이 밖에도 유치부의 율동, 학생회의 사물놀이, 스님과 청년, 학생회가 함께 어우러진 수화 공연 '누가 하는가요?', 대금연주 등이 가을밤을 수놓을 예정이다.

혜보스님은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절로 생기게 된다"며 "선법가를 통해 마음의 도리를 일깨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널리 전하고자 음악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 **어떻게 참여하나**
-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구좌 1만원입니다.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온라인구좌/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좋은벗 풍경소리 (02)723-9836**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오.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연꽃씨앗으로 만든 연실 핸드폰줄.

'붓다' 주니 '붙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수험생 불교문화상품으로 "불안 떨쳐요"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인생의 관문' 앞에서 수험생들의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로또에서 나지 않던 대박이 그날 터질 것 같다가도, 일생일대의 실수가 그날 벌어지면 어쩔까 하는 마음에 좌불안석이다. '일체유심조' 를 되뇌이지만 그 한마음 먹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 법. 백일기도를 하루 거른 엄마가 갑자기 원망스러워지고, 생전 관심없던 붉디붉은 부적에도 시선이 머문다. 이 마음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의지가 되는 불교문화상품들이 많이 나와있다. 입시를 앞둔 아들 딸이나 손자 · 조카, 친구들을 위한 선물로도 좋은 상품들을 소개한다.

부처님 형상 캐릭터화 소원성취 · 합격발원

▽**소원성취 카드 · 메달 등**= 붓다순금카드는 '붙다' 와 소리음이 같은 '붓다' 라는 명칭으로 합격에의 발원을 녹인 카드다. 순금(99.9%)을 곱게 펴서 만들어 전자파를 차단하는 금의 이점을 살렸다. '잡귀를 물리치고 행운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몸에 지니고 다니면 좋다' 고 민간에 알려진 금의 특성도 십분 활용했다. 또한 부처님 형상은 머리를 맑게 해주는 녹색으로 새겨 몸과 마음이 산란할 때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화의 효과를 줄 수 있다. 핸드폰 줄과 열쇠고리 상품도 함께 출시됐다. 불자순금카드 1만 5천원, 핸드폰줄 3천원, 열쇠고리 5천원, 세트=1만 9천원.

조폐공사에서 제작한 갓바위 소원성취 메달은 '정성을 다해 빌면 한 가지 소원은 성취된다' 고 알려진 갓바위 부처님의 형상을 은(순도 99.9% 이상)으로 제조한 메달이다. 4만 9천 5백원.



경전문구 · 연꽃 응용 선물용으로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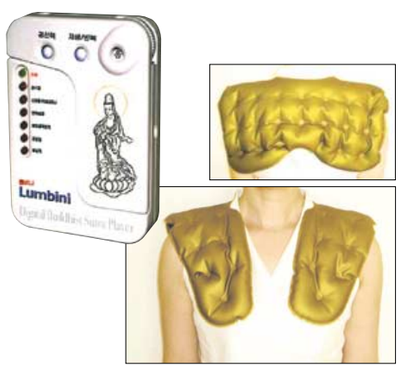


▽**반야심경 반지 · 펜던트**= '반야심경' 의 지혜와 가까워질 수 있는 불교문화 상품이 다양하게 나와 수험생들을 비롯한 불자들에게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반야심경 반지는 반야심경 270자를 고스란히 새겨 넣은 반지다. 경구를 내부에 새긴 반지, 외부에 새긴 반지 등 종류는 두 가지. 외부각인 은반지=3만 8천 5백원, 내부각인 14K=15만원. 반야심경 펜던트도 있다. 앞면에는 경전을 새기고 뒷면은 '옴' 자를 응용한 연꽃무늬를 형상화했다. 타원형 · 직사각형 형태가 있으며 재질은 주문시 요구에 따라 금과 은 모두 가능하다. 14K= 2만 6천원, 18K= 3만 8천원

염주알 돌리면 마음 편안해져



▽**연실 합장주** = 수험생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을 부담없는 가격에 담을 수 있어 합장주는 선물용으로 인기다. 연실 합장주는 연꽃씨앗을 이어 엮은 것으로, 중앙의 염주알에는 핸드 페인팅 전문가들이 청정한 연꽃 그림까지 직접 그려 넣었다. 염주알이 손상됐을 경우 부분을 잘라내 핸드폰 줄에 연결시킬 수도 있고, 연꽃 씨앗을 분리해 물에 담가두면 연꽃 싹이 발아하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다. 6천원.



집중력 향상시키고 지친 심신에 도움

▽**명상을 돕는 제품들** = 수험생들의 불안을 다스리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명상' 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명상의 효과를 상승시키는 여러 제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 집중력 향상을 이끄는 기능성 명상 음반을 비롯해 향기로서 심신의 평안을 유도하는 각종 천연 아로마향과 합장초(1만7천원) 등 상품은 다양하다. 명상시 불경에 집중함으로써 들뜬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하는 휴대용 오디오 불경, '디지털 불경 룸비니(3만 8천원)' 또한 히트상품이다. 이와 함께 원적외선과 음이온 발생율이 월등한 희담석 방석(17만 9천 2백원) · 찜질팩(어깨찜질팩 6만 6천원, 허리팩 4만 4천원) 등은 수험생들의 건강을 위한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 쇼핑몰 마하몰=(02)732-1520, www.mahamall.co.kr 강신재 기자

"가르침대로 생활할 뿐이죠"

우리 가족 이렇게 신행해요 <17>

강남포교원 신도회장 여래광 보살네

서울 강남포교원(주지 성열)에 들어서면 역대 모범불자가정의 사진이 걸려 있다. 그 중에서도 삼대에 걸친 식구들이 모여 환하게 웃고 있는 신도회장 마화자(64 · 여래광) 보살네 가족사진은 단연 눈에 띈다.

"원래는 불교에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고 젊은 시절을 회고한 마 보살은 84년 지인의 소개로 강남포교원에 왔다가 <금강경>의 한 구절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란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다. 현식(68 · 석우) 거사의 말이다.

'경전공부' 와 '보시행' 은 아들 내외에게도 이어졌다. 당시 대학교 2학년이던 큰 아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법당 페인트칠을 손수 도맡아하는 등 청년회 활동을 열성적으로 하더니 결혼식 때도 성열 스님을 주례로 모셨다. 곧 무종교인이었던 아내도 수계를 하고 불자가 되었다. 아들내외는 아이가 태어나자 백 일째 아이 법명을 받기 위해 사찰에 들렀다. 이제는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여래광 보살 가족 3대가 강남포교원 법당에 모였다.

3대 모두 일요일 마다 경전공부 10년째
무주상보시 펼치며 온 가족 포교에 앞장

"나도 과연 그렇게 베풀 수 있을까"란 생각이 발심의 계기가 된 것이다. 마 보살이 택한 것은 법보시였다. 신행활동을 하지 않던 남편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꾸준히 전하며 "함께 경전공부 하러 가자"고 사찰로 이끌었다.

기초교리부터 시작해 <반야심경> <유마경> <달마어록> <선생경> <금강경>등을 부부가 함께 배우기를 10년여, 이제 마 보살네 가족에게 일요일은 경전공부 하는 날이다. 최근에는 <육조단경>공부를 시작했다.

"경전을 읽을수록 더욱 확실하게 갖게 되는 생각은 '마음자리가 본래 청정하다' 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복을 빌거나 해탈을 하겠다고 집착하기보단, 평상심을 갖고 부처님 말씀 따라 열심히 생활하자고 생각하게 된거죠." 남편 김발심하여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손자들은 아직 어린데도 어딜 가나 공양게를 외우고 학교 친구들에게 합장주를 나눠주는 등 벌써부터 '포교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가족과 이웃들을 부처님 품안으로 끌어들인 비결을 묻자 마 보살은 "일단 함께 경전공부를 하자고 권하면 공부하다가 불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담담하게 말한다. 하지만 매 순간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는 마 보살네 가족을 보며 발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주위의 평.

집안에서는 비교적 새내기 불자라 할 수 있는 며느리 손정(36) 씨는 이것을 "습이 드는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그야말로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불자가족 다운 면모였다. 이은비 기자

김재덕 역학교육원
역학, 음양오행, 인성컨설팅 강사
주간지 Goodday 365 "미용역학 상담의 인연법 사주에어" 고정연재중
월간뷰티패션 "역학풀이" 연재중
실력있는 역학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모집과정 : 수시모집
강 의 : 주 1회(화요일)
사주통변이 부족하신 분, 책을 보고 독학하신 분
사주통변이 자신 없는 분
사주통변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관상학 (특강 월 2회 화요일)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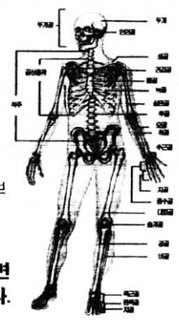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토르말린, 수정석, 맥반석 등의 천연광물이 뿜어내는 그 시원하고 후끈후끈한 열기, 이것이 바로 이열치열!"
원적외선
불가마
형식승인번호(안전인증번호) : HU07305-2001A
5분 충전! ▶▶
3시간 연속찜질!

추석효도선물 목초수액시트 30매 증정 특별가 13만원
● 불과 5분 충전으로 3시간동안 연속찜질 OK!
● 전원차단으로 무선찜질, 유해전자파 걱정 NO!
●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 수 있는 편리성 YES!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성도 그만!
◎ 제품의 특성
• 최신 특수공법에 의한 견고한 제품
• 수많은 실험으로 안전성, 기능성 확보
• 인체공학적 설계로 몸의 어느부위에도 밀착성 우수
• 내부 발열온도 135℃, 표면온도 60~70℃
• 원적외선과 음이온 다량발생 (원적외선 방사율 약 90% 음이온 182/cc)
◎ 주요 용도
• 노약자 보온용 및 무릎, 어깨, 관절 찜질
• 여성의 아랫배, 손발을 따뜻하게
• 학생이나 직장인의 목, 어깨 찜질 또는 베개대용
• 아픈곳이나 다친 곳의 찜질
• 낚시, 등산, 야영, 야외 작업시 보온용
• 춥고 습기찬 곳에서의 보온용
■ 자매품 : 청즙(3g 30포) 45,000원, 크로렐라 (200ml 1600정) 75,000원
www.bb21.com 상담실 : 02)969-8080

당하茶당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아는만큼 치료할 수 있다"(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복용 15~20일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신후비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빠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굿모닝 신한증권 직지사 템플스테이

"지난 5월에 실시했던 1차 직지사 템플스테이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98점 나왔거든요. 사내에 직지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해보라는 입소문이 쫘악 퍼졌습니다."

회사 연수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굿모닝 신한증권 인사부 최진호 과장은 가톨릭 신자이지만 이번 2차 템플스테이에는 참가자로 한 몫 끼었다.

굿모닝 신한증권 전국지점 영업사원 31명을 대상으로 직지사에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 만덕전에서 진행된 2차 템플스테이의 참가자들 직위는 주임부터 부장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직지사에 들어오는 순간 밖에서 가지고 온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다. 대신 황토색의 우리 옷 수련복과 하얀 고무신이 주어졌다. 영업사원들에게 꼭 필요한 수첩과 휴대폰, 그리고 담배도 모두 압수다.





굿모닝 신한증권 전국지점 영업사원 31명은 9월 16~18일 김천 직지사에서 템플스테이를 경험했다. 사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신한증권 사원들.

비움으로써 행복함을 알았다.

굿모닝, 굿 템플스테이

 # 첫날-짜증…짜증…헛구역질

16일 오후 3시 입재식을 시작으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사찰에서의 기본예절과 발우공양 예법을 익혔다. 첫날은 산사에서 처음 맞는 저녁 발우공양. 마지막 김치 한 조각으로 그릇을 씻어 그 물을 깨끗이 마셔야 한다.

"설거지물을 마시라고?"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기저기서 헛구역질까지 한다. 이제 겨우 시작인데 3일간 지낼 일이 난감한 눈치다.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회사 연수프로그램이라 어쩔 수 없이 참가했는데, 3일이나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답답합니다. 게다가 담배까지 뺏겼어요." 김진성(30 · 전주) 대리의 인상이 그다지 편치 않다.

"회사에서 나눠준 연수 계획서엔 '자기고찰'이라고만 써 있었다고요. 3일간 산에서 노는 줄 알았는데 정말 짜증나네요." 육근수(40 · 구미)차장은 절에 몇 번씩 가본 불자라고 한다. 그렇지만 불교 용어도 어렵고, 교육은 더더욱 싫다고 했다.

 # 다음날 오전-차츰 편안해진다

둘째날인 17일 새벽3시 도량을 도는 스님의 목탁소리가 산사의 새벽을 밝혔다. 하룻밤 사이 참가자들은 산사 생활에 제법 익숙해진 모습이다. 잠이 덜 깨 몽롱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도 보이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새벽예불에 참석했다. 예불이 끝나고 만덕전에서 참선에 대한 이론 강의와 실참이 있었다.

교무국장 무심 스님은 비움으로써 오는 행복, 자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오는 행복에 대해 법문했다. 템플스테이 사무과장 정관 스님도 "차가 바퀴를 달고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멈추는 것"이라며 "바쁜 생활을 멈추고 균형을 찾을 것"을 강조했다.

이번 참가자 31명은 경쟁사회에서 목표를 세워두고 성취하며 인정받으려 애쓰며 살아온 직장인들이 대부분. 손전호(56 · 여의도) 부장은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발전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스님의 말이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채우며 살아온 이들에게 비우라는 스님의 법문이 새로운 화두가 됐다.

아침 도량 울력 시간. 만덕전 양쪽으로 나 있는 도량마당을 쓸며 내려갔다. 사실 새벽예불시간과 참선이론 시간은 아픈 병아리마냥 꼬박 꼬박 졸기도 했는데 도량마당을 쓰는 동안 어느새 온 몸에 힘과 활력이 샘솟았다.

"우와! 새벽공기 정말 상쾌하죠?"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전현진(31 · 수내역지점) 대리는 낙엽을 나무 밑에 깔아주면서 말했다.

"매일 컴퓨터 모니터 3대 켜놓고 보다가 이곳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휴대폰도 없잖아요. 오늘은 집 생각도 아예 안 나네요."

전 대리의 감탄은 고무신 예찬으로 이어진다. "참! 고무신이 이렇게 편한지 처음 알았어요. 발이 바닥에 딱 붙는 느낌이에요."

도량 울력이 끝나고 샘터에서 마시는 물맛은 꿀맛.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는데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다.

 # 느낌이 왔다… '그래! 이런 거였구나'

같은 날 오후, 무심 스님으로부터 금강태극권을 배우고 108배를 했다.

정관 스님은 비불자들의 거부감이 없도록 108배의 뜻과 의미를 상세히 설명했다. "절을 하는 것은 겸손과 하심을 의미하며, 회사나 가족과의 생활에서도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스님의 이런 설명에도 열외로 빠진 한명의 사원이 눈에 띄었다. 김진성(30 · 전주) 대리. 기독교인이다. 새벽예불시간에도 절을 하지 않은 채 뒤에 서 있었다. 김 대리는 "종교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다"며 미안해했다.







저녁 다도시간, 모든 참가자들이 황홀지경에 빠졌다. 직지사 다도회 향경다례원 회원들과 강사 지혜심 보살이 정성껏 마련한 자리였다. 오룡차와 보이차, 녹차, 오미자차, 솔차를 분위기에 맞게 사방으로 차려 놓고, 손수 만든 다식과 떡을 나뭇잎 받침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으니 그 멋과 맛이 하늘을 찔렀다. 돌아가며 차 맛을 음미하고 무심 · 정관 스님과 못다한 다담도 나눴다.

"비가 올 때 고무신 신어봤어요? 신 따로 발 따로지요. 고무신이 바위에 쳐 달라붙으면 발만 쑥 빠져나오지요. 하하하." 막막했던 첫날과는 달리 이제 모두의 얼굴에 편안함과 미소가 가득하다.

힘들어하던 김진성 대리도 적응하지 못했던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으며 어느새 분위기를 리드하고 있었다. "나만 빼고는 전부 '바른생활 맨'인가봐요. 밤에 술 마실 사람도 없고, 나만 어젯밤 배회하고 다녔다니까요. 집에서 화투 두 모, 포커 두 벌도 몰래 챙겨왔는데…."

"화투 2모, 포커 2벌!!!" 김 대리의 말에 모두 폭소를 터뜨리며 데굴데굴 굴렀다.

박경신(40 · 정자동) 주임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팍팍하게 살아온 자신을 돌아볼 좋은 기회였음"을 인정했다. 또 음식의 귀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설거지물까지 마실 정도인데,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박 주임은 "2박3일간 여자 사원들끼리도 일체 수다를 떨지 않았다"며 신기해 했다. 묵언하라는 지침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줄면서 자연히 자신과의 대화시간이 늘었고, 그러면서 어느새 자신을 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됐다.

박 주임은 "아이들과 함께 해외로 어디로 밖으로만 다녔는데, 이젠 아이들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겠다"고 덧붙였다.

템플스테이 시작때는 짜증스러워 했던 육근수 차장은 "절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바꿀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스님들이 풀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란 것도 알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담배 생각이 안 나는 게 참 좋았습니다."

조상철(42 · 부산 금정) 대리는 "당연한 존재로 여겼던 주위의 고객과 직원들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일어났다"고 털어놓았다.

직지사=배지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템플스테이, 기업들 연수로 각광

굿모닝 신한증권 사원들의 템플스테이는 기업이 직원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으로 템플스테이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불교문화 체험으로 활용돼 오던 템플스테이가 최근 삼성SDI, 현대자동차 등 국내 유수기업들의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8,9,10월 세 차례 직지사 템플스테이 연수를 진행한데 이어, LG투자신탁, 프리마호텔, 엔코 코리아 등도 내소사, 구룡사, 마곡사 등에서 하반기 기업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10월 20일 출발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순례)
₩650,000원 (중국비자비, 가이드 기사팁 불포함) 10월 10일 마감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일자 | 주요일정
20일 | 09:35 항공편으로 인천출발 / 북경도착 북경 최대 사찰 담저사 순례 야간 열차로 낙양으로 이동
21일 | 소림사, 탑림, 백마사, 용문석굴 순례
22일 | 항공편으로 북경 이동 천안문, 자금성 및 왕부정 거리 관광
23일 | 만리장성 관광, 옹화궁(라마교사원), 와불사
24일 | 천진으로 이동 진천페리 승선 / 출발
25일 | 인천 도착 해산
호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 (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와불사, 담저사, 옹화궁)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20,000원
3. 천진, 북경, 오대산 7일 (운강석굴, 화엄사, 현통사) ₩620,000원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팁 불포함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 85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 85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 80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일 ····· 80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 179만원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1>



내게 찾아온 행운

베살리 도시에 암라팔리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신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만 자신의 미모를 팔아서 큰 돈을 번 여인이라는 점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자신의 소유인 암라팔리 동산에 부처님이 5백 명의 비구들과 함께 머물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게 차려입고 수레를 타고서 부처님을 뵈러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가르침을 받은 뒤에 다음 날 자신의 집으로 부처님과 5백 명의 비구승을 초청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침묵으로 초대를 받아들이자 그녀는 기쁨에 들떠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도중에 그녀는 그 도시의 이름 있는 집안의 청년들 5백 명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부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려고 동산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은 부처님 계신 동산 쪽에서 여자가 급히 수레를 몰고 나오는 것을 보자 좀 언짢아졌습니다. 그녀가 암라팔리인 것을 알아채고서 위엄 있게 짐짓 물었습니다.

"그대는 여자라면 수줍게 지내야 할 것인데 어찌 거칠게 수레를 몰며 성 안으로 달려가는가?"

암라팔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일 부처님과 비구스님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양 준비를 하려고 서둘러 성 안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청년들은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들 도시에 온 부처님을 가장 먼저 초대할 영광을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암라팔리에게 말했습니다.

"순금 천 냥을 주겠다. 내일의 공양을 우리에게 양보해라."

"싫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돈의 액수를 점점 올렸습니다. 급기야 백천냥의 금화를 주겠다고까지 약속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암라팔리는 완강하였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존께서는 언제나 '세상 사람은 두 가지 희망을 버리지 못한다. 그 두 가지란 재물에 대한 희망과 목숨에 대한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목숨을 내일까지 보장하겠습니까? 누가 나의 재산이 영원하리라고 약속해주겠습니까? 만약 당신들 중에 그것을 보장할 사람이 있다면 내일의 초청을 양보하겠습니다."

500 명이나 되는 청년들 가운데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내일 일을 어찌 보장하겠습니까? 암라팔리는 청년들에게 그 한마디를 던진 뒤에 공양 준비를 하기 위해 서둘러 돌아갔습니다.(<증일아함경> 제10권 19.권청품)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참으로 다양한 기회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인생의 굽이굽이를 돌 때마다 훈장도 주고 상처도 주면서 우리를 키워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기회가 닥쳤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조차 모른 채 그냥 흘려버리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신자라면 적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행운을 다른 이에게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고들

대장경의 바다엔 싱싱한 부처님 말씀 펄떡펄떡 있는 힘껏 낚아올려 독자들의 품에 안겨드릴터

말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부처님을 만나는 일이고 법을 듣는 일일 것입니다. 선업을 쌓고 복을 지어서 돌아오는 과보라면 함께 나누고 양보해야겠지요. 하지만 내 어리석음의 눈꺼풀을 들어올리는 기회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여러분들과 만나 부처님 말씀을 나누게 된 이 기회가 지금 저에게는 참으로 크나큰 행운입니다. 글을 써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예전에 흘려보냈던 부처님 말씀을 곱씹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에게 찾아온 이 행운을 축하하고 격려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대장경의 바다에는 지금 황금 비늘 반짝이는 싱싱한 부처님 말씀이 힘차게 노닐고 있습니다. 저는 힘껏 낚아올려 여러분의 품에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이미령' 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하여 석사과정을 마친 뒤 줄곧 경전 및 불교서적을 번역하고 있다. 지금은 동국역경원 역경위원으로서 대장경의 한글번역과 불자들을 위한 강의와 집필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기도수행을 통해 덕을 쌓으라고 강조하는 지족 스님. 언제나 말보다 행으로써 가르침을 내려준다.

집착하지 말고 다 버려라

지상 백고좌

지족 스님

(태고종 원로의원)

나라 안팎으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쟁으로 민생에 뒷전이고 나라의 경기는 갈수록 악화돼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며, 사회는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니예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문화가 물밀 듯이 밀려들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세계는 전쟁과 테러로 수많은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보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사람 사는 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때보다 종교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참보시는 相 내지 않아

그러나 우리 불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어야 하건만 불교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 이유는 수행자의 무소유 정신이 흐려지고 자비사상은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불교는 지금 수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행하는 데 승과 속을 구별할 것도 없고, 장소에 구애받을 것도 없습니다. 스님도, 불자도 수행하지 않으면 불교가 바른 법을 펴 나가지 못합니다. 수행이야말로 불교의 힘을 키우는 일이예요.

제가 처음으로 주지 소임을 맡아 문경의 혜국사라는 절에서 살림할 때 은사 화엄 스님과의 일화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절에 먹을 것이 없어서 탁발로 끼니를 때울 때였죠. 은사 스님이 우리 절 근처 절터에 법당을 지어야겠다며 불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혜국사 살림도 빠듯한 마당에 그게 어디 가당한 일이었겠습니까.

아무리 은사 스님의 말이라도 따를 수가 없어서 구미 도리사 선방에 들어가버렸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즈음 사제가 찾아와 절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혜국사로 돌아가 은사 스님에게 참회의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은사 스님이 "돌아서면 잊어버려야지, 그걸 아직도 몸에 걸머지고 다녔느냐"면서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출가의 발심을 떠올릴 수 있었죠.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일을 수행의 채찍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닥치는 일마다 집착하지 말고 다 버리라는 겁니다. 모든 번뇌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탐진치 삼

과거청산? 그것도 집착이지

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집착이 생기고, 이 집착은 번뇌를 낳습니다. 그러니 사는게 괴롭죠. 뭐든 놓아버려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참 보시는 상(相)을 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상을 냈을 때

조계종출판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불교의 최고봉인 화엄, 그 화엄의 정수를 담은
화엄경현담이 새롭게 재출간되었습니다

- 불교를 공부하는 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화엄의 세계, 그 완벽한 모습이 알기 쉽게 출간되었습니다.
- 국한문을 병기하여 한글과 한문으로 동시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화엄경현담 주해집도 첨부되어 화엄은 물론 불교가 폭넓게 설명되었습니다.
- 4×6배판 양장제본 케이스

한글 화엄경현담의 결정판!



팔만대장경 중 최고봉의 경전으로서 대승불교의 정점을 이루는 화엄경은 장엄한 보살도의 실천과 사사무애(事事無碍) 법계연기(法界緣起)는 상생(相生)의 도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생생하고 이보다 더 치밀하게 연기의 도리를 설한 철학과 사상은 아직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화엄경현담은 이러한 세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깊고 미묘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화엄경현담은 불교 전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따라서 예로부터 전통강원의 중심교재로 활용되어 왔으나 한문으로 독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재출간된 화엄경현담은 국한문을 병기하여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 누구라도 화엄의 현묘한 도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 의 | 조계종출판사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화 (02)2011-1880~1 팩스 (02)720-6019

구 입 | 각권 35,000원 / 전4권 140,000원
신청 즉시 택배로 운송해 드립니다.
송금계좌번호 | 농협 053-01-254866 (재)대한불교조계종
국민은행 765-01-0017-288 (재)대한불교조계종

인연 도서출판 아름다운

는 이미 집착이라는 놈이 번뇌를 일으킨 것이예요. 놓아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수행입니다.

요즘 과거청산이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집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때를 놓친 일입니다. 지금 과거를 정리한다면 새로운 원한을 만들 뿐입니다. 원한은 또다른 원한을 낳는다는 평범한 이치를 상기해야 합니다. 지금은 과거에 얽매일 때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수행 찾아야

군위 압곡사라는 절에서 8년동안 관음기도를 지심으로 했습니다. 기도의 힘은 대단하더군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제 수행을 점검하기 위해 어느 노스님을 찾아갔는데, "다 망상이야. 당장 버려" 하시며 귀싸대기를 때리는 겁니다.

그 길로 다 버리고 선방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무(無)'자 화두를 들게 되었어요. 지금은 지장기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사상은 원융이타(圓融利他) 정신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지장보살의 정신이예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제도하겠다는 큰 원을 세운 지장보살이 많이 나와야 해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좋은 밭을 골라서 좋은 씨앗을 뿌리고 김을 매주어야 가을에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남이 다해놓은 것을 수확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않는 삶에는 극락도 없고 천당도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덕이 쌓입니다. 덕을 쌓아나감으로써 마음이 순화되어 집착을 버릴 수 있게 되거든요. 지장기도를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참나를 찾아야 해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나라는 것도 없애야 진정한 공부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죽는 순간까지 집착을 놓지 못하거든요. 죽는 순간 자식, 부인, 재산에 집착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수행을 하다보면 자신에게 맞는 수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선이 맞는 사람은 참선을 해야 하고, 염불이 맞는 사람은 염불을 택해야지요. 근기는 염불에 가까운데 참선이 수승하다고 하여 참선만 한다면 진척이 없을 수 밖에요. 이것 또한 번뇌를 끌고 다니는 꼴과 무엇이 다르다 하겠습니까. 자신에게 맞는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선이 맞을 것이고, 어떤 이는 염불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둘다 하는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족 스님은 "입을 열는 순간 다 거짓말"이라며 법문을 아끼면서도, 찾아오는 후학과 불자들에게는 평생 공부를 아낌없이 내어준다.

잘 먹고 잘 사는게 불교다

부처님 가르침을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길을 일러달라고 합니다.

남을 속이지 말고 착하게 사세요. 부처님 가르침이 따로 있는게 아니예요. 부처님이 깨우친 도리는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입니다. 물은 항상 물로 있고, 나무는 항상 나무로 있는 것, 그것이 불교입니다.

즐가하기 전 제가 화엄 스님에게 "불교가 무엇입니까?"하고 여쭈었습니다. "밥 잘 먹고 똥 잘 싸는게 불교다"하시는 화엄 스님의 말씀을 듣고 즐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8만4천 경전에 있는 가르침은 모두 부처되는 방편입니다. 큰스님들을 찾아뵈면 하시는 말씀은 한결 같습니다. 다 하심(下心)하라고 합니다. 사람 노릇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한국불교를 보면 계(戒)를 훨저하게 지키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계는 불교에서 법(法)이예요. 우리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참됨을 지키면 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지만, 내가 미혹하기 때문에 계가 있는 것입니다. 계를 지키면 부처 됩니다.

지계에 승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예요. '안 지켜도 괜찮겠지. 누가 벌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할 마구니입니다. 불교가 실천하는 가르침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지금 바로 실천을 하세요.

정리=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지족 스님은?

새벽 1시30분 일어나 3시간 참선→예불→독경



1980년 서울의 동쪽 끝 길동에 지장기도도량 대흥사를 일궈 강동의 터줏대감으로 통하는 지족(知足) 스님. "입을 여는 순간 다 거짓말이 된다"면서 법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족 스님은 "큰스님으로 일컬어지는 많은 스님들이 조사 스님들의 어록을 되뇌일 뿐 자신의 법문을 할 줄 모른다"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진정한 등불이 되어줄 큰스님이 많이 나와야 한국불교가 발전할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스님은 찾아오는 후학과 불자들에게는 평생 공부를 아낌없이 내어준다.

매일 새벽 1시 30분 일어나 3시간동안 화두참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스님은 4시 30분 새벽예불을 올리고 <천수경> <지장경> <금강경> 독송도 빠뜨리지 않는다. 8년째 아침공양을 하지 않은채 인근 공원길을 산책한 다음 불자들을 맞고 있다.

36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스님은 54년 상주 남장사에서 화엄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남장사와 범어사 강원을 거쳐 58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문경 혜국사, 구미 도리사, 포항 보경사, 울산 내원암 등 선원에서 수선안거를 성만했다. 72년부터 8년동안 서울 광명사에 주석하다가 80년 지금의 대흥사를 창건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스님의 법호는 청산(靑山). 은사 화엄 스님이 내려주었다.



법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혜공 스님 (下)

요즘엔 의술이 발달해 수술을 통해 치료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당시는 암에 걸렸다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천형으로 알고 있던 시절이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스님은 주위의 수술 권유를 물리치고 절에서 기도하겠다고 했다.

스님은 바로 순천 선암사로 향했다. 주지 용곡 스님의 허락을 얻은 그날부터 기도에 들어갔다. 가자마자 비와 깨끗한 걸레를 여러 개 준비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자 애쓰는 슈리판타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없이 믿고 따른 것처럼 구석구석 닦고 또 닦았다. 법당을 닦고 나면 간절한 마음으로 <관음경>을 읽은 뒤에 관세음보살을 목이 터져라 부르면서 참회정진을 했다.

처음에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열심히 절을 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마루 바닥에 엎드린 채로 고개만 올렸다 내리는 절을 하였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기도의 공덕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하였으나 이 일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물러나지 않고 정진했다.



그림 · 문병성

그러나 그것도 보름이 지나면서 아주 허망하게 느껴졌다. 만일 이 기도가 성취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생각이 미치자 엎드렸던 몸이 다시 일어나지지를 않았다. 그대로 엎드려 있는데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다.

한참을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그렇게 미워하며 죽이고 싶었던 어떤 사람이 생각났다. 은사스님과 자기를 절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 찾아와서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몽둥이질까지 하였는데 자신과 부딪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연세가 드신 은사스님마저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옆에 칼이 있었으면 어떻게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떠올랐는데 그에게 찾아가 용서하고 미워한 마음을 사죄하고 싶어졌다. 이리저리 그가 살고 있을 곳들을 마음속으로 찾아내어 만나서는 무릎꿇고 빌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오히려 계면쩍어 하면서 자기들이 한 일이 본의는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려고 했다.

그렇게 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나니 다시 기도하는데 기운이 났다. 새벽, 사시, 오후, 저녁의 사분 정진 뿐 아니라 잠자고 예불하며 공양하는 시간만 빼 놓고는 쉬는 시간 없이 정진했다. 삼칠일 기도를 마치기 전날 밤 사분정진의 마지막 기도를 하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신기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공양시간이 되어 대웅전 왼쪽 옆에 있는 설선당으로 들어가 앉았다.

수십명 대중들이 청산, 백운으로 나뉘어 방안에 빙 둘러 앉아 공양을 하는데 갑자기 어간문이 열리더니 큰 사람이 들어왔다. 다들 놀라서 쳐다보는데 자신은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가 혜공 스님에게로 가서 큰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진작 찾아뵈었어야 하는데 이제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품속에서 무슨 서류봉투를 꺼내서 주었다. <관음경>에 관세음보살이 중생교화를 위해 32응신을 나투실 때 국왕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정말 그런 모양이었다.

다음 날 가뿐한 마음으로 기도회향을 한 뒤 대

암진단받고 삼칠일 기도 미운사람 용서하고 치유

구로 가서 경북대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주치의가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씻은 듯이 완전하게 다 나아서 암이 흔적도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관암사는 '갓바위절' 이라는 뜻으로 갓바위 부처님을 발견한 백암 스님이 창건한 사찰이다. 혜공 스님이 숙세의 인연의 끈을 찾아 출가해서 백암스님의 은법을 이어 관암사를 대구의 전법사찰로 잘 지켜가고 있다. 관암사에서 득도 수계한 이후, 6년간의 고행을 겪으신 후 중도수행을 하신 부처님의 체험을 몸으로 직접 익히고 싶어서 범어사 1년, 그리고 경봉스님이 주석하셨던 통도사에서의 1년이 넘는 행자 생활이 중으로서 가장 보람있게 지내던 시절이라며 수행자의 길을 가는 후학들에게 힘들게 느껴지는 행자시절을 잘 참고 견디라며 격려한다.

총무원에서도 여러 형편상 상근을 하지 못하는 까닭에 종무회의에 오면 결재가 밀리기 마련인데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저마다의 급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순서를 바꿔달라고 하면 빙그레 웃으시면서그대로 가는 것이 빠른 것이라며 고속도로의 이야기를 해 주신 적이 있다. 고속도로에서 바쁘다고 추월선으로 또 주행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을 보면 '뭐가 바쁜 일이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비켜주지만 잠시 뒤에 보면 휴게소에서 빈둥거리는 모습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었다. "웬만한 것은 다 양보하는 것이 좋고 정말 바쁘게 할 일은 마음공부인데 말이야" 웃으시는 혜공 스님은 정말 닮고싶은 수행자다.

■ 관악산 자운암 상임법사

"제1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찾아가는 포교, 지역사회로의 회향'을 지향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와 강원일보사는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오대산의 개산일에 즈음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강원도의 대표적 축제'라는 모토로 '제1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를 국민문화 · 수행공간으로 개방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체험 기회로 마련한 제1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오색 가을 단풍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행사를 한껏 향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는 문화관광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평창군, 탄허불교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제2회 산사영화제

문화와 웰빙의 시대에 찾아가는 영화시사회를 통해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적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 2회 산사영화제를 개최합니다.

- 상영영화 : 초승달과 밤배
- 작품소개 : 정채봉선생의 "초승달과 밤배"을 원작으로 궁핍한 삶 속에서 무공해 소년이 그려가는 천진난만하고 따뜻한 이야기로서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본선출품작
- 감 독 : 장길수 출연배우 : 이요섭, 한예린, 장서희 등
- 일 시 : 2004. 10. 8.(금) 19:00 ~ 21:00
- 장 소 : 월정사 적광전 앞
- 주 관 : 월정사

제2회 산사음악회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오대산에서 제 2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 출 연 진 : 벨라트릭스, 첼로사랑, 이정, 영턱스클럽, 정민, 남상우, 김병조
- 일 시 : 2004. 10. 9.(토) 19:00 ~ 20:30
- 장 소 : 월정사 적광전 앞 야외무대
- 주 관 : 월정사

한 · 중 오대산 사진전

한 · 중 불교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문수성지인 오대산의 자연풍광과 사찰들의 일상을 담은 한 · 중 오대산 사진을 천년의 전나무 숲길에서 전시합니다.

- 일 시 : 2004. 10. 8. ~ 11. 30.
- 장 소 : 전나무 숲길 및 용금루 상설전시장
- 주 관 : 월정사 성보박물관

※ 이 외에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의식 및친견, 보살계법회, 헌다례 및 육법공양, 유물로 보는 오대산 문수신앙특별전, 오대산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 오대산 사진 공모전, 국제 불교문화공연, 영산작법 및 학춤 시연, 오대산 등반대회, 지역주민한마당, 강원도 특산물 전시, 장애인돕기 주붕스님 서묵전, 서각전, 티벳탕카전, 서예전, 예술연등전 등의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기 2548. 9.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강원일보사 사장 최 승 익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
TEL 033-332-6664~5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14) 그렇다고 삶을 부정하고, 고행을 해야 할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기 욕구라는 환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당황해 하며 묻습니다. "나는 내가 욕구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환상이라니,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물음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에 대한 '의혹'이 깊이 똬리 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불교를 말하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호르 박물관에 있는 붓다의 고행상

그럼, 지금 불교는 인간의 자연적 생물학적 욕구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누구도 여기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배가 고프면 먹고, 추우면 입어야지, 이것을 거스르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 상식을 믿지 않고(?) 직접 몸으로 테스트해 보려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을 거부하고 부정해야 구원이나 해탈을 기약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극단적 고행을 시도했습니다. 붓다 또한 당대의 유행을 따라 이 길을 걸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간다라미술의 걸작으로 파키스탄의 라호르 박물관에 있는 그 피골이 앙상한 고행상을 말입니다.

붓다는 그러나, 어느 순간 이렇게 육신을 학대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 즉 "초월로, 갈애의 소멸로, 윤회의 멈춤으로, 업의 감소로, 높은 지식으로, 완전한 깨달음으로, 열반에로 이끄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고행을 포기하게 됩니다.

극단적 고행을 하던 시절의 모습을 좀 생생하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음은 폴커 초츠가 <마하시하나다 숫타>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제가 읽기 편하게 정돈한 것입니다.

"붓다는 마가다를 거쳐 여기 저기 방랑하다가 우루벨라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산림이 울창하고 네란자라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에게 두려움이 점점 엷어졌다. 그는 극단적 고행에 몰두했다. 그는 숨을 참는 훈련을 했다. 귀가 울리고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듯한 고통이 왔지만 참았다. (…) 벌거숭이로 다녔고, 씻지 않아 여러 해 동안 때가 켜켜이 쌓였다. 식사는 콩 몇 개를 먹고 버텼다. 소똥도 먹고 자기 똥도 먹었다. (…)나는 목동들이 떠나면 외양간으로 가서 어린 젖먹이 송아지의 배설물을 먹었다. 내 똥 가운데 소화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먹었다. (…)잠은 시체가 가득한 들판에서 뼈다귀들을 주워 자리를 만들어 잤다. 지나가던 목동들이 침을 뱉고, 오줌을 누고, 오물을 던지고, 풀줄기로 귀를 찌르기도 했다." (폴커 초츠, <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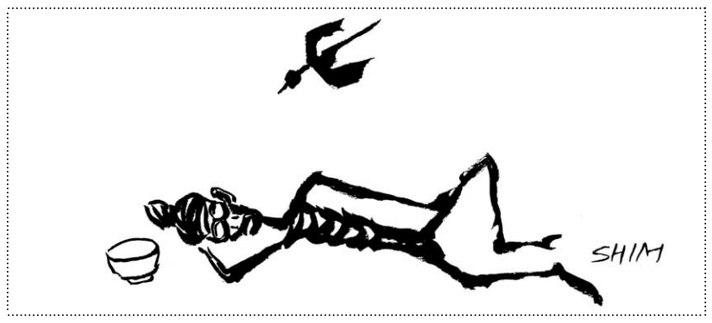
"나는 소똥도 먹고 내 똥도 먹었다."

<마지마 니카야>는 이 시절 붓다의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극히 야위어 갔고, 팔과 다리는 마른 수수깡처럼 되었다. 몸은 쭈글쭈글해졌고, 엉덩이는 낙타 다리처럼 가늘어졌으며, 등뼈의 마디가 드러나 마치 구슬을 꿰어놓은 것처럼 앙상했다. 낡은 집 천장에 댄 나무의 골격이 드러나듯이 갈비뼈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배를 만지면 등뼈가 만져졌고, 등뼈를 만지면 배가 만져졌다. 화장실에 가려 하면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곱고 희던 얼굴은 시커멓게 타버렸다." (브루스터, <고타마 붓다의 생애>).

붓다는 결국 이 극단적 고행을 포기합니다. 그것은 육신을 다만 수고롭게 할 뿐, 진정 이르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한 두 번째 전향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복하고 사치스러운 열락의 세계를 떠난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구원을 위한 육신의 극단적인 학대를 버린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예전 아버지와 함께 농경의식에 갔다가 잠부 그늘 아래서 명상하던 기억을 떠올렸다 합니다. 그때 그 선정은 감각의 불순한 쾌락도 아니고, '오직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니련선하의 어떤 처녀가 주는 우유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생각하고 분별하는 작용이 멈춘 경지'에 도달했고, 더 깊이 주의를 집중하자, '투명하고 밝은 경지'가 드러났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모든 것이 분명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의 붓다

이 깨달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불교의 길은 인간의 생물학적 기본 욕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인간의 생물학적 욕구를 인정한다면, 그럼 불교가 나아가 깨부수려는 그 '넘쳐나는 것'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여기가 미묘합니다. 넘쳐나는 것이란, 생명의 자연적 발현이 아닌 것 모두를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 욕구와 충동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진단에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내게 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깨달음이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낡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 깨달음이란 무엇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숨겨져 있던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오염된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 그런데 내 이제 그 실상을 투명하게 알겠다!"는 발견이 곧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이 "깨달음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삼스런 각성, 그 앎이 곧 해방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바라거나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붓다는 아무 것도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금강경>은 바로 붓다와 그 제자들이 구걸로 삶을 영위했다는 것, 그러면서도 최고의 위엄을 자랑하며, 빛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그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증거들은 인간이 생물학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적은 양'이 필요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다지 힘들여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도 그러했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들을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天父)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비록 외도(外道)의 말이긴 하나, 저는 이 수훈이 불교가 가르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전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 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말입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감충지(1226~1292): 조계산 수선사의 제6세 국사. 원오국사 충경(5세) 스님에게 득도했다. 원나라에 초청되어 세조의 극진한 공양을 받기도 했다. <조계 원감국사록> 등이 전한다.

네티즌 교리문답

'무생법인(無生法忍)'이란 무엇인가?

문 큰스님들의 법문에서 가끔 '무생법인(無生法忍)'이란 말이 보이는데, 그 말의 유래와 뜻이 궁금합니다. 알기 쉽게 풀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명초')

답1 : 무생법인이란 생성도, 소멸도 없는 실상 중에 안주하여 물러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대지도론>에서는 "무생법인이란 생성과 소멸이 없는 모든 법의 실상 중에서 그 바른 도리를 믿고 받아들여 통달하고, 걸림이 없으며 물러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생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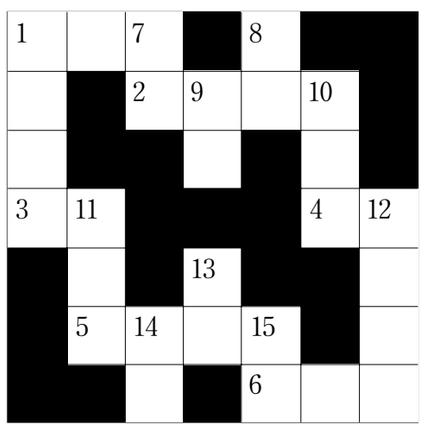
답2 : 무생법인이란 일체의 것이 불생불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이 없는' 법을 인정한다는 말로 모든 사물에 불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3종류의 지혜, 곧 <묘법연화경>에 나오는 삼법인(三法忍)의 하나입니다. 법인(法忍)은 진리를 깨닫는 지혜, 신인(信忍)은 신심에 의해 얻는 지혜, 순인(順忍)은 진리에 순종하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 중 법인을 말합니다. ('법인')

답3 : 지구와 우주에 펼쳐진 지금 이대로가 무생법인입니다. 중생과 부처를 나누지 않고, 인간과 축생을 나누지 않고, 유정과 무정을 나누지 않는 이대로 텅 빈 가운데에서 나투어진 모든 것이 무생법인인 것입니다. (空한 것이 나툼이고 나툼이 空한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으로 무생법인이라고 나누는 것이지, 진실로는 나고 멸함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가 무생법인인 것입니다. ('도덕산')

답 : 반야심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법의 공(空)한 모양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是諸法空相 不生不滅)." 보통 우리가 자기라고 여기는 육체와 정신작용은 순간순간 변하고 있어서 고정된 모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정된 실체(實體)가 없고 무상(無常)하기 때문에 공(空)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空)한 존재는 태어났다고 해서 무엇인가가 새롭게 생겼다고 하기 어렵고, 죽었다고 해서 무엇인가가 없어졌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불생불멸(不生不滅)인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참자기는 생긴 적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는 일도 없다고 합니다. 본래부터 있는 것이기에 무시무종(無始無終)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자리를 무생법인(無生法印)이라고도 부릅니다. ('joongie')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19면에

가로 1. 강원도 평창·홍천·군과 강릉시에 걸쳐 있는 산. 월정사가 있는 산 2.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 3. 약속한 시각에 늦음 4. 모든 공로나 공적, '장군은 ○○를 부하들에게 돌렸다' 5. 백성을 나누던 네 가지 계급. 선비, 농부, 공장(工匠), 상인 6. 녹화방송의 상대적 의미.

세로 1.두 무릎, 두 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방법 7. 기악독주곡 형태의 하나로 19세기 말 김창조의 가야금산조를 그 효시로 함 8. 시간을 훔치는 도둑과 그 도둑이 훔쳐간 시간을 찾아주는 소녀의 이야기를 그린 미하엘 엔데의 동화, 주인공 소녀의 이름 9.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용매가 옮겨 가는 현상 10. 고려 시대에 사원에 속한 논밭이나 토지 11. 서울 조계사의 전신 12.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송 13. 도자기 만드는 장인 14. 실없이 놀리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 15. 상극의 상대적 의미로 쓰이는 말.

신행수기

진실한 믿음 〈상〉

지영숙 (서울 강동구 천호동)



그림 · 김홍인

걸음도 못 걷는 몸으로 매일 3번씩 108배…

시집 온 뒤 네 자식 키우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친정 어머니 따라 익힌 절길이 50년이 넘었다. 어릴적 어머니의 지극한 신심을 회상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다. 어머니는 매달 초하룻날은 비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종로에서 삼각산 어느 절까지 쌀을 머리에 이고 단 한번도 땅에 내려 놓지 않고 부처님 전에 다달았기 때문이다. 그러시던 어머니가 "오늘 부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간다"는 말씀 남기시고 극락왕생하셨다. 그 후 나는 자식들 훌륭히 성장하고 복된 집안 이루어 달라고 기원하며 명산대찰 찾아 수없이 불공을 드렸다. 사실 불교에 대한 상식도 없이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만 굳게 굳게 믿고 부처님 관세음보살 부르고 불공드리는 일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던 내가 불교에 대해 진실한 신심을 일으킨 것은 어떤 계기를 맞이하면서부터였다. 20여 년 전에 육체적으로 큰 병이 없으면서도 몸이 점점 쇠약해져서 활동하는 데도 힘들게 되었다. 그런데 묘하게도 심하게 아플 때마다 꿈속에서 산에서 내려오신 스님이 나타나시어 "염려말아라"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꿈 속의 일이지만 분명히 이것은 부처님의 가피력일 것이라 믿고 더욱 열심히 "부처님 저를 낫게 해주셔요"라고 애원하며 수없이 부처님을 불렀다. 오직 의지할 곳은 부처님이라고 생각했고, 부처님을 부르면 마음이 편안할 뿐 아니라, 심하게 아픈 것도 나아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건강이 좀 회복되자 불교서적을 접하면서 '종교란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왠지 신심도 예전처럼 깊어지지 않았고, 이곳저곳 절을 찾아 법회를 다녀보았으나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이해가 되지 않는 형태의 방생법회, 산신기도, 칠성기도, 정초부터 행하는 신중기도 등 의문이 많았고 교리와 신행생활이 어긋나는 점을 해결할 수 없었다. 불교신도가 된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처럼 의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신심이 떨어지자 다시 몸이 아파 오기 시작하여 거동까지 불편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우연히 몇 번 뵌 스님의 소개로 부산 범어사 한 암자의 스님을 찾아 뵙게 되었다. 산길을 올라 갔는데 다른 사람이면 20분 정도 걸릴 곳을 한 시간이나 걸려 올라갈 정도로 나의 몸은 쇠약해 있었다. 스님께 먼저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아플 때마다 스님이 세 번이나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염불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럴 수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 스님의 모습은 차갑고 엄하게 보였는데 왠지 질문을 잘 받아주실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의문을 물었던 것이다.

스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꿈에 나타나신 분이 아마 관세음보살님이실 것입니다. 열심히 염불하지 않아도 꿈에 불보살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선근이 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혈통의 문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집안이 대대로 불심이 깊은 경우 말입니다"라 하시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보살님이 선근이 깊으니 자식들도 모두 선근이 이어져 다 훌륭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라 하셨다. 나는 선근의 뿌리가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스님의 말씀에 어릴적 친정 어머니 생각이 떠올라 눈물이 울컥 쏟아졌다.

다시 믿음을 일으켜 예전처럼 열심히 염불하리라 다짐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의문을 푸는 가운데 낯선 곳을 찾아오면서 가졌던 불안감이 사라졌다.

그날 저녁 예불시간 전에 스님이 나를 불러 "오늘부터 스님들과 똑같은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하셨다. 나는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예, 따라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스님께서는 매일의 일과표를 주셨다.

새벽예불 사시불공 저녁예불에 하루 세 번 참석하되 108번씩 절을 하라 하셨다.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몸으로 어떻게 절을 108번이나 할까 생각하니 아찔했지만 한 번 대답한 일을 돌이킬 수가 없었다. 스님은 절을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 하고, 일어날 때도 바닥을 짚고 일어서라 하면서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다.

나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하리라 마음 먹고 그 날 저녁 예불시간부터 일과를 시작했다. 병이 낫고 자식들에게 선근이 이어진다는데 무엇을 마다하겠느냐 라는 나의 신념 때문이었다. 누군가가 욕망을 버리고 기도하라고 했지만, 나의 그런 바람들은 진실로 순간 순간의 간절한 염원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불자라고 하지만 그렇게 절을 해본 적은 처음이었다. 그날 밤은 여행의 피로와 더불어 절을 많이 한 탓에 어떻게 잠을 잤는지도 몰랐고, 새벽예불 목탁소리에 놀라서 잠을 깼다.

새벽예불을 마쳤더니 걸음을 제대로 옮길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른 아침 졸음이 몰려오고 있을 때 아침 공양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고통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몸이 아픈 후로부터 아침공양을 걸렀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물에 말아서 조금 먹고는 날이 새자 스님을 찾아 뵙고 나의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렸다. 절을 하면서 숨이 차서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를 수 없다는 것과 108번의 숫자를 세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다. 자식들과 병의 쾌유를 위해 기원해도 괜찮느냐고 물었다.

스님은 웃으며 가만히 보시다가 말씀하셨다. "그러면 명호는 부르지 말고 스님의 염불 음성을 또렷이 듣기만 하세요, 절은 숫자를 세지 말고 염불이 끝날 때까지 천천히 하세요, 자식들 염려는 말고 보살님 병의 쾌유만 기원하세요"하셨다.

나는 스님께서 내 마음을 뚫어보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다.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 의문들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정진했다.(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하〉



윤승기
선덕여중 교사

화두를 챙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러던 중 갑자기 누가 나의 어깨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편안함이 찾아왔다. 눈앞의 깜깜한 어둠속에 푸른색의 점이 하얗게 점차 밝은 빛으로 변하면서 소용돌이치며 빠른 속도로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두려웠다. 그러나 두려움은 잠시, 편안한 그 기쁨을 무엇이라 표현할까? 그 속에서도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또렷한 '살아 있음'이 있었다. 그 곳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었다. 좌선이 끝남을 알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쉬움을 남겨야 했다. 나는 '이것이 혹시 공(空)의 체험일까?' 하는 의문을 가졌고, 이런 경험을 누구한테 얘기할 상대도 없었다.

나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끄달리는 편이 아니었고 무엇이든 수긍을 해야 바꾸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는 대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성격이었다.

어떠한 일에 부딪치면 '그렇구나!' 하면서 생각을 멈추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였다. 나는 모든 일을 그냥 흘려

'혹시 이것이 空의 체험일까?' 의문 차별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내면은 행복하지 않았다. 만약 실제로 모든 것을 다 흘러 보냈다면 기쁨에 넘치고 행복하고 편안했을 텐데….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은 아이들이었다. 1999년 큰 아이가 고3, 작은 아이가 고2에 재학 중이었는데 두 아이가 다 그 당시 유행하는 리니지 컴퓨터게임에 빠져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제재는 다 동원하였지만 아이들에게 나의 통제는 먹히지 않았다. 화는 불같이 타오르고, 생각을 돌리고 또 돌리고…. 큰아이가 대학에 입학한 후 2000년 7월쯤 대화하다가 "엄마, 그동안 제가 철없이 굴어서 죄송해요, 앞으로 잘 할께요."

그 말에 나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 아이도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에 지금의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고, 나는 그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기쁨과 충만감을 느낀다.

나는 내게 다가오는 것을 좋고 싫음 없이, 두려움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교직이라는 직업이 아이들의 순수하고 활기찬 모습에서 감동을 받고 힘을 얻지만, 많은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면 틀에 박힌 모습으로 정형화 시켜서 나도 경직되고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면 또 다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모든 것이 이렇게 상호작용 하면서 서로 연결됨을 느꼈다. 나의 내면이 달라짐에 따라 점차로 여유가 생기게 되니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줄어들었다.

또한 아이들을 큰 물줄기로 몰고 가는 힘이 생기게 되었다고나 할까.

2001년부터 불교 관련 책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고 2003년 4월 우연한 기회로 현웅 스님의 책 <묻지 않는 질문>(민족사)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다. 평상시 생각인 "나 자신에게 정직하자", "자각하라"는 것에 공감하였고 평소에 궁금하였던 것이 해결되었다. 그리고 직접 만나 뵈었다. 나의 좌선 중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단칼에 아니라고 하셨다. 미국에 계시면서 메일로 법문을 전해 주셨고 그리곤 나의 긴 방황이 끝나 버렸다. 스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감사의 3배를 드렸다. 점차 생각이 정돈되어 갔고 내가 알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 너머에 진리가 있음을 안다. 스님께선 "찾는 자를 보아라", "의지 할 것도 없다", "새 날을 맞이하라" 하시며, 나는 오늘도 가회동 육조사에서 현장감 있고 생동감 넘치는 법을 만난다.

지나간 모든 일들(사람, 사건)이 나의 스승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할 뿐이다.(끝)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문의 : TEL 02)732-1522
02)737-8881
FAX 02)737-0697
▷ 가격 : 1Box(4.4×4.4) 4만원

천도재, 49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태평소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경면주사
(수비경면)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암사 055-882-3455
016-428-6665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공의식 | 천도재 49재 | 정 안 식 | 용왕산신재 | 바라 나비춤 | 상가영불 | 천도시식전문 명리주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범패의식
천도재 | 수륙재 | 산신재 | 점안식 | 바라춤 | 나비춤
행사에 염불해 드립니다
무진 051)468-7374
합장 018-523-7374

레이키(Reiki · 靈氣)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피로회복/스트레스해소/질병치료 생명력활성화 등 웰빙의 도구
• 우스이레이키 60만원
카루나레이키 40만원
• 교육기간 : 2~3일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
전화: 02)720-5719
720-5682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제2기 역학수강생 모집
▸과목 : 사주, 관상, 수상
▸장소 :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장충체육관 방향 경동교회 뒤
인터넷 동영상 강의
www.kbs.cc
월간역학 교육원
(02-2264-0258)

암 디스크관절 당뇨, 백혈병 합병증,근육병 정신질환등
현대의술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 환자(기도와 기공침술, 한방 치료법)을 통하여 3개월~5개월정도면 80%이상 완치가능
단. 마지막 불심으로 믿고 성불이루십시요
031)671-1878 만복사

소백산 송이,능이판매
054)634-3334
농협 : 한희욱
751081-51-060579
경북 영주시 봉현면 두산 2동
심우사 한산 합장

불자 실버하우스
사찰 경내 신축건물
1人 1실 침식 제공
입주 3,000만원
- 부부 · 형제 자매 환영 -
문의처 :
031)867-1801~2
016)703-6648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지리산자연송이
판매합니다
055)883-2106
016-777-7656

모 집
● 기도스님 1명
● 처사 1명
● 공양주 1명
● 법당 화주보살 1명
▷각 30~50세까지
054)383-8032
011-9176-4403

1. 일본의 사찰에 기도하면서가족처럼 함께 생활하실 노부부를 모십니다.
일본직통전화 :
001-81-257-22-5488
2. 깊은 산중사찰에서 요양하며 함께 살아갈 공양 노부부나 출가에 뜻이 있는 행자를 찾습니다.
011-9803-6301
033)334-0730

기도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 전남
061)462-1242
011-9400-5254

행자모심
만40세미만으로 고졸이상
대학 대학원 진학 책임지원
(정릉)
02)917-3363

수행 비구니
스님 및 행자(여)
모십니다
▷연령 20~40세
▷부산시내 포교원
010-8678-2444
018-801-2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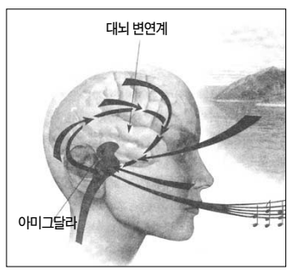
공양주 보살님
부전스님 모십니다
▷30~50대
어린아이 있어도 무방
사무능력자 우대
054)636-0229

神典건축
• 사찰, 암자, 사당
• 명상, 요가센타
• 다도방, 황토방
• 한옥 리모델링
• 조경과 조형물
• 디자인 & 미술까지
두레우물
031)771-9321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진다
테레사 J.스튜어트 지음
조영희 옮김 | 황소자리 | 1만8천원

서양심리학자가 길에서 쓴

분노 잠재우는 명상법 20가지



감정 두뇌는 자동 수정장치가 없는 '개회로' 제어시스템으로 돼 있다. 바로 이 때문에 한 사람의 감정이 옆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 이래로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 온 서양의 심리학은 오늘날에 와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두뇌(마음) 영역의 비밀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인지심리학은 인간 두뇌 기능의 긍정적 확장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놀랄만한 연구 결과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테레사 J. 스튜어트는 서양 심리학의 새로운 기류속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에 서 있는 인물이다. 그녀는 서양의 인지 심리학이 현재의 위치를 선점하기 훨씬 이전인 30년전부터 프로이트 심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홀로 배낭을 꾸려 세계 각국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오래된 명상 수련법을 몸소 체험하며 그간의 연구 내용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내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진다>이다.

저자는 특히 명상 수련이 인간 두뇌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울과 분노로 찬 현대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보충 설명한다. 그가 예로 든 것은 달라이 라마와 틱낫한 스님은 물론이고 일본의 선사상을 서양에 보급한 도쇼 포트 선사와 다이닌 카타기리 등 세계적 명상가들의 명상법 20개다. 저자는 이런 명상법을 통해 인간의 분노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몸과 마음의 평온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는 열쇠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분노와 두려움을 잠재우는 명상법

- 마음으로 호흡하기, 걸으면서 숨쉬기
- 몸의 긴장 부위 찾아내기
- 자신의 감정을 색깔로 표현해 하루의 생활 점검하기
- 앉아서 15~20분간 명상하기
- 자신의 감정 습관을 돌아보기
- 반가운 친구처럼 자신의 감정을 맞아들이기
- 내 눈을 가리는 마음의 독(毒) 조사하기
- 거울만들어 거울 속에 무엇이 투영되는지 들여다보기
- 긍정적인 모델상을 제시하고 마음속에 그리기
- 분노를 가라앉히는 색깔인 파란색을 계속 상상하기
- 움직이지 않는 산(山)을 상상하기
- 상대방과 입장 바꿔 생각하기
-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말로 명상하기

또한 티베트의 통렌 명상법과 인도의 탄트라, 전통불교의 수행법과 기독교의 묵상 기도 등 다양한 종교 명상법의 원리와 구체적인 명상 훈련 방법도 제시해 줘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구성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잠들기 직전 조용한 바닥에 누워 15~20분 동안 자기가 파란색 바닥 위에 진주와 구슬로 된 투명한 막에 싸여 지혜, 연민, 행동, 본능 등으로 상징되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보호를 받는다고 상상하라는 식이다. 이런 훈련을 통해 스스로를 가다듬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기술까지도 터득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1부가 다양한 명상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라면 2부에서는 마치 산을 오르듯 단계를 밟아가며 '자아'를 다스리는 명상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 첫 단계인 '숨쉬기'에 대한 내용은 자못 흥미롭다. 춤을 추기 위해 스텝을 배우고, 기타를 치기 위해 코드를 먼저 익히듯 '숨쉬기'는 모든 명상법의 기초라는 것이다. 단순히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숨쉴때의 리듬에 집중할 것을 주문한다. 호흡이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또는 감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느낌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호흡을 통해 몸의 상태를 점검하고 난 후에는 몸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파악할 차례다. 하루는 쉼없는 행위의 연속이기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속에서



30년전 심리학의 한계 느끼고 홀로 배낭 메고 지구촌 돌며 몸소 체험하고 입증한 종교별 명상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누구도 어떤 감정들이 내게로 들어오는지 눈치 채지 못한다. 16세기 기독교의 묵상 수행에서 가장 중요시한 수련법인 '하루 점검하기'를 통해 자신에게 들어오는 감정들에 이름을 붙이고 색깔을 지정해 분류한다. 그리고는 고대 대승불교 경전에서 가져온 '앉아서 명상하기'를 통해 '감정 안의 감정'을 느껴볼 것을 권한다.

이런 방법으로 '자아'의 내면 깊은 곳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모든 것을 떨어내고 나면 자신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변화에도 큰 변화가 온다는 것이다. '좋은 인간관계'의 본질은 '서로의 공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지면 타인과의 관계도 좋아진다는게 저자의 설명이다. 타인을 자신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지만 앞서 설명한 '자아'를 단련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우선 직장에서 자신과 가장 마찰을 일으키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입장 바꿔 생각하기', 연인이나 친구들간의 사랑과 우정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호흡하기' 훈련법으로 공감하는 능력을 키운다면 갈등 해소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이 힘들고 지루하다고 느낀다면, 혹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마음에 드는 몇 가지라도 책에 나온 설명을 따라 꾸준히 실천해 보는 게 어떨까.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멈추어 서기엔 너무 젊은 한국인에게 보내는 60초 편지
김형섭 지음| 밀리언하우스 펴냄 |9천5백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방황과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딛고 하버드에 입학한 김형섭. 세계 최고의 인재들만 모인다는 하버드 교정에서 그는 목표도, 꿈도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한다. '나는 하버드에 왜 왔는가?', '내가 하버드에 필요한 존재인가?' 자신감을 잃고 방황하던 그는 세계의 리더들에게 1천여 통의 편지를 쓴다. '21세기를 사는 한 젊은이에게 삶의 지혜와 성공의 비결을 담은 단 한마디의 충고를 부탁한다.' 고.

저자는 수많은 업무에 시달릴 CEO들에게 자신의 편지가 버려지지 않기를 바라며 "1년은 365일입니다. 1일은 24시간입니다. 1분은 60초입니다. 여기 열심히 노력하는 열정의 젊은이에게 단 60초만 투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 결과 101명의 리더들은 기꺼이 그들의 60초를 투자해 주었고, 60초 만에 읽을 수 있는 짧은 답장을 써 보내 주었다. 하지만 그들이 보내준 60초 편지는 평생의 가르침이 될 긴 여운을 남겨준다.

세계 리더 101명의 1분 메시지

꿈 잃은 청춘에게 보내는 지혜와 성공 비결

다소 허무맹랑할 것 같은 저자의 용기 있는 행동에 다행히도 많은 이들이 응해줬다. 족히 책을 한 권 출간할 만큼의 답장들이 모여졌다.

이 책은 미국의 前 부통령 앨 고어,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영국 전 총리 마거릿 대처,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등 세계적인 명사 들이 보낸 101 통의 답장에 담긴 희망의 메시지들을 정리한 찬사와 조언의 결정체이다. 수록된 리더들의 답장은 순간의 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들이 제시되고 있다. 어떤 이는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실행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네"(스즈키 오사무 스즈키모터 회장)라며 행동을 강조하기도 하고, "자네가 진정으로 하고 싶고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게나"(조지 피셔 코닥그룹 회장)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또 "집과 일터에 예술을 끌어들이게"(도널드 홀 홀마크카드 회장)라며 자신의 성공비결을 살짝 귀띔하기도 한다.

물론 모두다 응해 준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답장을 하지 않는 것이 공식적인 정책입니다"(조지 부시 당시 텍사스 주지사)라며 비서를 시켜 답장을 거절하는 이도 있다.

이 조언들은 입시에 눌려 꿈을 잃어버린 청소년부터 청년 실업 사태 앞에서 무기력에 빠진 젊은이들, 그리고 당당한 미래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에게도 고민의 실타래를 풀어주는 지혜들이다.

학생들을 지도하다보면 한마디의 격려와 희망적인 말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학생들에게 들려줄 좋은 내용에 밑줄을 쳤다. 그런데 다 읽고난 후 책을 훑어보니 형광색펜으로 책이 도배가 돼 있었다. 그만큼 이 책에는 풍부한 인생의 격려와 충고가 듬뿍 들어 있었다.

■조연숙 (대교수학 강원지사장)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문의 : TEL 02)732-1522
02)737-8881
FAX 02)737-0697
▷ 가격 : 1Box(4.4×4.4) 4만원

행자모심
40세미만의 비구니
행자를 모십니다
문의 : 총무스님
041)832-1188
010-6757-553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경주시 양북면
016-278-9166
011-850-5680

산중 조용한
암자에 스님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요
(부전도 가능합니다)
010-9415-296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017-260-3310

비구니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30~40대
054)636-0229

천일기도 스님이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43세 비구
017-515-7527

포교에 관심있는
주지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대처스님
(법납 10년이상 50세미만)
서남해 섬사찰
011-663-4893

조계종 스님 설립, 부산교통 중심지인 90평 포교원을 투명하게 관리운영을 평생 맡아서 신의있게 할 인연있는 건 당상좌 아니면 비구,비구니를 찾고있음. 그리고 소백산 보궁에 평생을 의지처로 삼을 40~50대 공양주를 구함.
부산설법원 (연락처 부산으로)
051)441-1430
054)653-1180

여직원 구함
▷경기도 의왕시
대안사
031)459-3666
031)459-310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기 김포
011-688-6625

부전스님이
필요한 사찰
연락바랍니다
061)322-8642
016-633-6884

천일기도
소임을
원합니다
010-7160-6811

行者모집
出家하여 禪修行을
하고자 하는 분
※ 신체결격사유가 없는 만35세미만인 분
※고졸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
011-468-9022

미주 택사스주
달라스에서
공부하면서 포교하실분
승납 10년이상
비자받을 수 있는
비구. 비구니
010-9766-2220

부전스님이
필요한 사찰
연락바랍니다
061)322-8642
016-633-6884

부전(비구)스님
▷30~40대
공양주 보살
▷40대. 출퇴근 가능한자
서울 서초구
011-9269-8445

기도스님
필요한 사찰
연락바랍니다
010-7160-6811

기도스님
모십니다
▷ 경북 영주
011-9342-985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1)673-3222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지리산
50대이상
50대이하는 전화사절
011-483-5639

제불공 의식행사의
염불 회심곡 등 필요한
서울 경기지역 사찰
불러주시면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조계종 학인 비구니스님
010-4752-5018

역학개인지도
사주에 필요한 모든것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밝은미래를 여는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禪問答, 뜬구름 잡는거라고?

"학인이 방금 총림에 들어왔는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죽은 먹었는가?"
"먹었습니다."
"발우나 씻게." (<오등회원> 中)



선어삼백칙
차차석 엮음
여시아문 | 1만원

역대 선사들의 수행담과 득도를 향한 열정담긴 핵심 어록 '선어삼백칙' 번역서

언제부턴가 우리는 주어진 질문에 상관없는 대답이나 '뜬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를 일러 '선문답(禪問答) 같다'고 말한다. 불법(佛法)의 지혜를 체득한 선지식들이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나눈 선문답을 통해 깨달음을 전하는 '선어록(禪語錄)' 역시 마찬가지다. 선어록은 단박에 그 속에 담긴 뜻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탓에 단순한 자구(字句) 풀이에 그치거나 지나친 해석이 덧붙어 그 참뜻을 잘못 헤아리기 일쑤기 때문이다.

선어록 중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벽암록(碧巖錄)> 또한 이러한 폐단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설두 중현(980~1052) 선사가 선종사의 공안(公案) 1백칙을 모아 송(頌)을 붙인 <설두송고>에 원오 극근(1063~1135) 선사가 평을 단 <벽암록>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이지적 분석과 해석의 대상으로 떨어지자 원오의 제자 대혜 종고(1089~1163) 선사는 스승의 책을 불태워 버린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선어록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중국 강서인민출판사에서 발행된 <선어삼백칙>(종학재 엮음, 1996)을 번역한 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차차석(前 현대불교 상임논설위원) 씨는 "선어록에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사들의 열정과 인간애, 생명애를 발견할 수 있다"며 "이것이 바로 선이 지니는 불멸의 생명이다"고 강조한다.

'주제가 있는 선 이야기 삼백가지'라는 부제의 <선어삼백칙>은 역대 선지식들의 생동감 넘치는 수행담과 득도를 위한 열정이 담긴 핵심적인 어록을 모은 책이다. 이 책은 '스스로 불성을 지니고 있다' '문득 깨달아 부처가 된다' '자아를 인식하다' '평상 자연' '한 올도 걸리지 않는다' 등 주제별로 선수행에 얽힌 일화를 소개한다는 점에서 무조건 '어렵다'고만 느껴온 선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선이 어렵다,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무조건적으로 신비화하거나 선조들이 창안한 것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경건주의를 걷어낸다면 주체성의 확립과 창의성 개발, 생명의식 고양이라는 선 본래의 장점과 매력을 십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책에서는 우리말 번역과 원문을 함께 실어 번역본을 대조해 볼 수 있게 했다. 주(註)에서는 선어록이 갖는 의미와 어록이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 선사의 간단한 이력을 소개하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건강한 정신문명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통 선문화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선사들의 핵심적인 일화를 모은 이 책을 통해 선이 산중이 아닌 우리의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문화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불교복지학 방법론 모색



불교사회복지실천론
권경임 지음
학지사 | 1만5천원

일반사회복지학에 비해 불교사회복지학은 약 3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지닌 학문으로, 체계적으로 정립되기 위해선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최근 불교사회복지 전문가인 권경임 씨가 내놓은 <불교사회복지실천론>은 그래서 더욱 반갑다. 지은이는 지난 2002년 불모지에 가까웠던 불교사회복지분야를 연구한 결과를 <현대불교사회복지론>으로 묶어낸 바 있다. 전작에서는 불교사회복지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모색했다면 이번 책에서는 불교사회복지가 활성화되고 현대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현재 종교사회복지포럼 회장이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은이는 책을 통해 불교와 사회복지를 접목하기 위해선 불교교리를 기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학이 대상자의 환경을 중시하고 개인의 욕구충족에 중점을 둔다면, 불교사회복지는 자비와 평등이라는 '불교의 이념'에 따라 인간의 내적인 의지와 그에 따른 행위를 중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은이는 불교복지 개념을 시대와 사상별로 추출해 이론화했다.

또한 지은이는 불교사회복지란 대상자의 고통을 덜어줄 뿐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재활의 의미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교는 고통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여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신이 변화하기 위해선 의존적인 심리를 버리고 대상자 스스로도 노력해야 하는데, 지은이가 주목한 불교의 자기변화 방법은 보시, 애어, 이행, 동사 등의 사섭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책에는 각 불교사회복지 기관이 모델로 삼을만한 단체의 자료들이 풍부하고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일본 정토종 불교대학의 불교간호 코스 등 국내외의 불교복지 전문가 양성 코스를 소개하고, 각 종단과 시설별로 조직 운영 실태를 소상히 밝힌 점은 이 책만의 특징이다. 지은이는 "불교사회복지는 기존의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대상자의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교학 전공과정에 사회복지학을 포함시키는 등의 전문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정우 스님 엮음, 일주문, 1만원)=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주지 정우 스님이 월간 <붓다>에 연재했던 글을 책으로 묶었다. 구룡사를 상징하는 표어이기도 한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르침을 담은 경전 구절과 정우 스님의 법문을 함께 볼 수 있다. 스님은 "경전을 한 구절 씩 소리내어 읽다보면 그 뜻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조언한다.



■ **<암자로 가는 길>**(정찬주 지음, 열림원, 1만2천원)=지난 97년 첫 선을 보인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소설가 정찬주 씨의 <암자로 가는 길> 개정판이 나왔다. 수년 전 절판됐던 책의 판형과 편집, 디자인을 새로 바꾼 이번 개정판에서는 사진작가 김홍희 씨가 새로 찍은 암자의 풍경 사진과 송영방 화백의 단아한 삽화가 눈에 띈다. 최근 변화된 암자의 사정이나 정확한 위치, 전화번호 등도 바로 잡았다.



■ **<프리덤 쇼>**(데이비드 에드워즈 지음, 송재우 옮김, 모색, 1만4천5백원)=세계 생태주의자가 뽑은 '세상을 바꾼 책 50선' 중의 하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각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규정짓고 있는 조건을 살피고, 이러한 자유의 왜곡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자녀들에게 불서 선물하세요

▮추석 앞두고 어린이책 3권 선보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이와 함께 읽기 좋은 어린이 불교서적 세 권이 잇달아 선보였다. 올 추석에는 자녀나 조카들에게 불교책을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졸참나무처럼
우봉규 지음 | 이승민 그림 | 시공주니어 | 7천원

김교수가 들려주는 불교이야기 1, 2
김용덕 엮음 | 부름이 | 8천원

어린이 세계 종교
트레버 반즈 지음 | 윤이흠 옮김
다섯수레 | 1만8천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 법당: 24평
- 요사: 60평
- 부지: 300평
- 가액: 3억6천

- 위치: 강원
- 인법당 : 30평
- 부지: 1300평외
- 임대사용 2000평
- 공부하는 스님 및 조용한 기도처 필요한 분
- 가액: 3500만

- 포 교 당 -
- 위치: 서울
- 법당, 요사: 30평
- 임대금: 500만원에 7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300평
- 임야 : 2천5백평
- 인등 : 3천개
- 가액 : 8억원(절충가능)

011-9338-2993
소개업자 일체사절

사찰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3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상담후 결정)

031)826-0376

토굴암자터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 임야 전답 3500평
- 가액 : 6천만원

010-9763-1271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평수 : 대지 48평
- 건물 : 법당 1동, 산신각 1동
- 요사채 1동
- 가액: 삼존불 포함6천만원

041)841-3090
017-337-4168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
- 부지: 1000평
- 법당: 15평
- 요사: 25평
- 가액: 7억

- 위치: 삼각산
- 국유지 임대
- 법당: 9평
- 건물: 15평
- 가액: 2억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사찰안내

- 위치 : 서울 평창동
- 대지 : 129평
- 건평 : 98평
- 평당: 8백만원
- ※ 현재사찰 운영중
- ※ 소개업자 일체 사절

011-478-8812
011-9865-1975

포교당안내

- 위치 : 암사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지하철역 인근 대로변
- 법당: 35평 큰방1, 옥상방 3개
- 옥상: 35평 총 60평이상
- 스님 노환으로 사정상
- 가액: 보증금 5천만원,월 8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714-3635
02)481-3635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영등포구 정문앞 지하철역 인근 대로변
- 법당: 35평 큰방1, 옥상방 3개
- 옥상: 35평 총 60평이상
- 스님 노환으로 사정상
- 가액: 보증금 5천만원,월 8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714-3635
02)481-3635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온천시장내
- 총 45평(3층 건물중 2층)
- 호불 500불(지장보살)인등 500, 연등 1000개, 원목 달집(단청필)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법당최고시설)
- 포교당운영하실 조계종스님 모십니다

016-444-5758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주문진에서 5분거리
- 대지 : 250평 전 250평, 임야 6,000평 법당 80평 삼존불 방 8개 요사채 30평 (한옥전통기와) 황토방(온돌)1
- 가액 : 1억 7천만원

033)661-1375
011-202-8288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경기 이천
- 부지 : 650평
- 법당 : 30평(목조)
- 요사 : 30평(목조)
- 산신각 : 5평(목조)
- 양도가 : 5억 5천

- 위치 : 일산
- 평수 : 11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보증금 : 2천 5백 / 백오십
  시설비 : 2천 5백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남원
- 부지: 3천 2백평, 법당, 요사 완비
- 납골시설 100기 (분양완료시 2억이상 수익가능)
- 대규모 납골사업 가능한 부지 조성 완료
- 가액: 1억 5천만원(전세가능)
- 기도정진할 스님 특별조건
- 납골탑만 매매가능

011-9415-683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대명동
- 총평수 : 40평, 방2개, 주방, 샤워실, 법당
- 가액 : 2천 2백만원 월세 23만원(보증금포함)
- ※스님이 급히 해외교육차 출국관계로 양도하고자 함

011-9850-2946
053)653-0287

사찰 안내

- 위치: 동작구 상도동 7호선 장승백이역
- 대지 : 66평, 건평 : 56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 5억 3천만원

02)815-0302

사찰 터안내

- 위치: 군위군 고로면
- 평수: 4000평 건물한동 있음
- 특징: 650고지, 천하절경
- 약초재배나 고냉지채소 가능함
- 대구에서 50분거리
- 가액: 7천만원

011-810-8402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이면 소재
- 대지 : 110평(전통한옥, 등기필)
- 건물 2동(안채, 사랑채)
- 심야전기 시설이 완비된 아주 깨끗한 전통 한옥
- 스님토굴이나 가족휴양처로 최적으로 장소
- 가액 : 9천만원(가격 절충)

041)753-3766

사 찰 안 내

<암자>
- 위치: 창원 북면
- 대지: 230평
- 법당: 20평
- 요사채: 25평
- 가액: 1억3천
- 마금산 온천에서 5분

<절터>
- 위치: 웅촌
- 대지: 1,100평
- 가액: 2억5천
- 부산 ↔ 울산 중간지점

양산 부산간 중간지점인 양산시 동면 면사무소 앞에 부동산사무소를 오픈하였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매물들에 대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5)383-0023 / 018-563-9575

동면공인중개사 홈페이지 dongmuen.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소래 포구 어시장 상업지구 3층건물 중 3층
- 평수 : 30평, 법당, 방, 주방, 화장실,주차장,베란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3천만원(절충가능)

011-438-7569

물좋고 산세좋은 도심속 암자

- 건평 100평
- 법당 : 15평
- 요사채, 주차장완비
- 40년 역사 가건물
- 가액 : 2억 7천만원

011-9303-8550
051)301-8555

토굴,암자터안내

-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소재
- 하늘과 마주보는 산밑 1257평
- 농가 흙집 리모델링 방5개(구들방1개, 벽난로)
- 도량-아늑한 세월의 숨결이 묻힌 나무조각불상다수 미니 돌도랑 그위에 미니정자 오롯한 수행의 길을 찾는분
- 가액: 2억(입법당, 집기, 비품 소품일체 양도)

033)342-7931

토굴암자안내

- 위치: 충남 금산 대전에서 30분거리
- 부지 : 400평
- 건물 : 목조 한옥 21평 임법당(황토방)
- 가액 : 2억(절충가능)

041)753-8137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 12만원 집기 포함 시설비 1700만원

011-9238-9960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웅상읍 소재
- 부지: 약 250평(종교용지)
- 법당: 50평(목조단청)
- 요사: 20평
- 가액: 3억 7천만원
- 특징: 도심인근사찰로 포교지로 적지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소재
- 부지: 약 100평
- 법당: 20평
- 요사: 2동 30평
- 가액: 3천 8백만원
- 특징: 조용한 시골마을로 기도정진하기에 좋음

좋은인연됩시다 동진불사 전국소재 사찰,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서울 018-536-4064 / 대구 018-689-0455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물좋고 산세수려)
- 평수: 650평 (종교부지)
- 심야보일러, 임법당 25평, 방 5개, 주차장 창고 등
- 가액: 1억 4천 8백만원
- 꼭 하실분 연락바람

010-8419-8004

한마음 납골묘 납골당

사찰 경내에 본사의 비용(무상)으로
납골묘(석재)를 설치해 드립니다
사찰에서는 일체의 부담이 없음

한마음 석재 납골묘 납골당 고원 합장

011-348-0668 / 031)318-0616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파계사 근교
- 대지 : 306평
- 건평 : 60평(법당20평, 산신각5평,큰방5개,화장실3개)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경관이 뛰어나 기도처로 최적지임
- 가액 : 1억8천만원(융자별도) 답사 후 가격절충 可

011-9371-0856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바닷가(한려수도)
- 평수 : 약 1,000평(대지 516평, 밭 400평) (법당20평, 삼성각10평, 지장단10평, 요사채20평, 기타 : 화장실, 창고)
- 특징 : 인근 골프장과 스포츠 파크 있음
- 가액 : 3억 (한려수도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어 경관이 수려함)

011-627-029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임
- 대지: 159평
- 총건평: 25평(요사채 12평)
-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8천만원(답사 후 절충可)

019-503-7959
055)942-9156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 면적: 임야 대지 포함 11400평
- 법당: 목조 40평
- 요사: 벽돌 110평 1동 창고겸 요사 45평 1동
- 가액: 3억7천만원

011-9457-7060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홍재 전철역 부근 10분거리 상가건물 1층
- 평수 : 약 50평
- 전세 : 3,206만원 시설완비 시설비 : 답사 후 절충가능

02)3216-1118
017-766-2788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 법당 20평, 요사 20평
- 전체 1500여평
- 도로 조경 최상의 조건
- 가액 : 2억 2천

010-2801-0201

사찰안내

- 위치: 대구시 동구 신축 2층건물
- 대지: 105평 ● 법당: 28평
- 요사채: 45평
- 시설: 화장실 4, 심야보일러, 수도, 지하수, 창고, 상수도
- 가액: 3억1천만원(절충가능)
- 즉시법회가능

011-226-2880

포교당안내

- 위치: 대구시 서부정류장 근방
- 평수 : 98평
- 법당,방2개,종무소,주방1개
- 보증금 : 1천만원 월세절충가능 시설비 : 3천 5백만원

053)625-7104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부근
- 대지 100평 및 사용평수 100평 건물 법당 2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8평, 11평
- 모든시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
- 가액 : 1억3천만원

043)733-8186
011-9405-8186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김천, 상주에서 20분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300만원 (집기일체포함)

011-462-527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 대지: 200평(주차장 600평) 총 800평 ● 공터: 400평
- 건축: 법당(고려시대 부처님상 아미타, 요사채, 방, 총 46평
- 가액: 3억 2천(답사후절충가능) (융자 6500만원포함)

011-9378-5637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 하남시 덕풍동
- 보증금 : 3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 법당 : 40평, 방4개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011-715-633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 대지 : 1700평
- 법당 : 30평, 요사채 40평 (방5,주방1,거실,화장실)
- 삼존불 각단탱화
- 특징: 하천댐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쾌적한 공기
- 가액 : 3억 3천만원(답사후절충가능)

016-9771-2736

사찰안내

- 위치: 전주시내,중심지역대지상가주택
- 1층상가 6개, 2층사찰 대지 110평 건평120평 자신있게 갖춘 도량임
- 가액 총 4억8천 준비금 2억 8천이며 개인사찰 등기이전 상가에서 매월 일백만원나옴. 융자 80%가능
- 대지는 8×6미터. 코너절
- 비구니스님, 비구스님, 법사님도량

010-3166-8483

사찰 터안내

- 위치 : 울주군 두서면 4차선 근처
- 평수 : 답 770평
- 사방이 산으로 둘러쌓여 있고 사시사철 물이 철철
- 가액 : 5천만원

011-845-6642

토굴 겸 팬션안내

- 위치 : 남덕유산자락
- 부지 : 1630평 가옥 - 신축황토기와집
- 가액 : 5억(대출가능)
- 특징 : 맑은개울과 집뒤의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016-367-2112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돈암동 시내 사찰
- 법당1동, 요사2동
- 전세: 없음, 월20만원, 시설비 2500만원8
- 지하수 있고, 기타시설 완벽
- 비구니 스님께 최적합

055)646-2766
016-377-6397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화명동 금정산 입구
- 평수 : 35평
- 전세 3500만원 월세 30만원

010-4548-0770
010-4858-5070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상인동 대동시장 4거리
- 평수 : 3층건물 중 3층 45평
- 삼존불봉안,후불탱화,신중탱화 칠성탱화,산신탱화,엠프시설
- 법당,주지실,에어컨설치, 방4개, 공양실,샤워실,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3천만원 절충가능

011-9391-8117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칠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9-571-1732

포교당(임대)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대흥동 보문산 입구
- 평수 : 25평 ● 시설 : 2층에 위치, 법당(삼존불),탱화,거실,부엌, 살림 일체 있음. 즉시 양도입주가능함
- 보증금 : 500만원. 월세 20만원 시설비 : 1500만원. 절충가능함

042)527-3800
017-403-3800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 대지 150평, 전 435평
- 법당 30평
- 신축사찰
- 가액 : 1억 2천만원

033)534-0407
010-9478-1686

사찰안내

- 위치: 동해안 산세 수려한 명산자락임
- 부지: 1300평중, 법당자리는 종교부지임
-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목조 주심포 건물
- 요사채: 목조건물, 현대식 스라브 건물 1동
- 종단연수원, 납골당, 기도원으로 적합함
- 가액: 답사 후 마음에 드시면 절충하기 바람

011-376-164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중구 ● 건물 3층 전관 53평(엘리베이터 有) 순 한옥식으로 잘 꾸며져 있고 바닥은 전체 게르마늄과 맥반석으로 된 온돌방이며 법당은 18평, 방5칸, 욕실 큼, 주방2
  보증금 4천만원에 월50만원 (삼존불 삼존탱화 연설대 시설물 냉장고 에어콘 정수기 일체 시설비 포함 3천 5백만원) 합 7천 5백만원.
- 기타 : 버스정류소 바로 옆 지하철 2분

010-9469-225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인근섬)
- 대지 : 120평, 밭 200평
- 법당 : 30평(삼존불 모셔져 있음)
- 건물 : 요사채 18평(방4개)
- 도량내 관음보살 불상 모셔져 있음
- 특징 : 불심이 돈독한 섬마을 지역임
- 가액 : 1억 7천만원(답사 후 조정가)

011-9576-1648
054)832-1648

사찰안내

- 위치 : 울진군 울진읍
- 평수 : 사찰도량 600평 텃밭 700평
- 전세가액 : 2천만원
- 스님불사 관계로 '급'

054)782-5859
016-808-4849
051)257-2044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청 뒤 2분거리 4층건물중 3층, 35평
- 법당, 공양실, 친견실, 삼존불, 지장단, 신중단, 영가단, 앰프시설, 사무기기, 포교서적 완비 시설A급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5만원 시설비 1550만원(절충가능)

032)511-4974

고찰터안내

- 경남 함양군 지리산
- 독립된 청정계곡. 야생차밭
- 16필지 총 7527평
- 관리지역 임야 4808평 1만원 전답 2919평 3만원 1억 3천만원

011-9393-4965

사찰안내

- 위치 : 철원 동송 시내
- 부지 : 819평 한옥법당 10평
- 설법 강좌실 21평
- 요사채 15평
- 사찰관리실 7평, 약수터
- 가액 : 3억
- 임야 25,000평 평당 2만원
- 진입로 8m접 계곡물 접

011-9243-0993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343번지 태백산
- 산세경관이 아주 좋으며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연꽃안에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며 100m앞 유원지 내리강이 흐르고 도로 잘되어있음.
- 부지 1800평, 자연돌로 조경이 잘 되있으며 천탑을 조성하려고 자연돌 수천톤이 확보되있음. 기와건축물 50평 전기수도 유선 잘되었음
- 가액 : 2억 5 천만원

018-223-2101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하나 실천하고 체험해야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문 벌써 오곡이 무르익어 가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산천초목들도 모두 한 해 동안 결실을 맺기 위해 모진 고난을 감내했다는 생각에 일체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마음의 도리를 공부해 가는 저희들도 마음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침 주신다면 성실히 실천해 가겠습니다.

답 우리가 여러 마디 하는 거보다도 제일 급한 게 뭐냐 하면, 자기 뿌리를 자기가 믿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하고 안 통하고 그걸 떠나서 자기 선장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그래서 잔잔하든 파도가 치든 양면을 다 놓고 자기 선장한테 일체를 맡겨 놓는 겁니다.

만날 하는 말이지만 거기에 닿지 않고 가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음이지만 그 선장의 마음은 한마음이거든요. 그러니 그 선장이 끌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파도가 친다고 해서 막 그냥 배 뒤집힐까봐 야단법석을 하면 그 선장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배가 뒤집히게 되는 거죠. 그거와 같이 우리 몸뚱이를 배로 비유를 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선장이 자기를 이끌고 가는데 바깥으로 자꾸 끄달리고 그런다면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와 같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통하지 못해 깨우치지 못했다, 즉 말하자면 부와 자가 둘이 아니게끔 상봉을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자꾸 한군데다가 몰두해서 '안되는 것도 되는 것도 당신이 하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너야!' 하고 굴려놔라 이겁니다. 법륜을 굴린다 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그렇게 굴려 놓으면, 깨우쳤다 깨우치지 못했다를 떠나서 진짜로 믿는다면 깨우치지 않았어도 직통, 즉 말하자면 찰나에 대뇌로 해서 사대로 통신이 돼서 정수의 컴퓨터에 입력이 된다면 입력대로 그냥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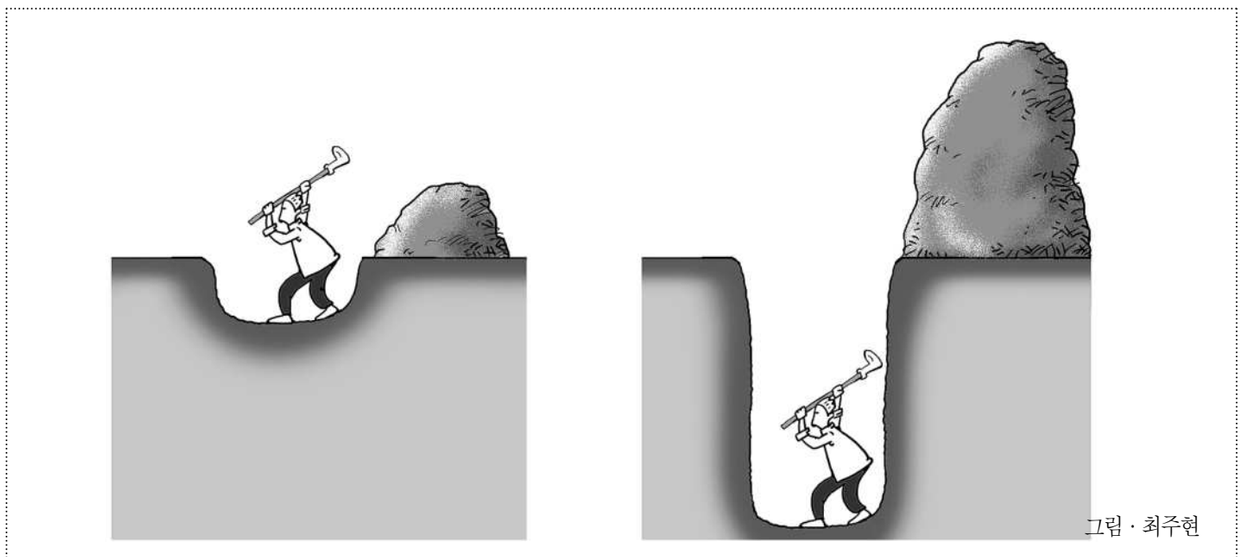
내가 항상 그러죠. 이 세상에 누구를 믿을 데가 있느냐고요. 못났든 잘났든 네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너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자불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을 겁니까. 엄밀히 따져본다면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항상 얘기하듯이 대신 똥 눠 줄 수 없고, 밥 먹어 줄 수 없고, 잠자 줄 수 없고, 아파 줄 수 없고, 죽어 줄 수 없고, 깨달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을 믿어야 할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자기를 이끌어 가는 자기 주인공, 자불밖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자불로 인해서 수없는 제불이 찰나찰나 엮어지니까요. 그리고 통신이 되니까요. 그리고 항상 들고 나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말로만 '주인공! 주인공!' 그러는데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고생은 해도 죽는 거 못 봤죠? 아주 끄트머리의 결과는 회향을 잘하고 끝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바깥으로 끄달리지 말고 아무리 죽을 일이 생겨도 대치를 하되 "스님! 이런 건 이런데 어떻게 해야 옳을까요?" 정히 급하면 그렇게 하고, 또 나는 대답을 할 때 "열심히 관하고 가세요." 이렇게 하겠죠.

예를 들면 수술을 할 거는 수술을 하고 수술을 안 해도 될 거는 안 해야죠. 되는 것은 자기가 자중하면서 자꾸 관하면 그것이 어디로 갈 거라는 게 나와요. 자기가 실천을 옮기고 자기가 실험을 하고, 자기가 해 보다 보면 차차 차차 그게 경험이 되고 그래서 깨우쳐진단 말입니다. '이럭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선 쫓아가니까 어떤 게 닥쳐와도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아, 이 즐이 바로 반야줄이구나! 이게 바로 그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길, 미세한 티끌 수와 같은 세계로 가는 거구나!' 하고 그냥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마음이 헤아릴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길이 수천수만이 된다 하더라도 한 찰나입니다. 요기서 조기 나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육체를 새 둥우리라고 합시다. 새 둥우리 속에 새가 들어 있다. 몸이 형성됐으니깐 그 속에 자불이 들어 있는 거지, 지붕도 안 해 놓고 부처님 모시는 거 봤습니까? 다 집을 마련해 놓고 자불을 거기다 모시는 거죠. 자불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불은 다 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업신여기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섭섭하게 하지 마라.' 하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죠. 벌레 하나도 살생하지 마라 이랬구요. 그것도 네 생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서, 우리가 살아서 공부하는 거지 죽으면 공부 못해요. 부딪치는 체가 있어야 되는데 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차원에 따라서 차례차례로 곤욕을 치룬다거나 또 차례차례로 곤욕을 치루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테니깐 말이에요. 그거를 또 한 번 벗어나려고 한다면 무척 고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더욱 열심히 노력하셔서 좀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림 · 최주현

기가 그냥 지금 현재의 생활을 판단해 가지고, 자기 분수도 생각해서 거기다 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도 빠질 게 없어요.

그런 건데 여러분은 남이 그런다고 하는데, 남이 그러기 이전에 여러분이 남 걱정하는 것도 끄달리는 거거든요, 그게.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참견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죽어서 지금 저 승엘 가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구요, 모든 거를 보기에 안되는 거 같고 보기에 좀 트릿한 거 같고 또 못나게 보이고 그러더라도 '어, 내가 전자에 그렇게 못났을 때의 내 모습이로구나!' 하고 자기 탓으로 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서 저승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그걸 잘 알게 해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서 저승길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물질세계에 살면서 사는 거는 다 알았으니깐 저승세계에 들어가서 알아야 양면을 다 둘 아니게, 삼세를 둘 아니게 다 알아야 내가 누구를 건져 준다 뭘 한다 하죠. 지금 신도님들도 그냥 그대로 믿고 그대로 옆의 사람, 꼭 이거는 돌봐 주지 않을 사람이나 돌봐 줄 사람이나 자기한테 인연이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관해 주고, 또 일러 줄 수 있는 사람은 관하라고 일러 주고 그렇지 못할 사람은 그냥 관해 주고 하는 거죠. 오다가다가도 그렇게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면 "아유, 당신이 일러줘서 참 감사했다." 하기도 하고 "아유, 나았다." 하고 잘됐다 하고, 감사하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아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런 소리도 또 안 하죠. 그렇지만 남을 건진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 아픈 사람이든 극난에 빠져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괴로워서 자기 편안하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괴로워서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한다고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깐 말입니다. 그게 부처님 법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공법이라고요. '부처님 공법이 있고 우리는 없나?' 그러지만 벌써 우리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하나하나가 다 공법이에요. 그 많은 생명들이 다 한데 더불어 같이 살면서 같이 행하니까 공법이죠.

비처럼 그렇게 나오란 말은 아니지만요, 알지 못하게 모든 것을 거기 앉아서 알고 다 도와줄 수 있고 건져줄 수 있고 이럭하게끔 한다면 자기네 자손들도 건질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 대대 종손들도 다 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거, 정말 서로 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뿌리를, 자기 선장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맡겨 봐라 그런 거죠. 벌써 그러면 맡기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거기다 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놓질 못하고 부지런히 와서 그냥 그 사단을 다 얘길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것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본론만 얘기하고 가는데, 그냥 자기가 겪은 얘기를 쫙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그건 자리가 잡히지 않았다는 결론이거든요. 자리가 잡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방방 뛰지 안 뛰겠습니까? 자리가 잡힌 사람은 그런 걸 해결을 하고 가거든요.

우리가 고등 동물이 되고 그래서 사람 중에도 진짜 사람이, 사람이 돼야 부처님 한 도량에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고를 고라고 생각하면 고가 되는 거고, 고를 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다 하고선 집착을 한다면 그건 멸이 되질 않아요. 그래 도를 이루지 못하죠. 그러니깐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도가 되느냐, 도의 길을 걷느냐, 그렇지 않으면 망상의 길을 걷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한 철 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우리가 일체제불의 한 도량에 이루나.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닌가.' 하고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사는 한 철은 그저 배고프다, 못 입는다, 돈이 없다, 뭐 어디 취직이 안된다, 취직해서 다니다가 떨어졌다, 이런 거를 가지고 그냥 벅석거리면 오히려 그것이 제동이 걸리질 않아요. 그거 떨어지게 한 것도, 굶게 하는 것도, 살게 하는 것도 바로 네가 하는 거니까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그냥 놓고 그대로 편안해야 해요. 그건 뭐 몸뚱이가 펄펄 뛰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 찰나에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요. 부처 속에서 나오는 보살들이 전부 응신이 돼서 돌봐 주시기 때문에 자기 몸뚱이가 이끌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도 되는 수가 있죠. 그 한군데를 믿고 모든 거를, 한 뿌리를 믿고 그냥 의지하고 해야 나무가 크게 자라는데 그렇지 않고 이 나무에서 저거 하다가 저기 가서 한번 해 보고, 조기 가서 한번 해 보고 이러다가는 죽도 밥도 못 되죠. 정말 진짜로 바다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자기가 이 세상에 형성돼서 나온 구녘도 그 구녘이고 들어갈 구녘도 그 구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들어가는 거보다도 살아서 들어가서 모든 걸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우치지 않았어도 그렇게 자꾸 닿는단 말입니다. 관하면 닿게 되어 있어요. 닿아서 모르는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참아서 관해도 이렇고 저렇다고 하면서 그냥 모두 그러는데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하나 실천하고 체험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될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말고 최선을 다해 정진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자기 뿌리를 믿는 것이 가장 급한 일

참된 공부가 아닌 것 같은데…

문 마음의 도리를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주위에서 공부해 나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된 공부가 뭔지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기의 근본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문제나 또는 자기 가족들 문제나 자기한테 닥친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만 마음을 내고 해결을 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욕심이고 기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참된 마음공부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가 좀 많습니다.

답 기복이라기보다는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누가 늙어서 죽는다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남 걱정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급해서 부지런히 길을 가는데 옆에서 싸운다, 옆에서 나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그냥 급하게 달려가지, 여기저기서 참섭하고 급하게 지금 가서 일할 거를 폐지시키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럼 한 번 극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죽으려고 깔딱깔딱할 때 옆에서 잘못하고 잘한다고 그거 참견하게 생겼느냐고요? 우리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나왔던 구녘으로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구녘에다가 자꾸 관하니까 거기에서 자꾸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 힌트를 주고 어떤 때는 잘되게 했다가 안되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되게 하는 거를 그대로 '안되게 하는 것도 너다!' 그러고 거기다가 놔야 됩니다. 그게 굴려놓는 거거든요. '안되게 하는 것도 너니깐 되게 할 수도 있잖아!' 하고 거기다 놔야 굴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 안된다를 다 놓고 자기가 그냥 지금 현재의 생활을 판단해 가지고, 자기 분수도 생각해서 거기다 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도 빠질 게 없어요.

믿음이 약해서인지…

문 믿음이 약해서인지, 아니면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서인지 그토록 확고했던 마음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마음공부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고 이 공부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등 말씀드리기 죄송한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죄송스럽지만 제가 이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가르침 주십시오.

답 우리가 내가 나를, 자신이 자기를 이끌어 가고 자기 자신을 믿고 가다 보면, 꼭 어떠한 게 잘되다가도 딱 멎고선 안되고 또 답답함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에는 반드시 그걸 공부의 재료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불도 꺼졌다 켜졌다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항상 켜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밤낮이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바다가 잔잔하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파도가 일죠. 그러니까 파도와 잔잔한 물과 같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등한 이치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알리기 위해서 자꾸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알맞은 일들이 생겨요. 그거는 그냥 텔런트가 영화를 찍고 나면, 한마디 하고 나면 괜찮듯이 그런 거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수습하려면 '공부시키느라고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고 이렇게 모르게 만들고 끄달리게 만드는구나!' 하고 바로 생각을 돌리면 그게 다 없어지거든요.

그런 건데 얼마 동안 되더니 이제는 잘 안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답답하게 굴어요. 그래서 하는 소립니다. 그렇게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답답하고 모르고 그러는 것이 도니깐 모르고 답답하고 말도 안 되고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공부했어도 이게 뭔가 하고 한탄하지 말고 모든 걸 거기다 맡겨요. '한탄하게 하는 것도 너고, 답답하게 것도 너고, 모두가 너다.' 하고선 거기다 맡겨 놓을 때, 그게 습관이 되면, 어떤 거든지 다 거기다 놓고선 가게 되면 실험을 통하고 또 체험을 하게 되고 이러면 자연적 문이 열리는 그런 이치거든요.

한군데다 몰두해서 굴려놔라!

그래서 우리가 깨우치고 안 깨우치고, 벌써 본래 깨우치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딱 막아 놓고는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그 도리를 알아야 내가 죽어서도 절대로 떳떳하고 꿀리지 않는다. 꿀리지 않아야 어디든지 내 자유껏 갈 수가 있는 거지, 내 자유껏 건질 수가 있는 거고 내 자유껏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즉 말하자면 살아서 인가가 됐기 때문에 죽어서도 인가가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원에 따라서 이 세상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해서 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또 나와서 고생하기가 싫어서 자원해서 나간다는 사람이 없었더랍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너희끼리 해라 이렇게 해서 뽑아서 여기 내려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러더러 있다 합니다.

그러니깐 여러분도 언제나 불쌍한 모든 생명들을 보고 살고 또 그 생명으로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중세계에서만 살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이 차원이 높아서 한 세계에 한 도량으로, 제불의 도량으로 한데 모여서, 텔레비전에 나온 은비까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1천원으로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 (02)737-0090, 팩스(02)737-0697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국보 제119호)은 6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고구려 불상.

눈으로 보고 느끼는 우리역사 고구려

국립중앙박물관 특집전시중

"국사 교과서에 있는 유물들이 여기 다 있네요"

9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건무) 특집전시 '고구려'를 찾은 중 · 고등학생들이 '철갑 기마병' 모형을 신기한 듯 들여다본다. 이번 전시는 고구려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실상을 널리 알려 고구려사를 올바로 이해시키고자 특별히 기획됐다.

이번 전시에는 1963년 경남 의령에서 발견된 '연가(延嘉) 7년'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고구려 금동여래입상(국보 119호 · 높이 16.2cm)과 중국 길림성 집안시 통구12호분 벽화 모사도(284×164cm) 등 유물 80여점이 선보였다.

특히 연가7년명금동여래입상은 중국 북위(北魏)의 불상 양식을 따르면서도 옷의 띠 매듭 끈을 길게 내리지 않고 있는 등 고구려의 특징을 보여준다. 광배 뒷면에는 539년 또는 599년으로 추정되는 연가 7년에 낙랑에 있는 동사(東寺)라는 사찰의 스님들이 만들었다는 내용이 4줄, 47자로 기록돼 있다.

이 밖에도 광개토왕 사후 제사 때 쓴 그릇을 신라 사신이 경주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호우총 출토 청동호우 등 고구려의 영향을 보여주는 백제, 신라, 가야지역 유물들도 전시된다.

이 전시회는 중앙박물관 고구려실에서 내달 17일까지 열린다. (02)2077-9643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세계문화유산 전문가 서울 총집합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 10월 2일부터 '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 주제

이태녕 교수 '장경각'에 숨은 보존 기술 발표

대영박물관, 루브르박물관 등 세계 유명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장을 비롯해 2000여명의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제20회 세계 박물관 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10월 2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04서울세계박물관대회. 이 대회는 1만9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유네스코 산하 국제박물관협의회(이하 ICOM)가 개최하는, 문화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국제적인 행사다. 첫 대회인 1948년 파리 대회 이래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것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 10월 2일 경복궁 전야제를 시작으로 6박 7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국제위원회분과회의와 주제별공동회의, 부스전시, 문화 탐방 등과 ICOM 임원선거가 예정돼 있다.

국제위원회분과회의는 ICOM 소속 국제위원회가 각각 주최한다. 4일부터 6일 사이에 국제보존과학위원회(이하 ICOM-CC), 국제고고 · 역사박물관위원회(이하 ICMAH), 국제공공범죄희생자추모박물관위원회(이하 ICMEMO) 등 29개 분과별 회의가 진행된다.

이 가운데 5일에 열릴 ICOM-CC 분과회의는 '무형의 보존: 물질과 상징의 보존'을 주제로 물질문화의 무형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 흥미를 끈다. 흔히 무형자산의 보존이라 하면 비물질적인 대상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물질문화가 담아낸 무형적 가치를 주목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태녕 서울대 명예교수가 '팔만대장경의 보존'이라는 주제 하에 장경각에 숨은 보존기술을 발표하고, 고려대장경연구소의 대장경 전산화를 보존 사례로서 언급한다.

또 4~6일에 열리는 ICMAH분과회의에서는 '고고학과 박물관: 유 · 무형 문화유산'이라는 주제 하에 유 · 무형문화유산을 어떻게 수집 · 보존하며, 어떤 방식으로 전시해 부각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또 송계헌 복천박물관 관장이 '가야문화', 인병선 짚풀생활사박물관 관장이 '백제 짚신', 서오선 국립부여박물관 관장이 '용봉향로'를 주제로 발표하는 등 우리 문화의 멋을 널리 알리는 기회도 마련된다.

반인륜범죄 기억 및 교육을 통한 평화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ICMEMO분과회의도 이채롭다. 범죄사를 기념관에서 만난다는 것은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우리에게도 전쟁기념관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전혀 새로운 것만은 아니다.

4~6일에 열리는 이 분과회의에는 전쟁과 범죄 등을 주제로 한 기념 · 박물관 관계자들이 참가해 2차대전 전범 처리 및 기념관 현황 등을 발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사무총장이 '2차대전시 일본군 정신대 한국인 여성 문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주제별 공동회의에서는 '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호' '디지털유산과 미래의 박물관' 등을 주제로 대회 참가자들이 다함께 토론에 참여한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문화유산 정보교류의 장 … 3년 마다 개최

■세계박물관대회란?

유네스코 자문협력기관인 국제박물관협의회(ICOM)가 개최하는 박물관대회는 국제박물관계의 정보교환 및 인적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 문화유산 전문가들의 교류의 장이다. 1948년 파리에서 '문서기록, 보존과 교류'를 주제로 시작돼, 3년마다 열리고 있다.

ICOM은 1946년 미국 뉴욕주 버펄로 박물관 관장이던 햄린(Chauncy J. Hamlin)이 창설한 기관으로, 유물 · 유적과 환경자료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한편 박물관 사업을 통해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한국은 1976년에 가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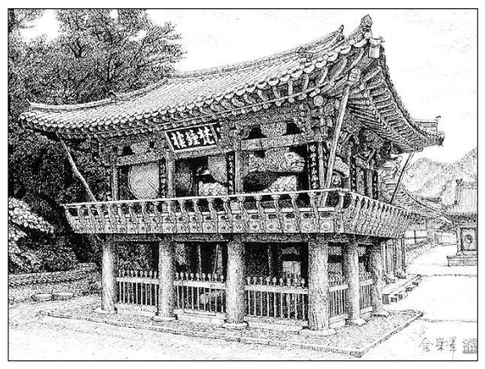
현재 ICOM에는 전 세계 150여 개국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장 · 큐레이터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펜화로 만나는 절 풍경

김영택 씨 현대백화점 초청 전국 순회전

10월 1일부터 서울 부산 등

전통 사찰의 건축미를 펜을 이용해 섬세하게 표현한 김영택의 '펜화기행-현대백화점 초대전'이 10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서울, 부천, 울산, 부산 등 5개 현대백화점 지점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 김씨는 문경 봉암사 일주문, 합천 영암사지, 장성 백양사 범종각, 선암사 승선교와 강선루, 쌍봉사 3층목탑 등 전통 사찰의 아름다움을 정교한 펜화로 묘사한 50여 작품을 선보인다. 물론 이중에는 사찰 건축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거창 요수정, 청송 방호정, 영주 소수서원 취한대, 경주 독락당 계정,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담양 소쇄원 광풍각 등 전통 건축물도 들어 있다.



김영택 씨의 펜화 그림 '통도사 범종루'.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사찰, 탑, 석등, 소나무, 누각 등은 세밀하다 못해 언뜻 사진처럼 보일 정도로 정교하다. 그런 세밀한 기운이 녹아나는 그의 작품을 마주 대하면 마치 현장에 직접 가서 건축물을 감상하고 있는 듯한 일체의 교감을 느끼게 한다.

순회 전시는 △서울 목동점 (10월 1일~17일) △부천 중동점(10월 18일~25일) △서울 천호점(10월 26일~11월 1일) △울산점(11월중) △부산점(11월중)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앎과 삶의 거리 (3)

근대사회가 추구하는 지식(知識) 발전과 대량생산을 통해 우리의 삶은 아주 편해졌다. 그에 따라 우리는 과학입국의 슬로건과 더불어 지식의 재생산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양적 성장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동조하지 않고 삶의 질을 말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시대에 뒤처진, 시대에 방해되는 무용지물의 취급을 받고 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공부를 하며 지식을 쌓아간다. 지식이란 논리적으로 상대를 이해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의 앎이다. 최근 모임에서 만난 어느 철학교수는 불교철학에 대한 책을 냈단다. 아마도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책이겠지만, 어차피 불교가 종교라면 과연 그 책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금강경> '사구게'의 한 구절만이라도 생활 속에서 자기화 되어 있다면 이미 나와 있는 수많은 불교철학 책도 필요 없을 터인데.

지식(앎)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고 매우 소중한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앎의 생산만을 가장 중요한 덕목(德目)으로 생각하는 문화 속에 있다. 행복하기 위해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미적분을 쓸 일이 없으며, 중국의 구지 선사도 엄지손가락 하나 평생 다 쓰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앎의 추구 속에 모든 가치를 두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거나 듣는 이도, 생명과학을 직접 연구하거나 이를 접하는 일반인들도 그저 많은 양의 지식을 창출하고 배우고 또 재생산하는 데 찬사를 보낼 뿐, 자신들의 삶은 방치하고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지식 생산 외에 앎을 자신의 삶과 일치 시키는데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런 것을 소중하게 평가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사회, 아니 수행의 종교라는 불교마저도 이러한 면을 잊어버리고 있는 듯하다. 책 많이 쓰고 말 잘하는 스님은 대접받고, 조용히 일상의 삶 속에서 포교와 수행에 힘쓰는 스님들은 오히려 무시당하는 풍토마저 보인다.

이미 우리가 지닌 불필요한 앎을 조금씩 버리고 필요한 만큼의 앎과 자신의 일상적 삶과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으로는 항상 깨어서 자신을 되돌아보아 이를 자신의 실생활에 반영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지식 창출과 생산성 추구로 자신의 삶을 소진시키는 이 시대 속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 이상 과잉된 앎을 만들어 내거나 쫓으며 살기 보다는 자신의 삶을 찾아 즐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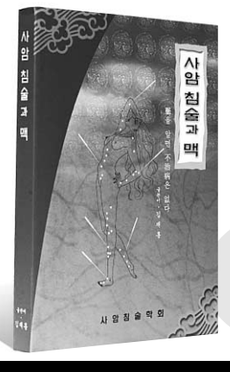
이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즐기면서 행복하려면 유희(遊戱) 정신이 필요하다.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를 적극 수용함으로서 하루하루가 좋아(日日是好日)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이지, 단지 넘치는 앎만으로 혹은 그 앎을 바탕으로 너와 나를 준엄하게 분별하는 자세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앎을 놓고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며 너와 나에게 따스한 미소를 보낼 때 가능하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앎의 생산이 중요한 덕목 아니라 불필요한 앎 버리는 지혜가 필요



그림 : 문병성

더 이상의 획기적인 침술서적은 없다!!!
사암침술과 맥
침술인의 필독서(必讀書)
1. 정확한 취혈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등분법)
2. 황제 내경 맥진법을 하루에 터득 할 수 있다
3. 복합처방으로 난치병도 두렵지 않다
4. 一鍼에 완치 시키는 즉효 요법이 있다
5. 중풍맥을 건강한 맥으로 즉석에서 교정한다
6. 100가지 질병 치료법을 쉽게 터득한다(고급과정)
※득이 없는 막연한 공부는 이제 그만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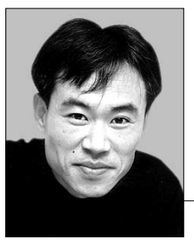
김재홍 저
505쪽 4×6판
정가 80,000원
구입문의: 사암침술학회
02)2267-9136

당신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맥을 터득해야 사암침술을 자유자재로 시술 할 수 있습니다.
(초,고급과정)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구요결,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종합실습
▶ 개강 : 2004. 10. 4. 월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금요일 (수시접수)
사암침술학회
장소 : 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

중국 청도 장안사 공양주 모십니다
장안사는 중국에 사찰을 세워 한국 불교의 전통과 큰스님들께서 이룩하신 위업을 지켜 가겠다는 뜻을 세우고 사부대중이 합심해 불기 2548년 9월 2일 재불님의 가피로 중국 최초 한국의 절 장안사 청도 분원이 원만히 개원하게 됐습니다.
장안사 청도 분원에서는 사찰음식을 통해 해외 포교에 진력하실 공양주를 다음과 같이 모시고저 하오니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1. 자 격
1) 해외여행과 중국 장기 체류에 지장이 없으신 분
2) 한국 음식 조리사 자격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분이나 사찰 음식에 조예가 깊으신 분
3) 신심을 가지고 해외 포교활동에 진력하실 분
4) 남.녀 구분, 연령제한 없으나 신체 건강하신 분
2. 급 여 : 상담 후 결정
3. 제출서류 : 1) 이력서
2) 주민등록 등본
3) 자격증 사본
4. 서류제출 : 장안사(경기 고양시 일산구 풍동 138-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접수마감 : 2004년 9월 30일 까지
6. 연 락 처 : 019-9232-4788
031)901-1954
장 안 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138-1

승복 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쪼끼 60,000 두루막 170,000
3. 면 솜없이 누비(한국산 숯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10,000
쪼끼 60,000 두루막 160,000
4.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쪼끼 70,000 두루막 200,000
5. 모직 특수솜 누비(물세탁)
적삼,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쪼끼 80,000 두루막 23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제일모직 250,000
실크 · 금낭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가사 대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 스님 차이나 남방, 니트T, 니트모자, 마후라, 가방, 신도용 쪼끼, 바지 준비되어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불자 세상보기

윤 제 학
동화 작가

샛강 받아들이는 큰강처럼

지금 한국 사회는 커다란 싸움판 같다. 싸움의 종류와 방식도 다양해서 '무규칙이종격투기'를 보는 기분이다.

이라크 파병, 과거사, 국보법 개폐, 행정수도 이전, 고교등급제 파문, 사립학교법 개정, 서울강 · 남북간의 격차 등 얼추 생각나는 것만 꼽아도 복잡한 전선(戰線)이 그려진다.

복잡한 전선은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그만큼 다원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해관계의 충돌이 과거처럼 민주대 반민주처럼 선명한 대립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좋게 보면 압축 성장의 과정에서 생략된 뒤늦은 성장통으로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보면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양상으로 치닫는 측면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인과 집단간의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여 만인의 만인에 대한 무자비한 경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는 듯하기 때문이다. 또 문제는 싸움을 주도하는 정치 세력들이 개혁 대 반개혁 혹은 진보 대 보수로 전선을 단순화시키려는 데 있다. 이런 싸움 구도에서는 환경이나 교육, 청년실업, 그리고 민생 문제 같은 것은 의도와 관계없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 이를 모를 리 없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 행위는 마치 선거 국면처럼 피아(彼我)를 가르는 데만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통치 행위도 정당의 대의 행위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본의와 관계없이 현정부의 개혁이 그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블랙 홀'이 돼 가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의의 '다양성'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 여론에 귀 기울이라는 원로의 충고도 소용이 없다.

흑백 논리로 피아와 선악을 가르는 상황에서는 정치적 이해를 떠난 목소리도 정치적 차원에서 색깔이 덧칠해질 위험성이 있다. 최근 국보법 개폐 논란의 와중에서 나온 조계종 법장 총무원장의 "국보법이 과거 인권을 탄압하는데 쓰였다 해도 지금 안 쓰면 되는 게 아니냐"는 발언이나, 김수환 추기경의 "국보법 폐지는 힘든 상황이다. 모든 문제에서 갈라서는 '남남분열'이 큰 걱정"이라는 말도 정치권의 흑백논리로 재단하면 얼마든지 반개혁으로 비칠 수 있지 않은가.

고대 중국의 관리 중에 '채시관(采詩官)'이 있었다 한다. 그의 직무는 각 지방의 민요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통치자는 그와 같이 수집된 민요를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살피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성공을 위한 개선의 자료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대통령은 어떤가. 다수의 의견보다는 '그래 두고 봐라. 결국은 내가 옳을 것이다' 하는 과도한 자기 확신에만 투철한 인상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 그것이 과거의 독재와는 다를지라도 계몽의 과잉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도 위험하다.

철저한 당파성에 입각한 처신이 의로운 자의 지혜로운 선택인 시절이 분명 있었다. 과거 유신치하나 5공화국 시절이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다. 퇴행적 보수 세력이나 반개혁적 보수 언론이 존재한다 해도, 그것조차도 큰 흐름 속에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결코 우민이 아니다. 통치자는 큰 강물과 같아야 한다. 큰 강이 샛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류가 범람한다.

공자는 노나라 환공의 묘에서 어떤 그릇을 보고 낯빛을 고쳤다 한다. 그 그릇은, 비면 기울어지고 차면 바로 서고 넘치면 뒤집히는 그릇이었다 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설문조사 결과 조계종 스님들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뜻을 지니고 있고, 또 사찰이 사회복지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한다. 불교계의 사회복지 참여와 활동의 위상이 교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여러 가지 시사를 준다.

우선은 이렇게 높은 사회복지에 관한 관심이 현실화되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의욕은 높은 반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든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스님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은 아직도 불교계의 사회복지가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원인을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또 많은 전문가가 배출될 수 있도록 종단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복지불사' 원점에서 생각하자

그렇다고 하여 처음에만 거창하다가 생각지 않은 실패에 부딪쳐 좌초하는 성급한 추진은 처음부터 경계해야만 한다. 우선 기존의 불교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여 그 시설들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갑자기 새로운 사업을 한다 며 열악한 환경에서 힘을 쏟아온 기존의 시설을 팽개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기존의 시설들이 발전하고 거기에 종사해온 여러 전문가들이 보다 우수한 인력으로 성장하여 새롭게 펼쳐지는 불교사회복지사업에 역군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불교계가 가진 사회복지사업의 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단계적 시행을 전제로 하는 치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 모범 사찰을 운영하여 거기에서 나온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는 방책을 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스님들이 투철한 출가자의 정신으로 자신을 낮추어 중생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다. 불교의 사회화를 위해서는 스님들이 변하고 사찰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 아래 새로운 각오로 바르게 출발해야 한다. "사찰이 사회복지 역할을 담당해야 불교의 사회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문조사 발표자의 말을 무겁게 들어야 할 것이다.

■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중독

싸움터에서 백만을 이기기보다 나 하나를 이기는 자야말로 최상의 이긴 자이니라. 〈법구경〉

알콜중독, TV 중독에 이어 이제는 인터넷이 중독의 대표주자로 떠올랐다. 커뮤니티 전문 사이트인 싸이월드(www.cyworld.com)는 미니홈피라는 아이템으로 '싸이폐인' 양성소가 됐다. 하루라도 싸이월드에 접속하지 않으면 금단증상이 일어날 정도로 광적인 네티즌들이 '싸이폐인'이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얻은 것.

디씨인사이드의 '헹자'로부터 출발한 인터넷 중독집단은 일종의 유행처럼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중에 이들이 양산해내는 콘텐츠를 접해보지 않은 이들이 없을 것이다. 개인적인 사진에서부터 합성 사진, 패러디 영상에 이르기까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맺음이 네트워크 위에서의 관계맺음으로 변해가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이런 행위 주체가 '나'에서 '애착하는 것'으로 바뀌는 순간, 몰두와 집중은 외부에 끄달리는 욕망이자 집착으로 변질된다. 부처님은 "욕망은 애착에 의해서 생겨나며, 우리의 생활은 그 욕망에 기초하여 행해진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그리고 중독은 이 집착하는 마음에서 온다.

〈수심결〉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보고 듣고 웃고 말하며 성내고 기뻐하고 옳다 그르다 하는 행위와 동작은 그대의 본 마음이지 육신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독은 결국 그 대상이 무엇이 되었든 육신이 익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익어서 하는 것이다. 마음한번 고쳐서 일생이 달라진다면 이제 나를 옭아매는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 행위의 주체를 '나'로 바꿔 '중독'이 아닌 '몰두'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 강지연(뉴미디어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동국대 '추락'하는가?

아침 〈중앙일보〉를 대하면서 올해도 여지없이 당혹감과 짜증스러움을 동시에 느껴야 했다. 매년 실시하는 대학평가에서 끝없이 추락하는 동국대의 위상을 또다시 확인한 것이다. 학교를 떠나 십수 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늘 모교에 대한 관심의 끈은 놓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 내게 이런 소식은 정말 달갑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종단이나 대학당국은 동국대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뭘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앞섰다. 도대체 재단과 학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학교발전을 위해 재단 승려 이사 누가 얼마를 투자했더라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고, 늘 이사들끼리 이권 다툼으로 싸움만 열중한다는 소리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동문들끼리도 모이면 재단이 바뀌지 않는 이상 동국대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그나마 작년에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30위권에서 겨우 맴돌더니 이제는 동국대의 '동국'이란 글자조차 아무리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언제까지 선배들이 땀 흘려 일구어 놓은 명문사학의 명성에 무임승차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학은 자존심이 생명이다. 제3자가 아닌 이상 동국대의 수준이 이 정도라고 하는데도 아무렇지 않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동문들, 불자들이 자존심에 상처 주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재현(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불상수입' 개탄스럽다

불교미술품들이 수입되어 우리 것으로 사찰에 모셔지는 경우가 있다는 〈현대불교〉 기고문을 읽었다. 심지어 수입 불상에 얼굴부분만 우리 것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소중한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기능인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단 말인가. 기능인들을 보다 많이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시기에 불교계에서 이를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문화재는 모든 국민들의 것이고 후대에 전해주어야 할 소중한 재산이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만의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누구보다 전통을 많이 간직한 불교계가 스스로 전통을 깨는 행위를 한다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다. 먼훗날 후손들이 보다 많은 불교문화재를 접할 수 있도록 불교계가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감로심(붓다뉴스)

거점사찰 학생회 설치 의무화

〈현대불교〉 '위기의 사찰학생회' 기사를 읽었다. 사찰학생회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문제는 이런 위기의식이 어떠한 구체적인 해결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특별한 대책 없이 넋놓고 바라보고 있는 사이 청소년들과 불교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불교계가 해야할 일은 당연히 아이들을 사찰로 또는 불교학생회로 끌어오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다.

불교계는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기초조사부터 벌여야 한다.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도심 거점사찰의 학생회 설치 의무화를 통해 불교 각 종단이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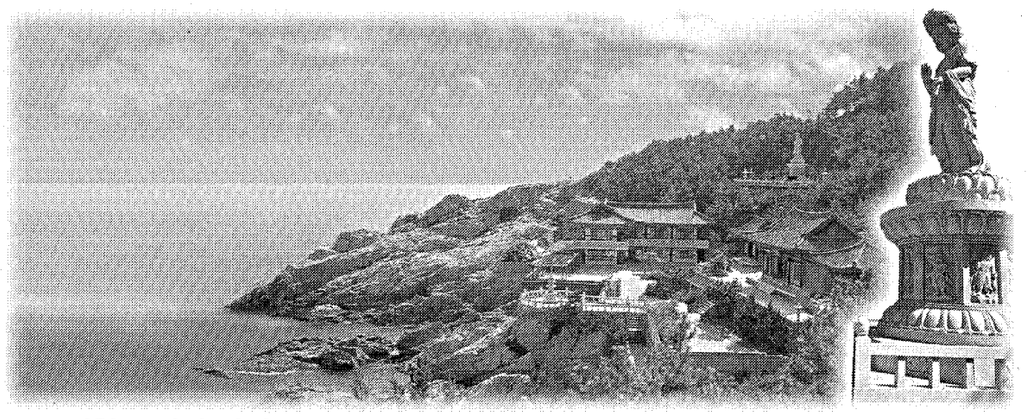
지금처럼 재정을 핑계로, 참여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외면한다면 청소년들은 불교를 한낱 역사의 산물로 밖에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김진석(서울 강동구 천호동)

12면 상식 퍼즐 정답

오	대	산		모		
체		조	삼	모	사	
투			투		원	
지	각				전	공
	황		도			영
	사	농	공	상		방
		담		생	방	송

'현대' 만평 심 민 섭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프로페셔널을 위한
www.drsaju.com
전문가 역학 커뮤니티
프로 사주박사
사주박사
전문 역학인을 양성하기 위한 온라인 아카데미 프로 사주박사가 문을 활짝 열고
역학 고수를 꿈꾸는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프로 사주박사 (www.drsaju.com) 는...
* 프로 사주박사는 일반인들이 사주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 프로 사주박사는 역학에 대해 수준 높고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각 분야의 권위있는 선생님들이 체계적인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는 역학 전문 포털 사이트 입니다.
2. 프로 사주박사가 회원님들께 드리는 파격적인 특전 - '사주박사 6.0' 사용
* 프로 사주박사의 회원(월 회비 36,000원)이 되면 지난 10여 년 동안 전문 역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역학 전문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을 누리게 됩니다.
* 역학 전문가용 최신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은 현재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역학 프로그램 중 오류를 완벽하게 수정, 보완한 최신 프로그램으로 개별 구입 시 가격이 150만원이나 하는 고가 프로그램입니다.
* 프로 사주박사 회원은 '사주박사 6.0' 프로그램이 수시 업그레이드 될 때도 제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회원님의 개인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 관리해드립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역학에 자신이 붙으면 개인 홈페이지 하나쯤 갖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프로 사주박사 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하는 회원님을 위해 저렴한비용 (초기개설비 6만원)으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리고 정성껏 관리해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빌딩 3층 선도텔레콤 주식회사
Tel. 02)742-3025~8 Fax. 02)742-3023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28) 홍천 수타사


깃동잠자리.


다람쥐.


은줄표범나비.


쑥부쟁이.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의 서식 가능성이 높은 수타사 용담계곡. 수타사의 수행환경은 이 계곡의 생태환경에 달려있다.

수타·공작·덕치…이름만 들어도
마음 맑아져

햇빛 풍부한 부도밭 초본류 즐비
거듭된 불사로 도량 중심 밀려나
'용담' 포유류 서식 가능성 높아

홍천에서 공작산 수타사까지는 10여 킬로미터 남짓한 거리이다. 수타사 가는 길은 덕치천이 오며 가며 길을 함께 한다. 덕치천은 해발 887미터의 공작산과 876미터의 대학산 골짜기에서 발원한 홍천강의 한 지류이다.

덕치천에 접한 주차장은 수타사의 들머리이다. 비가 온 뒤라 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맑다. 굳이 바짓가랑이 걷고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물고기들의 평화로운 유영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덕치천의 수질은 돌고기 종개 피라미 갈겨니 모래무지 퉁가리 새코미꾸리 밀어 등이 살고 있는 2급수이다. 이들 종류는 상류 쪽 수타사 계곡에서도 관찰된다.

돌고기는 덕지천과 수타사 계곡의 수질을 간접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지표종이다. 자갈과 돌이 깔린 곳을 좋아한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매표소를 지나면 오른쪽으로는 노송 숲 속에 부도들이 자리하고, 왼쪽으로는 높은 보가 수타사 계곡을 가로막고 있다. 부도 주변의 노송은 줄기마다 송진을 채취한 생채기들이 나 있어서 눈을 아프게 한다.




부도전 옆 잣나무(위) · 헌식(獻食)대(아래).

어느 절에나 부도 밭 주변은 대개 초본류들이 무성하다. 주름조개풀 여뀌 맥문동 양지꽃 달개비 고마리 고들빼기 쥐손이풀 짚신나물 루드베키아 개망초 등등의 초본들이 화엄세계를 이루고 있다.

햇볕이 좋고 초본류가 무성하면 곤충들이 모여들기 마련이다. 두줄나비 세줄나비 은줄표범나비 사향제비나비 등을 비롯해 풀매미 벼메뚜기 고추잠자리 풍이 등등이 맑은 가을 햇살을 희롱하고 다닌다.

덕치천을 막은 보는 덕치리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물을 가로막으면 지형과 식생이 바뀌고, 그에 따라 곤충과 조류상이 바뀐다. 유속이 떨어지면 물은 더 이상 토사들을 실어 나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내려놓게 된다. 하상이 높아지고 위쪽에 모래와 자갈밭이 생기는 것도 그 때문이다.

숲길 오른쪽에 문짝도 없는 서낭당이 허술하게 앉아 있다. 서낭은 집을 나가고 주인 없는 빈 집을 석가모니불이 지키고 있다.

보를 지나면 수타사 계곡이 시작된다. 수타사 계곡은 공작산 서남쪽 골짜기에서 발원해 약 6킬로미터 가량을 흘러서 비로소 수타사에 이른다. 수타사를 돌아 덕지천이 되고 덕지천은 홍천읍에 이르러 홍천강과 합류해 북한강이 된다.

수타사는 통일신라 성덕왕 때인 708년에 일월사(日月寺)라는 이름으로 처음 창건됐다. 그러다가 조선 선조 때 공잠대사가 현 위치로 옮기면서 '수타사(水墮寺)'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한자를 '水陀'로 바꾼 것은 조선 후기 순조 때의 일이다.

수타교 앞 상수리나무에서 공작교에 이르는 구간은 팥중이의 땅이다. 팥중이는 회갈색에 검은 점무늬가 있는 메뚜기이다.

수타사는 봉황문이 일주문을 대신하고 있다. 봉황문 안에 모셔진 사천왕은 6백 년 동안 <월인석보>를 가슴에 품어온 영험 있는 사천왕이다.

봉황문과 흥화루를 지나면 경내가 펼쳐진다. 대적광전과 원통보전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아랫단 좌우로 심우산방과 요사채가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본전인 대적광전이 경내 중심에서 많이 밀려나 있다. 본래 자리지만 거듭된 불사로 경내가 넓어지면서 한쪽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대적광전과 원통보전 뒤 산자락에 참취 쑥부쟁이 노루오줌 산괴불주머니 등이 가을을 열고 있다.

삼성각 앞 좌우에 섬잣나무가 서 있다. 일반 잣나무와 같이 잎은 5개씩 묶여 있으나 길이가 짧다. 내염성과 내한성이 강하지만 생장은 느린 편이다.

범종각 옆에 늙은 전나무가 하나씩 잎들을 털어내며 임종을 기다리고 있다. 열반을 앞둔 노장처럼 뼈만 앙상하니 남아서 쳐다보는 마음이 안쓰럽다. 요사채가 앉은 석축은 막돌로 쌓아올렸다. 그 석축 틈 사이를 다람쥐가 들락날락한다. 근래 들어 다람쥐들이 절 주변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헌식대에 음식물들이 너저분하게 쌓여있다. '헌식(獻食)'은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음식을 조금 거두어서 잡귀들에게 나눠주는 제례 풍속이다. 심우산방 옆에 강원도 보호수 제166호로 지정된 수령 5백년의 주목(朱木) 한 그루가 있었다. 이 주목은 공잠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였다 한다.

수타사 주변은 키 큰 장송을 중심으로 비교적 식생이 튼실하고 자연성이 높다. 얼마 전에 홍천군이 수타사 주위 '사찰림'을 풍치 보안림으로 지정했다.

밖으로 나가면 또 초지와 미완성 연못이 있다. 몇 해 전 생태연못 바람이 불면서 홍천군에서도 1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 이곳에다 생태연못을 조성하려고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연못 주위에 물달개비와 부들이 보인다. 이들 정수성 수생식물은 수타사와 같은 계곡이 아니라 논이나 평지 연못을 적지로 하는 식물이다.

드넓은 초지는 버려진 땅이다. 연못을 만든답시고 파낸 흙들을 적체하여 황무지 둔덕을 만들어 놓았다. 여뀌 고마리 갈퀴덩굴 지칭개 등등의 풀들이 무성한 이곳에다 군 당국은 쉼터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

연못을 지나 다시 공작교를 건너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기면 용담계곡이 열려있다. '수타(水陀)'라는 이름도 물 좋은 이 용담계곡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깃동잠자리들이 앞서거니 뒤서기니 하며 길을 안내한다. 깃동잠자리는 4개의 날개 가장자리에 깃동 같은 흑갈색 무늬가 나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계곡 주변의 지질은 화강암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화강암은 지하 100킬로미터 안팎에 있던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올라와 식으면서 굳어진 것이다. 비중이 가볍기 때문에 지각변동에 따라 먼저 지표면으로 밀려 올라오게 된 것이다.

용담은 화강암이 만든 깊은 '소(沼)'이다. 용담 주변은 화강암 암반과 단애가 절경을 이루고 있다. 암반과 단애에 크고 작은 확과 구멍들이 나 있는데, 이를 '포트홀(pot hole)'이라고 한다. 물이 상류로부터 자갈이나 모래를 싣고 와 바위틈에 넣고 오랜 시간 동안 소용돌이치면서 깎고 갈아서 만든 흔적이다.

계곡 위쪽 바위에 포유류의 것으로 짐작되는 배설물이 있다. 수달의 것으로 짐작된다. 위쪽으로는 인적이 없기 때문에 수달이 서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용담 주변은 수심이 깊어서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다.

예나 지금이나 수타사의 수행환경은 용담계곡의 생태환경과 함수관계에 놓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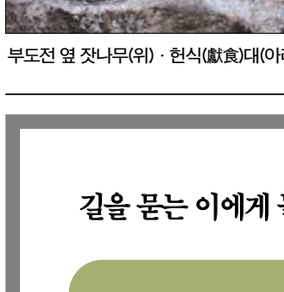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길을 묻는 이에게 들려주는 대행 스님의 지혜의 말씀

삶은 苦가 아니다

쉽고 명쾌한 대행 스님의
'참' 인생 이야기

때로는 야트막한 산허리를 돌아 흐르는 시냇물처럼, 나지막한 목소리였다가 한순간에 폭포수 같은 사자후를 토해 내기도 한다. 대행스님은 안양의 한마음선원에 계신다. 그러나 어디고 계신다. 오로지 만 생명이 자성을 밝혀 대자유의 세계로 들게 하기 위해 포교와 수행으로 정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쇄

■대행 스님 법어 | 혜원 스님 엮음 | 254쪽 | 9,000원

왜 스님은 팬티만 입고 공중화장실에 있었을까?

스님이야기

법정·서암·명성·대오 스님 등
85명 수행자들의 일화를 모은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최근 발간된 '스님이야기'는 지묵 · 효림 · 현진 스님 등이 수행길에서 만난 스님 85명의 일화를 소개했다. 엄숙함의 베일을 걷고 보아도 수행자로서 고결한 자세와 인간미가 도드라진다.

- 조선일보

합천 해인사 주지이면서도 절 주변을 돌며 관광객이 버린 담배꽁초와 휴지를 주웠던 지월 스님, 코피 나도록 얻어맞아도 상대방에게 주먹질을 하지 않았던 무술 고수 대오 스님 등 다양한 수행승 이야기가 진솔하게 펼쳐진다.

- 동아일보

지묵 · 허주 · 수완 · 정운 · 원옥 스님 등 15명의 스님이 필자로 나서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 전형적인 학자풍의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20여 년 가까이 장좌불와, 오후불식을 해오고 있는 지유 스님 등 곁에서 지켜본 스님들의 수행 모습을 솔직담백하게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묵 스님 외 지음 | 448 쪽 | 12,000원

禪 DISCUSSION ABOUT CHAN(ZEN) BUDDHISM

문밖에 나서다

중국 선불교 다시 읽기!
그리고 되받아 쓰기!

중국 선사들의 선문(禪文)을
패치워크방식으로 새롭게 해석!

「禪, 문밖에 나서다」는 중국 선사들의 이야기를 한 군데에 모아 놓고, 내가 그 동안 읽었던 책들, 또는 나의 짧은 생각들과 연계시켜 본 작품이다. 마치 고급 실로 짠 천 조각을 붙여 만든 조각보처럼…….

- 본문 중에서



■석해탈 저 | 456쪽 | 14,000원

부처님 말씀의 길잡이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